2019 경희고등학교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독일	러시아	말레이·인도네시아		베트남	스칸디나비아
스페인	아프리카	영어	일본	중국	프랑스

2019 경희고등학교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발행일 2020년 02월 06일
발행처 경희고등학교
기획 대표 박보령(경희고등학교)
기획·집필 박보령(경희고등학교)

지도교사
박보령(경희고등학교), 박현묘(경희고등학교),
김판성(독일A), 홍수운(독일B), 이새봄(러시아), 조일규(말레이인도네시아),
정혜원(베트남), 박지현·송다경(스칸디나비아), 박소영(스페인),
양철준(아프리카:스와힐리어), 김재량(영어), 강서영(일본A), 박보령(일본B),
오세림(중국), 공소미·김예림(프랑스)

목차 CONTENTS

1. 발간사 5
2. 학교장 인사말 7
3. 연간 지도 및 학습 과정 8
4. 학술 심포지엄 출품작(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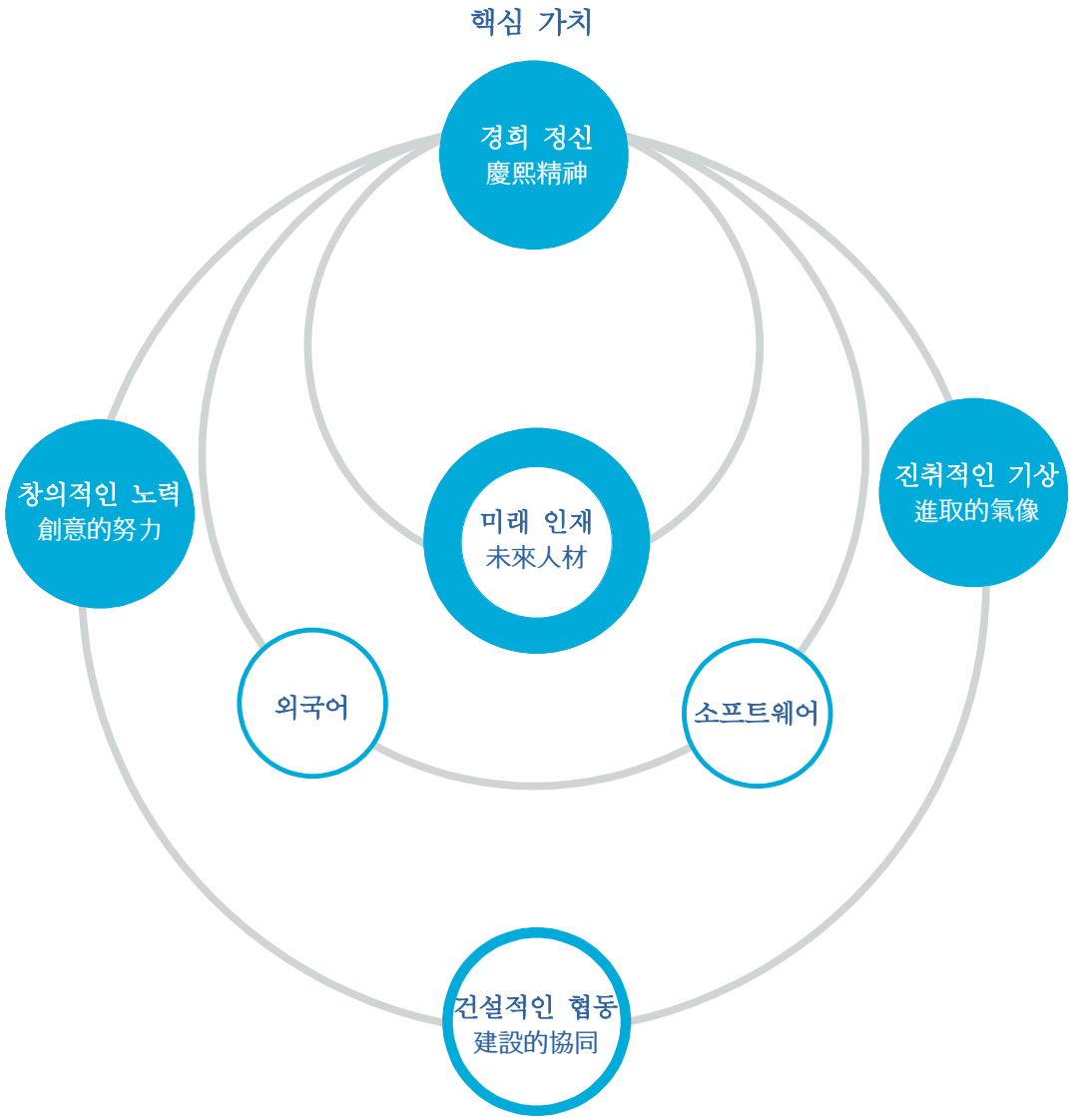
[독일]	독일과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 분석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안	조현준 외	9
[독일]	AI 자동화 시대의 한국의 길 : 독일과 타 국가를 중심으로	이서경 외	13
[독일]	국내 반려동물 제도의 문제점 : 독일의 반려동물 제도 도입 효과	박정빈	19
[독일]	핵과 컴퓨터의 비교 : 용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최성빈	27
[독일]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현대적 고찰	김선중	33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확산 과정과 교류 현황	홍성훈 외	38
[베트남]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베 양국의 역사교육 현황 조사	이형준	45
[스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스타트업 지원방식과 시사점	김민성	56
[스페인]	ZARA를 중심으로 알아 본 SPA브랜드의 특징과 문제점	유민기	64
[스페인]	스페인어의 역사	최정민	70
[일본]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통 재해 대처법 비교	김범진 외	75
[일본]	일본 사소설의 정립, 발전과 의미	이권률	81
[일본]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본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 사유	김정원	87
[영어]	미국 스포츠 에이전시 특징	이건희 외	97
[영어]	영어 회화와 영어 수업	김경수 외	103
[영어]	미국을 통해 본 장애인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과학의 미래	이규환	108
[영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 한반도 생존전략 모색	김영준	121
[중국]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정현도	126
[중국]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정부의 대처 현황	신유민	134
[중국]	중국 발 미세먼지와 한-중 관계	김은형 외	139
[프랑스]	68년 프랑스 학생 운동과 87년 한국 학생 운동간의 비교	조민준 외	145
[프랑스]	페미니즘, 한국이 나아갈 방향성	고석현 외	153

5. 학술 심포지엄 출품작(미게재)

[독일]	독일 문학 작품 분석	조영재 외
[독일]	파시즘의 정의 : 영화 '디 벨레'를 중심으로	정현목
[러시아]	러시아 의료 보험	김태양 외
[러시아]	북극권 개발	정천교 외
[러시아]	독립 국가 연합 내 스포츠 역사 및 현황	강훈민 외
[러시아]	러시아 경기장 종류와 건축 모양	이한수
[베트남]	베트남의 산업 구조와 산업별 노동 인구 분석	김정헌 외
[스칸]	북유럽 신화와 타 신화와의 비교를 통한 북유럽 신화의 특수성	이미르 외
[스페인]	경제적 관점에서 본 스페인의 흥기와 몰락	이창현 외
[스페인]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시민 구단 비교	김 한
[스페인]	스페인의 오버투어리즘 극복을 위한 새로운 관광 테마 고안	김민혁 외
[스페인]	스페인의 입헌 군주제에 대한 탐구	이준혁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의료 실태	박수원 외
[일본]	닌텐도의 부침	신효철 외
[일본]	한국과 일본의 의료 보험 제도	신승훈 외
[일본]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오원진 외
[일본]	일본 문학 작품 속 사회 비판	정진우 외
[영어]	해외 영화와 국내 영화의 차이	이주희 외
[영어]	세계 최강 전투기 F-22의 단점	최수빈
[영어]	관계 마케팅 및 호텔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김지섭
[영어]	미국의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전략과 대응 : 구글과 아마존	김성진
[영어]	미국의 도시 문제와 해결	홍경택
[영어]	한국의 원전 정책 : 미국, 캐나다, 영국과 비교하여	장지원 외
[프랑스]	프랑스 스포츠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김준원 외
[프랑스]	프랑스 관광 문화 정책과 관광 콘텐츠 벤치 마케팅에 관한 연구	나민혁 외

발간사 FUTURE TALENT PROGRAM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이라는 경희정신을 실현하는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경희 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미래 인재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국제적 언어 및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외국어 프로그램'을, IT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수업에 참여하며 꿈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경제적 생활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확대되면서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도 날로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와 다양한 구성의 사회가 익숙해지는 요즘, 다른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지식에 앞서 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2018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롭게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외국어 과목 지침에서는 다양한 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 건전한 세계 시민 의식과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을 교과 역량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와 함께 자국의 문화를 되돌아보며 삶에 대한 시각을 풍요롭게 함은 물론 균형 있는 세계관을 갖추게 함으로써 타인과 타문화를 포용하는 관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교실에서 외국어 교육이 맞닥뜨린 여건은 위와 같은 교육역량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지내다 오더라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 나라에 대해 1~2년의 단편적인 학습시간으로 지필평가를 통해 학생의 수준을 계측해야하는 한계 때문입니다.

3년째를 맞이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2학년 학생들은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엔 생소하기만 했던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화된 학술 자료를 완성하고, 내·외부 인사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19.12.26.)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깊이 있는 학술 자료까지 완성하며 성장해 온 학생들에게 누구보다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그러한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열심히 따라와 준 1학년 학생들에게도 내년을 기약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특히 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지면상 한계로 올해 책자에 실리지 못한 팀의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감사를 전합니다.

학생들은 학술 자료 작성을 통해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사하였고,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였으며,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적 산출물을 완성해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하고, 하나의 산출물을 위해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려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소감을 밝혔습니다.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학술 자료 작성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이러한 덕목들이 앞으로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나아가 세계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 시대에서 글로벌 리더, 진정한 미래 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주요한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경희고등학교 미래 인재 외국어 프로그램 지도교사 일동

학교장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PRINCIPAL

요즘은 미래를 주도할 열쇠를 가지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대에도 공통적인 것은 인재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인재에 대한 발굴이 곧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기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주도하는 유연한 인재는 필수입니다.

본교의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은 이를 기반으로 본교 학생들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학교에서, 정형화된 교수-학습 과정과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탈피하여 미래 인재에 걸맞은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친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넘어 어떠한 사회가 도래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리더십을 갖춘 자랑스러운 경희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어디에서도 배우기 힘든 다양한 언어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언어 뿐 아니라 해당 문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탐구하고, 학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다양한 문화와 사람에 대해 편견 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시민 양성의 큰 흐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20년 2월 경희고등학교 교장 이 정 규

연간 지도 및 학습 과정 ANNUAL CURRICULUM

2019.2. 프로그램 기획, 협조

수업 시간과 장소, 외국어 교육의 전통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 외국어 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등 인근 외국어 전공 학과에 미래인재 외국어 프로그램의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 구함.

2019.3. 학습 모둠 구성

본교 1,2학년 학생 대상 교육 활동 및 의의 설명, 신청 언어에 따라 학습 모둠 구성.

2019.4.~7. 1학기 프로그램 진행

매주 1회 2시간씩 본교 및 초빙 교사를 통해 총 10개 전공(독일, 러시아, 말레이-인도네시아, 베트남, 스칸디나비아, 스페인, 아프리카, 일본, 중국, 프랑스)에 해당하는 언어와 문화 심화 학습하는 1학기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실시.

2019.8. 2학기 프로그램 진행
학술 심포지엄 모둠 구성

매주 1회 2시간씩 언어와 문화 심화 학습. 전공 수업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며 학술 심포지엄을 위한 주제 탐구, 모둠 구성.

2019.12 학술 심포지엄 자료 제작

조별 토의와 작성 과정을 거쳐 각 전공 국가의 문화에 대해 심도있게 탐구한 심포지엄 자료 작성.

2019.12.26 학술 심포지엄

우수 8개 팀 대상 경희 학술제 :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0.2.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발간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과정 분석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안

Deutschland-Japan-Studien zur Verbesserung der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Japan.

경희 고등학교 1학년 5반 25번 이름 조현준 Cho hyun joon jooni0307@naver.com

초 록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오래전부터 '애증'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어갔고, 그 결과로 현재 지소미아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여러 가지 보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이 상황이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점 그리고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일본과 비슷한 역사를 가졌던 독일의 전후처리 과정을 연구하고 일본과 비교하여 보며 현재의 한일관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Korea und Japan sind geographisch eng miteinander verbunden, und man kann davon ausgehen, dass es seit langem eine Beziehung der "Affäre" ist. Seit dem jüngsten Urteil des koreanischen Gerichts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die Verhängung der Todesstrafe haben sich die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Japan jedoch rasch abgekühlt, so dass jetzt mehrere Repressalien wie z. B. Jisomia und der Ausschluss der Weißen Liste stattfinden. Unter diesen Umständen, denke ich, liegt die Situation an den Problemen, die während des japanischen Nachkriegsprozesses entstanden sind, und den deutschen Nachkriegsprozess, der eine ähnliche Geschichte wie Japan hatte, untersuchen und nach Möglichkeiten suchen, die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Japan zu verbessern.

Ⅰ. 서론

한일 관계가 점점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인터넷을 보면 지소미아나 화이트리스트, 불매운동 등의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을 볼 수 가 있고, 특히 불매운동의 영향은 점점 커져서 '이 시국'이니 '시국충'이니 하는 새로운 말들도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의 이러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원인으로 생겨난 것인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내려진 판결에 1965년 박정희 정권당시 일본과 맺었던 조약위반임을 주장하는 일본 측과, 3권 분립의 원칙을 주장하며 판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한국 측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한일관계가 지금만 이렇게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 과거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또 그런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점 때문에 한일관계는 언제나 바람위의 등불과 같았다고 볼 수 있다.[1)]

오늘 나는 이러한 한일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의 전후처리 방식,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협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연구함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인재 시간에 배웠던 일본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독일의 전후처리 과정을 더 연구하여 보고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한일협정

(1) 한일협정

오늘날 이러한 갈등이 생긴 원인중 하나는 한일협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광복이후, 국교가 중단되었었던 한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처음 국교를 맺은 것은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이다.

이 협정은 맺어진 후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것으로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여겨지며 학생한명이 죽을 정도로 심한 투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2)]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의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문장과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문장이 다르게 해석이 되며 논란을 빚었는데, 조약의 무효화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한일합방조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래 무효였다는 입장에서, 일본은 지금 시점에서 무효이며 당시에는 합법적 식민 지배였다는 주장을 폈고,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선 민사상의 청구권 만이 해결되었다고 보고 또한 '대일 청구요망 8항목' 이외의 항목엔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일본 측에선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며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한국의 협상은 거의 30만 가까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차관 3억달러에 해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일협정은 참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겠다.

눈앞의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앞으로 협정의 애매한 내용이나 그 파급성이 얼마나 클지 생각도 하지 않고 체결한 조약이, 지금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되며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두 나라의 사이를 갈라놓

1) 이성우(경기연구원)<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경기연구원,이슈&진단 제381호,2019.08
2)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패전국 일본이 본 우리의 광복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처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군사지 제96호,2015.09

게 만들어놨으니 말이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의 패전이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후처리를 위해 맺어진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전후처리를 위해 맺어진 조약인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처리문제도 잘 들어나 있는데, 때문에 이 조약은 아직까지도 한일 양측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화조약의 내용은 점령국이나 식민지에 있던 모든 일본의 자산들을 몰수하는 내용, 또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조약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점이나,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하는 등 후대에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3]특히 이 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영토분쟁의 씨앗이 되었다.[4] 또한 이 조약에서 취한 미국 측의 애매한 입장도 문제가 되었다.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다른 확실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서 청구권문제는 한일 간 협의로 풀어야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피해 당사국의 참여를 제한하고 내용조차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양국의 정상화를 더 어렵게 만든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독일의 전후처리

(1) 금전적인 배상

독일의 전후처리와 일본의 전후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독일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 한 것처럼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피해국들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전후처리에 대한 보상이 주로 국가대 국가차원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위주가 될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치즘 불법에 대한 급부 총액이 무려 약 865 마르크에 이른다는 점이나 그 지급되는 배상들이 전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는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도 있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덴마크 , 노르웨이, 프랑스 등등 많은 나라에 인종적인 박해나, 다른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억 마르크에 이르는 배상을 하였고, 청구권 또한 승인하였다. 개인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협정에서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이는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1989년엔 독일 녹색당이 “나치스 지배하에서의 폴란드인 강제 노동자에게 개인적 보상을 행하기 위한 포괄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 것이나, 1992년에 폴란드에게 화해기금을 창설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다.

(2) 과거사 청산

독일의 전후처리과정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과’이다.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계속되어오고 있고, 그것도 국가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5]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진은 이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과뿐만 아니라, 독일은 역사 교과서를 피해국들과 공동집필을 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전술했던 빌리 브란트 총리의 사과 이후 과거사 청산은 더 활발해 졌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도덕적으로

3) 남상구(동북아 역사재단)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 문제 >,한일관계사학회,한일관계사연구 제36집,2010.08
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2008-02-28
5) 이진모(한남대학교),<두개의 전후>,역사와경계역사와경계,제82집2012.03

과거사를 청산하는 자세는 독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사과는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날 메르켈 총리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과거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피해국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어 냈기에, 지금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Ⅳ. 결론

현재 한일관계는 과거의 애매한 처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한일 협정이나 샌프란시스코조약 모두 당시의 상황만을 보고 근시안적인 사고로 맺은 미봉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리 위에서 생겨난 한일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일관계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한일양측에서 주장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양측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일본 측에선 65년 한일협정당시 다 끝났다고 생각한 문제를 한국이 꺼내니 당황스러울 것이고, 한국 측에선 특수한 케이스의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해석했으니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했던 말처럼, 일본이 역사청산 문제에 있어 인색한 것은 사실이다. 단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독일의 케이스를 보면, 피해국가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무조건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만이 현재 한일관계를 개선할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가사이의 문제인 만큼, 서로 한발 물러주고 양보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는 참 애매한 것 같다. 과거 아픈 기억이 있는데도 지리적으로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마치 자리를 뽑았는데 어제 싸운 친구랑 짝이 된 것 같은 상황이랄까?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편으로는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관계라고도 생각한다. 지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참 유치하다는 생각도 든다. 조약의 말 토씨 하나로 싸우는 것을 보면 슬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양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주고, 타협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가진 한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Ai의 자동화 시대의 한국의 길
독일과 타 국가를 중심으로

Korea's Way in the Automation Age of Ai
Mainly i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Koreas Weg im Zeitalter der Automatisierung von Ai
Hauptsächlich in Deutschland und anderen Ländern

경희 고등학교 1학년 6반 20번 이름 이서경 Lee seo kyung bug0609--@naver.com
경희 고등학교 1학년 1반 23번 진형준 Jin Hyung jun wlsgudwns5050@naver.com

초 록

Ai는 인류에게 큰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교육을 개편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5대 전략을 세웠고 미국방부는 AI에 대한 5가지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Ai 시대를 대비하고자 했다. 중국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제조업 국가에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고 독일, 영국, 핀란드는 한국과 비슷하게 교육 정책에 힘을 쏟고 있었다. 한국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전성 보장 관련 데이터 수집 지원, 규제 마련, Ai 개발 과정 모니터링이 적합해 보인다.

Abstract

A wird der Menschheit große Vorteile und Gefahren bringen. Um sich darauf vorzubereiten, reformierte Korea seine Bildung. In anderen Ländern haben die USA fünf Strategien, und das Pentagon möchte sich mit fünf strategischen Ansätzen auf die KI-Ära vorbereiten. China versucht, durch den Einsatz von Ai-Technologie ein technologisches Kraftpaket in der Produktionswissenschaft zu werden, während sich Deutschland, das Vereinigte Königreich und Finnland auf eine Bildungspolitik konzentrieren, die Korea ähnelt. In Bezug auf die Politik Koreas gibt es einige Probleme, und die Gegenmaßnahmen eignen sich zur Unterstützung der Datenerfassung im Zusammenhang mit der Sicherheit, der Festlegung von Vorschriften und der Überwachung des Ai-Entwicklungsprozesses..

I. 서론

과학의 발전은 불의 발견을 시작으로 1차 산업혁명(18c~19c): 기계화, 자동화 2차 산업혁명(19~20c):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20c 후반): 인터넷의 개발 현재 21c에 이르러서는 ai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인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더욱 편해지기 위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허나 이러한 발전들은 분명히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안겨 주었지만, 인류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1차 산업혁명은 실업자,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하였고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의 환경문제가 더욱 극심해 지기도 하였으며 3차 산업혁명은 문화적 말살, 정보보안의 문제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그것을 감수하고 개선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지구온난화, 실업, 개인, 국가간 빈부격차를 가져다 주었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인류에게 보다 많은 편리함(iot등)을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더욱 심각한 실업문제, 국가간 기술격차 등의 출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보안할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편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이 소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ai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서술하고 Ai가 가져올 여러가지 변화들에 대해 서술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한국의 자세와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자세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개선해야할 점을 찾아 한국이 가야할 방양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II. Ai의 정의, 특징

1. Ai 정의의 불분명함

인공지능(이하 AI)이란 개념은 1950년대 발표된 논문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등장하여 현재에는 알파고, IoT 기술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ai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1990년대 말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모든 연구자, 전문가들이 동의할만한 ai의 정의는 없다. 다만 ai의 교본으로 쓰이는 “Stuart Russell and Peter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에서는 ai의 기준을 4가지로 설정했다. ①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②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③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④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그 밖에도 Frank Chne 의 5가지 기준(논리적 추리, 지식표현, 계획과 탐구, 언어 처리, 인식) 같은 다른 의견들 역시 존재하고 Ai에 관한 정의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ai 개발은 지능적인 행동을 자동화하고 복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2. Ai의 특징

(1) 딥러닝

딥러닝은 선형 맞춤과 비선형 변환의 조합을 통해 수준이 높고, 방대한 자료들에게서 중요한 점을 찾는 것을 시도하는 알고리즘의 집합을 뜻하며 ai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손꼽히고 다른 기게들과 ai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2) 자율성

자율성이란 어떠한 행동을 인간의 통제 없이 시스템의 구조로만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로봇청소기는 자율적인 통제로 집안 전체를 청소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후에 더 큰 시나리오에 적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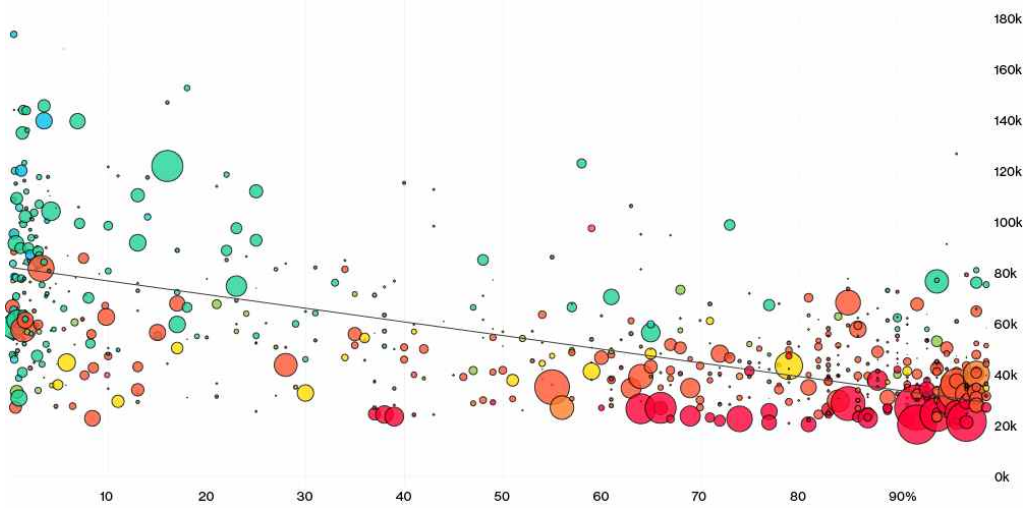
(3) 자동화

자동화란 한번 수행된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

III. Ai 자동화의 부정적 영향

1. 사라지는 직업

Ai가 가져올 변화 중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직종의 변화일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Michael Osborne와 Carl Frey등은 702종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자동화 가능성을 순위로 나열 한 결과 10년 내 47%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Gartner 역시 2025년 이내에 1/3 정도가 ai로 대체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러한 일자리의 자동화 추측 비율은 최종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x축: 자동화 추측 비율, y축: 임금, 적색: 저학력, 청색: 고학력)

이렇듯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 추측되는 직종들의 대다수는 저학력, 저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자동화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저학력, 저소득층이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2. 도태되는 중장년층들

Ai가 가져올 시대의 빠른 변화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겪는 일이겠지만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연령별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118점, 20대 125점, 30대 121점, 40대가 111점인 반면에 50대 이상은 60점 대로 매우 큰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나타났는데 Ai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IV. Ai 사회에 대비하는 한국의 태도

1. 기술력 증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전략을 세웠다. ①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②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③ 데이터·AI 융합 촉진

2. 교육

대한민국은 기술력 증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여 2108년에는 초-중-고 약 1200개의 학교가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 연구 및 선도 학교로 선정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17시간 이상, 중학교에서는 34시간 이상을 규정해두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교체한 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V. Ai 시대에 대비하는 외국의 태도

1. 미국

미국을 Ai 열풍이 불기 이전에도 Ai 관련 교육 정책을 계속해 왔다. 2009년부터 정보과학을 초-중-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제2외국어 교육 대신 코딩 교육으로 대체하였고 약 30여 개 고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확대하여 정규과목에 넣을 것을 공식으로 발표한 전적도 존재한다. 이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국가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 되자 트럼프 정부는 AI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개발(R&D)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등 AI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9년 2월 11일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AI R&D 최우선 투자, 정부 소유 AI 관련 리소스 개방, STEM 교육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분	전략	내용
1	연구개발 투자	• 연방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AI 연구개발 투자를 최우선 추진
2	인프라 개방	• 데이터, 모델, 컴퓨팅 리소스를 AI 연구자에게 개방 • 정부 데이터 법(OPEN Government Data Act)을 시행
3	거버넌스 표준화	•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지침 수립 •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표준 개발
4	전문인력 확충	• 펠로우십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민의 AI 잠재력 향상을 위한 STEM 교육 확대
5	국제협력	• AI R&D를 장려하고 시장 창출이 가능한 국제적 환경 조성 •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액션플랜 개발

미 국방부는 Ai의 활용을 위해 Ai 전략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보고서는 국가 안보에 있어 '사려 깊고,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인 AI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에 대한 5가지 전략적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구분	전략	내용
1	핵심임무 수행을 위한 AI 적용·확산	•상황인식 및 의사결정 능력 향상 •작전 장비의 안전성 제고 •예측 유지관리 및 공급체계 도입 •능률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2	민관 파트너십 및 국제협력·동맹 강화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오픈 이니셔티브 추진 •학계 파트너십 강화 및 AI 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미국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다각화 및 강화 •객관적 관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동맹 강화 •오픈소스 파트너십 참여 확대
3	선도적 인공지능 인력 양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장려 •기존 인력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외부 AI 전문가 영입 •위험을 감수한 도전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고, 실패로부터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화 정착
4	AI 윤리와 안전 선도	•AI 관점에서 기존 제도 검토 및 국방 분야 AI 가이드라인 개발 •'탄력적이고,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기반 의사결정 확대를 위한 '설명가능한 AI' 개발 지속 추진7) •민간인 사상자 및 기타 피해 감소를 위해 AI 도입
5	AI 확산을 위한 활용기반 마련	•데이터, 재사용 가능한 도구, 프레임워크 및 표준, 클라우드 및 엣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통기반 구축

2. 중 국

기본 원칙	핵심 내용
과학기술 중심	글로벌 AI 발전 트렌드 파악 및 유망분야 R&D 촉진을 통해 AI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 및 발전 추구
시스템 배열	기초 연구, R&D, 사업화 등 각 영역 특징을 고려하여 시스템상 필요한 요소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유기적으로 배치
시장 주도	AI 기술과 사업화, 시장 적용을 고려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 가속화
자원 개방	산학협력 등을 위해 각 주체들의 공동 혁신, 공동 분배 추진

중국은 그간 정부의 물량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 산업 구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AI를 비롯한 ICT 혁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특히, 중국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

어 중국 경제구조의 변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AI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발표 했으며 AI와 사회, 군사, 안보, 국방 등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차세대 AI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마트 사회·국가 안전을 확보하고자 4대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AI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 방향으로 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6대 중점과제	내용
개방·협동형 AI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기초연구, 핵심 공통기술, 혁신채널, 우수 인재 등에 대한 혁신 시스템 구축 강화
최첨단·고효율의 스마트 경제육성	•AI 신흥 산업 발전, AI 산업 스마트화 촉진, AI 혁신 기지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커뮤니티 건설	•고효율 스마트 서비스 발전, 사회관리 스마트화 제고, AI를 통한 공공안전보장 능력 강화, 사회의 소통·공유·공조 신뢰 촉진
AI 영역의 군민융합 강화	•AI 기술 촉진을 통한 군민 협력, 군과 민이 가진 AI자원의 공동 활용방안 구축
안전, 고효율의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구축	•인터넷 네트워크, 빅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등 인프라 설비 발전
차세대 AI 주요 항목 구성	•과학기술 과제전망과 차세대 AI 특징에 대한 기초이론, 공통의 중요기술 정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통합계획 강화 •차세대 AI 중대 과학기술 과제를 핵심으로 한 현재와 미래 연구개발 과제 기반의 AI 과제 통합 체계화

3. 핀란드

핀란드는 2016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다 1, 2학년은 간단한 명령어, 3-6학년은 쉬운 시각적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7-9학년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1개 이상 습득하도록 했다.

4. 영국

영국은 2003년부터 코딩을 이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을 만큼 시작이 빨랐다. 이러한 속도의 영향으로 영국은 현재 164만 명이 디지털 관련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시장의 규모는 다른 일 반 고용시장의 규모의 2배 이상이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초, 중, 고 교과 과정에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도입하였다. 즉 부가적인 과목이 아닌 정식 과목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또 5세부터 각 주당 50분 이상 필수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5. 독일

현재 독일 전국에는 1478<MINT친화학교>가 시행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정보처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하고 IT과목이 하나의 통합된 과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현장에서는 태블릿과 같은 여러 기기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생겨났다. 이러한 제도들과 힘께 독일 정부는 코딩과 로봇공학을 엮어 교육을 하는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VI. 개선점

1. 안전성 보장 관련 데이터 수집 지원

한국은 Ai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행위는 뛰어나다, 허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만 뛰어날 뿐 기술에 대한 안전성 보장의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새로운 유망 기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중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 중시 환경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려면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같이 약한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후 대체될 작업들-항공기를 작동시키는 작업 같은-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진다. 물건의 인식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수준 낮은 작업들은 기존의 Ai와 연계될 수 있지만, 수준 높은 작업들-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위해 노란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같은-의 수행은 그렇지 않다. 즉 실험실의 '폐쇄되고 예측된 일만 일어나는 세계'에서 외부의'개방되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로 안전하게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일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일부 대기업들만이 감당이 가능하여 기술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풍부한 기준과 상호작용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원의 예시로는 USA 트레픽 관리 연구 확장 프로젝트가 이에 속한다 이 프로젝트는 하늘에서 시야 밖의 대규모의 무인 항공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2. 규제

일반적으로 Ai 제품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Ai 기능을 추가할 경우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만들어진다. 만약 관련 위험이 규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Ai의 추가 활성화에 대한 적응 여부를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이나 혜택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악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허나 한국은 이러한 규제가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이러한 규제의 부재는 사용자에게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빨리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3. Ai 개발 과정 모니터링

Ai의 영향을 감안할 때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국가들은 Ai의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밀한 예측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9년 AAAI Presidential Panel on Long-Term AI Fuyures, 2015년 Future of AI Conference등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AI의 전망을 예측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스탠퍼드의 One-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에서 "AI가 자동화, 국가 안보, 심리, 윤리, 법, 사생활, 민주주의 및 다른 문제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한 주기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시도한 전례가 없다. 한국 역시 미국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VII. 결론

Ai는 발전에 따라 교육, 경제, 방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영향은 생산성 증가와 자동화 등 여러 방면으로 인간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나 실업이나 빈부격차의 심화 등 여러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잠재력에 큰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의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면 미래에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의 기준을 세워 발전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시 안전성, 공정성을 위해 여러 데이터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1) 미국 백악관(2016) "Ai의 미래를 위한 보고서"(번역본)
2) 김규리(2019) "미국 인공지능 관련 최신 정책 동향" 2, 3, 4, 5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중국의 AI 정책 동향" 2, 24, 25

국내 반려동물 제도의 문제점
독일의 반려동물 제도 도입 효과

Problems of Domestic Pet System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Pet Animals in Germany
ein Problem mit dem heimischen Tiersystem
die Einführung des deutschen Systems zur Bekämpfung von Tierquälerei

경희 고등학교 1학년 1반 7번 이름 박정빈
name(Gustav)
piderna0821@gmail.com

초 록

본 보고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며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한국의 문제점과 이미 반려동물 제도와 시장이 활성화 되있는 독일의 제도를 도입했을 시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펫코노미 시장은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비싼 진료비,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복지, 실제 법에서 소유물로 명시된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반려동물 시장이 활성화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적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예상하고 있다.

Abstract

Dieser Bericht beschreibt die Probleme Südkoreas bei der wachsenden Zahl von Ein-Mann-Haus-Familien und die Auswirkungen, die sich ergeben, wenn wir das deutsche Anti-Raucher-System und den Markt aktiviert haben. Der koreanische Markt für Fütterungstechnik entwickelt sich allmählich, hat jedoch eine Reihe von Problemen, wie teure Pflegekosten, das tatsächliche Wohlergehen der Tiere und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n Tieren, die im eigentlichen Gesetz als Eigentum aufgeführt sind. Diese Probleme sollen im Falle Deutschlands gelöst werden, wo der Markt für Tierarzneimittel bereits aktiv ist. Schließlich wird erwartet, welche Vorteile sich aus diesen institutionellen Veränderungen ergeb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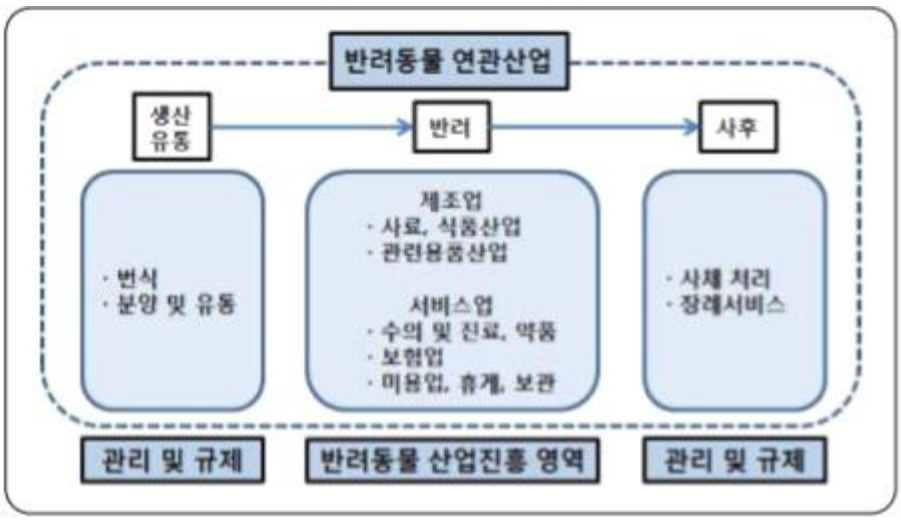
I. 서론

1970년 경제 성장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문화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점점 핵가족, 그리고 1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 입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반려동물 사육인구'는 1천만 명에 이르며, 관련 산업과 문화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성숙한 한국의 제도와 부족한 관련 서비스는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인 "펫코노미"의 발전을 막고 있다. 1인당 국민 소득 수준(GDP)이 높아짐에 따라 발전하는 선진국형 산업은 자본과 실질적인 생산을 중시하는 이전의 산업들과는 다르게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특화된 서비스업이나 첨단 기술을 응용한 산업을 말한다. 특히 독일이나 미국 등 주로 선진국에서 자국민들과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20세기 나치 정권에서부터 세계최초의 동물 복지법이 제정하여 동물의 안전과 건강에 힘썼으며 현재는 세계 최고의 동물 복지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국형 산업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세계 최고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동물 복지 제도를 가진 독일의 동물 복지의 발전 과정을 조사한 후 보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적용 방법을 탐구한 후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예상하려고 한다.

II. 펫코노미

1. "펫코노미"의 정의

펫코노미는 애완동물(pet)과 경제(economy)를 조합한 신조어로,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이다.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나아가 가족으로 확대되는 반려동물의 의미에 기반하여 그들에게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제안되었다. 더 이상 인간이 일방적으로 키우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현실을 담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기획재정부(2016). "반려동물 산업 TF자료"

2. 등장 배경

펫코노미의 성장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대신해 반려동물과 지내는 사람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 여유가 생긴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등의 사회 현상으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간소화되고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5년 21.8%로, 3년 전인 2012년(17.9%)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반려동물 사육인구는 457만 가구, 약 1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늘어나 반려동물 사육인구로 인해서 관련 상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12년 9천억 원에서 불과 3년만인

2015년 두 배인 1조8천억 원으로 뛰었다. 2020년에는 현재의 세 배가 넘는 무려 5조8천억 원(농협경제연구소 추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계에서 반려동물 보유가구를 타겟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다. 기존의 단순 상품이나 의료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재에는 반려동물에 생애주기에 맞춰 상품과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고급화되는 펫코노미의 형태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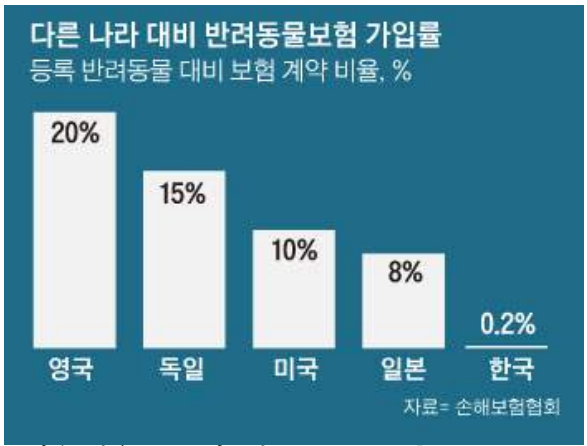
3. 숨겨진 단점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 듯 보이지만, 사실 선택받은 반려동물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다. 반려동물의 삶은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반려동물이 수제 간식과 스파를 즐기고 전용택시로 호텔로 가서 잠을 자는 세상이지만 병원비가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도 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동물병원비 부담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다.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자유롭게 책정되는 구조다.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가 폐지되면서 진료항목별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도 사라졌다. 같은 항목 진료에도 병원에 따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진료비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와 병원 간 과잉 진료와 과다 진료비 분쟁이 잦다. 이로인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정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진료비가 비싸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했다.

[그림 2-2019년 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역시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6.6%가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답했다. 시중에 반려동물 보험이 출시돼 있긴 하지만 진료항목별 질병명과 코드가 제각각인 데다 진료체계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보험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의 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시행되지만 동물 보험에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이 없어 보험회사도 가입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림 3- 반려동물 1000만마리... 펫 보험은 겨우 2600건, 왜?; josean biz]

III. 동물보호법

1. 동물 보호법의 필요성

동물 보호법은 왜 중요할까요? 21세기인 지금 인간은 물론 동물의 권리까지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이 동물보호법을 재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독일은 나치 시절부터 동물의 실험과 학대를 방지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동물보호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현재는 동물 복지 강국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에서 말한 "펫코노미"와 같은 선진국형 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2019년 8월 27일 정의당에 의해서 최종 개정되었다. 동물보호법 1장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이 아닌 국가지정 동물에 대해서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위주로 다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동물 보호법이 재정되어있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반려동물과 소유자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가족과 같은 소속감과 애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비와 소유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등의 법리가 고려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결에서 수의사의 의료에 대하여 반려견 소유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향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에서는 동물 자체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 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근거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은 이행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반려동물에 경우ㅇ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이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가면서, 인간과 반려동물간의 각별한 애정관계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지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토대로 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야기한 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반려동 물과 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통한 손해의 성질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와 손해의 성질에 대한 명확한 법규는 미비하고, 판례 또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가 생긴 경 우에, 그 반려동물의 시장가치 외에 치료비 등의 비용을 불법행위 가해자 또는 채무불 이행을 행한 계약 상대방(이는 수의사와의 치료 계약 또는 애완견을 미용, 교배 등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게 어떠한 법리로 어느 범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많은 판례가 있는 독일의 예로 해결하려고 한다.

IV. CITES 전종 시설등록법

1. CITES 전종 시설등록법이란

CITES 전종 시설등록법은 "모든 동물 시설은 환경청이 지정한 시설 규범에서만 CITES 동물을 키워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법의 의도와 목적은 동물이 학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 보인다. 여기서CITES는 멸종위기종을 지키기위한 국제 거래로 생물들의 밀수를 막고 원래 생태계를 지키자는 조약입이다. 하지만 CITES 조약은 동물들의 밀수를 막는것이지 생물 사육의 규제는 아닙니다. CITES 종은 한국에서 많이 키우고있으며 흔히들 이색동물, 특이동물이라는 용어로 불리우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멸종위기인 CITES 2급과 3급은 국제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유통과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환경이 변해 멸종위기가 된 생물인 '크레스티드 게코, 볼파이톤'은 계속된 사육과 번식으로 인해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2. CITES 전종 시설등록법의 문제

하지만, CITES 전종 시설등록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 법은 국회위원들이 실제 CITES 종들의 사육사난 야생동물 연국원들에게 자문을 한 것이 아닌 비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시설등록 규격이 지나치게 크다. 특히 대부분의 CITES 종에 해당하는 파충류와 양서류에 경우에는 온, 습도에 예민한데 넓은 사육장에서는 온, 습도 조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보다 너무 큰 사육장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앞에서 펫코노미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춰 세분화된 상품과 항목을 만드는데, 이런 사육시설에 대한 조항에는 그 생물의 해당 시기에 적절한 사육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들어 대형동물의 경우에는 매우작은 베이비 시절부터 성체가 될 때 까지 베이비->아성체->준성체->성체의 순서로 사육장을 바꾸어주는 것이 좋은데 이런 조건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2010년부터 이런 이색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색생물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색생물들은 주로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 수입되는데 관련 시장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수요의 증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CITES 전종 시설등록법에는 개인이 사육 불가한 정도의 크기의 사육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 4- 식품을 제외한 인도네시아의 파충류 매출 전망]

우파루파와 같이 CITES 전종 시설등록법에는 등록되지 않은 생물도 있다. 그래서 실제 환경청 직원이 말한 해결방법은 "우파루파는 물에 사니까 '작은 연못'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연못은 수조보다 비위생적이며 한국의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해 생물이 쉽게 죽게 된다.

마지막으로 처리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청에서는 미등록된 동물들을 신고를 통해 수거해가게 되는데 이러한 동물들을 키울 장소도 지원금도 준비되지 않아 동물들을 살처분한다고 밝혀져 있다. 동물을 위한 법인데 동물들을 죽인다니, 또한 선진국형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서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은 바뀌어야 한다.

V. 독일 제도를 통한 해결방법

1. 왜 독일인가

현재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빠진 뒤 실질적인 유럽의 주인이 된 독일은 20세기 독일의 통일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즉, 선진국형 산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독일은 그들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IT 산업, 스포츠 산업, 반려동물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3가지 예는 독일이 유럽연합, 아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 산업과 그에대한 제도는 독일이 관련 분야에 대한 정석적인 루트를 개척해가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대표적인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색동물에 대한 제도와 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나라이다. 또한 독일의 반려동물 식료품 산업은 전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외에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이 한창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나라에 까지도 수출되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세계최초로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동물보호법을 재정한 나라이다. 오랫동안 관련산업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만의 체계적인 제도와 함께 관련 산업을 함께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서서히 발전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맞추어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반려동물 시장을 제도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독일고 같이 연관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2. 독일에서의 펫코노미 시장과 그 해결방안

한국 펫코노미의 문제점은 관련 상품에 대한 문제는 바로 해당 시장의 발달 조건과 너무 비싼 의료비, 체계적이지 못한 의료보험제도가 있었다. 이는 독일의 사례와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독일은 반려동물 3000만마리의 “펫코노미”에서도 독일 애완동물 관련 전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1억5000만 유로로 전년대비 0.9%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애완견으로만 치중되어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 애완동물용품 산업협회(IVH)에 따르면, 독일 가정의 44%가 애완동물을 키우며, 그 중 고양이 22%, 강아지 17%, 새 4%, 물고기 및 파충류 1%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반려동물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상품들을 생산해서 펫코노미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독일의 IT와 LED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려도 쉽게 찾기 위한 GPS가 부착되어있는 목줄과 센서와 필터로 인한 고양이를 위한 자동 배변 처리기 및 배변 냄새 감소 기능 등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었다. 우리나라도 IT 강국으로서 IoT 기술을 활용한 “토브넷”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독일의 펫코노미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0년부터 애완동물이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면서 주인들의 필요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용품들이 개발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5- 2006년~2016년 독일의 애완동물 시장규모 추이-news kotra(해외시장뉴스)]

이의 원인은 한국과 같이 인구학적 변화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과 같은 상황으로 현재 한국의 펫코노미 시장을 발달시키기에 좋은 예시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먼저 독일은 엄격한 규제로 인한 선도적인 애견문화 에티켓이 발달해 다른 선진국인 미국(주마다 다름), 일본, 중국과 다르게 백화점, 음식점, 카페 등 모든 공간에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애완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으로 애완동물 용품 시장 규모의 전망이 밝고, 반려인들은 개를 키우려면 1년에 약 2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애견의 산책도 의무적이며 산책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을 시에 동물학대에 해당돼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동물들이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돼 있는 등 동물보호법이 준수하게 적용되고있는 나라이다.

또한 동물에 해롭거나 유럽 경제존에 제한되는 재료로 제조된 사료는 제한되며 사료 품질을 미리 담당 관청(당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경제부에서 정한 세관의 관청들이 수출입 허가를 관리하는 등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에다가 주요 수입국인 유럽에는 관세가 없고 한국에도 관세율: 0% (2011.7.1. 한-EU FTA 체결 이후 관세율 없음)이기에 한국도 주변국과의 FTA체결로 관세율을 없앤 후 수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산업의 발전을 돕는다면 독일의 애견용품 전문점이 점점 더 큰 규모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게 된 것처럼 한국도 독일처럼 지속적인 반려동물 관련 상품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상품을 만들도록 발전해 나간다면 한국도 펫코노미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반려동물 치료에 관련한 내용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는 한국에서 발전한 몇 안되는 펫코노미의 결과물로 건국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수의과 대학교에서 지원과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 직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든 '대한 수의사협회'와 같은 단체들의 형성과 이들로 인해서 반려동물 산업과 그들에 대한 복지가 발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병원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 보험이 만들어졌지만 정확한 제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은 동물보험제도를 갖추어 사람의 보험과 같이 보험회사의 필수 조건을 국가에서 정해준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와 같이 실제 사람의 보험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동물 병원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보험버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반려 동물도 국민으로 생각해 이에대한 세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러한 세금으로 국민 건강보험과 같은 반려동물의 국가 보험서비스가 진행되는것과 같이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한다.

3. 독일에서의 동물보호법과 그 해결방안

독일은 1933년 11월 24일 나치당에서 세계최초의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제국 동물보호법(Reichstierschutzgesetz)(RGBl I S 987)"을 재정하고 시행했다. 최초의 동물 복지법은 당시 많이 시행되던 동물의 신체 훼손에 중심을 두었다. 동물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거나 당시 유행이었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물(흔히들 상업동물이라 부르는 소, 돼지, 말과 같은 동물을 말한다.)의 사냥과 살아있는 동물로 행하는 생체실험을 금지했다. 이는 동물과 관련된 법에서 사람에게 시행하는 형벌이 있었고 지난 1871년 만들어진 "제국형법전"에서의 지극히 인간주의적인 법령과는 다르게 동물의 심정과 심리를 살피며 그들을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로서 대우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독일의 현행 독일 동물보호법의 제정목적은 제1조에 "이 법률의 목적은 반려생물체로서의 동물을 위해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이렇게 역사성이 깊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첫 법이 재정된 1933년부터 1972년 7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1972년 2울 24일까지의 여러번의 개정이 있었다.2002년 5월의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 동물 보 호가 국가의 목적규정으로 삽입됨으로써 동물보호법에 대한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의 동물보호법과 그에 관련된 제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발전해온 독일의 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동물보호법을 개선할 때 독일의 동물보호법이라는 약 100여년간 검증된 자료를 참고해서 보다 정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의 동뭃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약한 형벌과 자세한 대책이 없는 동물 유기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동물학대를 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독일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라고 나와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에서 법적 기준이 동물의 외상인것에 반해 독일의 동물보호법에서는 ' '잔혹(Rohheit)'하게 '극심한(erheblich)' '고통(Schmerzen)'이나 '괴로움(Leiden)'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에서 인간성을 잃은 냉소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동물의 살해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살인 미수의 경우 동물이 크게 다쳤을 경우 제 18조에 뜨른 과테료 부과 형태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여기서 18조는 앞에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을시 시행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말하며 최대 5000유로 까지의 과테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지금 한국의 시민의식은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 의외로 동물 학대는 늘어나고 있다. 원래 시민의식이 성장하면 다른 비윤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다.

이를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독일은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는 이에 합당하는 학교에가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되어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게해서 이런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동물학대와 동물 유기등의 문제를 교육과 강화한 처벌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CITES 전종 시설 등록법의 해결방법

독일의 경우에는 CITES 전종 시설 등록법이 없습니다. 왜냐한면 CITES는 야생동물의 밀수나 남획을 막기위한 국게 조약이지 동물의 사육에는 아무련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련 산업이 발달한 것과 같이 이색동물에 대한 산업도 발달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먹이 곤충 산업이다. 물론 현재 한국도 등에 애벌레를 이용한 먹이 곤충 산업이 발달 중이지만, 회사 대표님께서는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꽤 오랜시간이 걸렸고 이러한 산업이 발달하는데 가장 큰 요인을 준 것이 바로 햄스터, 도마뱀, 개구리와 같이 이색동물 시장의 증가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독일과 다르게 이에 대한 규제로 관련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게 위와같은 법으로 막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다르다. 독일에서는 이색동물 관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태계와 윤리적인 법만을 이용하여 관련산업을 발달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예로 독일의 최대의 렙타일 쇼인 '함쇼'와 '아쿠아주'가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유럽 최대의 규모로 열리며 이색동물들 중 하나인 파충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육방법이나 이색동물의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독일의 이색동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열리는 '렙타일쇼'에 대한 지원과 많은 이색동물 샵이 문을 닫게 된 것과 많은 이색동물들의 분양이 줄어든 이유인 CITES 전종 시설등록법을 없애고 이 법에 해당하는 동물들ㅇ 동물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포획과 남획을 막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CITES 전종 시설 등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VI. 결론

지금 한국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이 꾸준히 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각 산업에 대한 정확하고도 유용한 법을 만들어 이 산업의 발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들의 변화에 있다. 한국의 사회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현재는 34%에 이르는 1인 가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고령화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사회구조로 외로움을 느끼는 1인 가족의 인구 수가 늘어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과 그들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 현재는 1000만명 즉, 국민의 1/5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관련산업, 줄여서 '펫코노미'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VII. 참고 문헌

- 독일 연방 동물보호법(Bundestierschutzgesetz)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주 현 경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
- 동물과 법-하승수(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박지혜 (서비스산업연구실 연구원)
-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반려동물효과: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의 메타분석 연구-김세영, 박형인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반려동물 마케팅-강명준 남보영 서민정(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실전 마케팅학회)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지인배,김헌중, 김원태, 서강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이수진 / 상생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동그라미/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원

핵과 컴퓨터의 비교 : 용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nuclear and computers
Vergleich von Atom- und Computern

경희 고등학교 1학년 4반 30번 최성빈 Choi Sung Bin bin030702@naver.com

초 록

본 보고서에서는 같은 시기에 발명된 컴퓨터와 핵이 현재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이유를 발전과정과 함께 파악해보고자 한다.

컴퓨터는 만들어질 당시에는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 혹은 기업들이 사용하다가 개인용 컴퓨터(PC)가 개발된 후 현재에 이르게 됐다.

핵은 전쟁을 끝낼 무기로서 발명되었으며 이후 냉전시대에 이르러 강력한 핵들이 만들어지다가 냉전이 끝난 이후로는 핵발전소의 형태로 핵융합/분열 기술은 이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핵과 컴퓨터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이러한 용도의 차이점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본질적 차이점은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Abstract

In diesem Bericht wird versucht, zusammen mit dem Entwicklungsprozess zu identifizieren, warum Computer und Atomkraft, die zur gleichen Zeit erfunden wurden, jetzt für unterschiedliche Zwecke verwendet werden. Zum Zeitpunkt der Erstellung des Computers wurde er erstellt, um den deutschen Militärcode zu entschlüsseln, und er wurde vom Personal Computer (PC) entwickelt, während er von dem Land oder der Firma verwendet wurde. Kernkraft wurde als Waffe zur Beendigung des Krieges erfunden, und nach dem Kalten Krieg wurden mächtige Kerne erzeugt, und nach dem Ende des Kalten Krieges wurde die Kernfusions- und Spaltungstechnologie in Form von Kernkraftwerken fortgesetzt. In dem Bericht wird analysiert, dass die wesentlichen Unterschiede zwischen Nukleartechnik und Computer den Unterschied ausmachen. Wir erwarten jedoch, dass dieser wesentliche Unterschied eines Tages überwunden wird.

I. 서론

발명품에는 각각의 사용처가 존재한다. 어떤 발명품은 좋은 곳에 쓰이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어떤 발명품은 좋지 못한 곳에 쓰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발명한 의도와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발명품도 존재한다.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예시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이다. 나는 이러한 용도적인 측면에서 같은 시대에 발명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발명품인 컴퓨터와 핵을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발명품인 컴퓨터와 핵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에 발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가 둘로 나뉘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만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들을 많이 발명해내던 시대이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서 전쟁을 위해 발명된 발명품들 중에서 현재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들도 있지만 원래 만들어진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발명품도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발명품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었기에 이 발명품들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발명된 발명품들 중에서 컴퓨터와 핵인 이유가 있다. 컴퓨터는 암호의 해독을 위해 발명된 기계장치로 크게 보자면 이 또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발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현재 일상에서 매우 많이 쓰이고 있으며 제 4차 산업혁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장치이다. 현대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효율이 떨어지거나 아예 업무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컴퓨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닌 현대시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핵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상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물론 이는 러시아와 미국이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핵이 강력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냉전시대에서는 핵이 중심이었던 만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발명품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핵과 컴퓨터를 선택했다.

II. 핵과 컴퓨터의 역사

1. 핵의 역사

핵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는 원자폭탄의 형태였다. 핵의 원리는 우라늄을 분해할 때 에너지가 일부 빠져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이 빠져나온 에너지가 엄청난 위력의 폭발력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1938년, 우라늄에 의한 핵분열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독일에서 Uranprojekt(우란프로옉트)라는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독일의 과학자인 하이젠베르크의 주도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나 설계도의 오류, 많은 과학자들의 태업, 잘못된 실험, 연구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벨기에에서 얻었던 우라늄 광석이 처음 얻었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미국한테 들어갈 정도로 기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미국이 핵실험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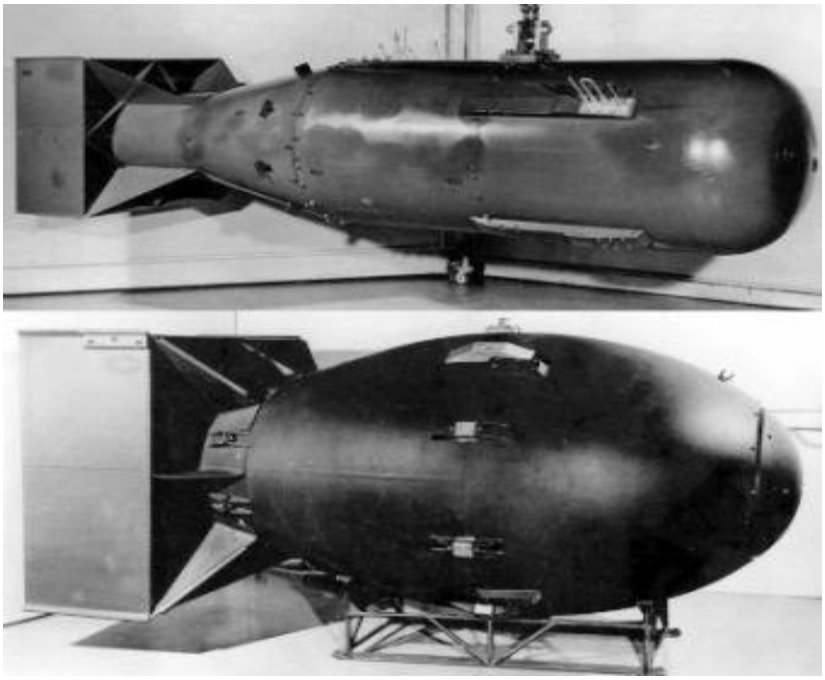
미국은 아인슈타인이 독일의 핵무기 실험에 두려움을 느끼고 보낸 편지에 의해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Manhattan Project(맨해튼 프로젝트)이다. 이후 1945년 7월 세계 최초의 핵실험인 Operation Trinity(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하고 일본이 종전을 묵살해버리고 1억 총옥쇄 작전을 실행하면서까지 저항하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리틀 보이'와 '팻 맨'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항복하고 길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난다.

"이제 우린 다 개새끼들이야[1]"-케네스 베인브리지, 트리니티 실험 이후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었다면, 1905년에 쓴 공식[2]을 찢었을 것이다[3]"-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 Now we are all sons of bitches
2) 상대성 이론
3) if I had foreseen Hiroshima and Nagasaki, I would have torn up my formula in 1905

"나는 이제 죽음이요, 파괴의 신이 되었도다.[4]"-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트리니티 실험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리틀보이'(위)와 '팻 맨'(아래)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련과 미국 간의 견제는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무기의 개발도 지속되었다. 그렇게 핵의 개발이 꾸준히 지속된 결과 1954년 최초의 수소폭탄(열핵폭탄)핵실험이 미국에서 실행됐다. 이 실험에 자극을 받은 소련도 수소폭탄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차르 봄바'가 탄생하였다. 이후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의 강대국들이 연이어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핵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었다. 새로운 종류의 핵 중 하나인 '더티 밤'은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방사능 낙진의 확산을 우선시하는 핵폭탄이다. 중성자탄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잇는 제3세대 핵폭탄이라고 불리며 이전의 핵폭탄들과는 달리 건물이나 대피소 같은 무생물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뒤 혹은 안에 대피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 즉, 방어막을 관통하여 피해를 주는 폭탄인 것이다.

1989년, 길었던 냉전이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리고 핵의 쓸모가 사라지게 되자 강대국들은 핵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196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5])이 1995년에 무기한 연장되면서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한정되었고 현재 핵융합/핵분열 기술은 핵발전 같은 분야에서만 쓰이고 있다.

2.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는 독일의 암호인 '에니그마'를 풀기 위하여 발명된 것이다. 1943년 영국의 정보기관에서 독일의 암호인 '에니그마'를 풀기 위하여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한다. 이 결과로 앨런 튜링이 팀과 함께 최초의 컴퓨터인 '콜로서스'를 만들게 된다. 콜로서스는 진공관을 사용하여 초당 약25000자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에 30톤짜리 컴퓨터인 에니악이 만들어지면서 에니악은 컴퓨터의 시초가 되었다.

에니악 이후, 미사일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자 컴퓨터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크기도 큰 진공관을 대신할 작고 가볍고 내구성도 좋은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현대식 컴퓨터처럼 작아지고 성능은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집적회로의 개발 등으로 성능은 더욱 좋아지고 크기가 더욱 작아지면서 1977년 애플에서 초창기 PC(personal computer)인 애플II가 만들어졌고 소프트웨어와 CPU(Central Processing Unit) 등이 개발되면서 현대의 컴퓨터가 되었다.

4)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힌두교 경전 '바가다드 기타'의 한 구절 원문:अमी हि त्वां सुरसंघा वशिन्तिकेचद्भीताः प्राञ्जलयो गृणन्तिं। स्वस्तीत्युक्त्वा महर्षसिद्धसंघाः स्तुवन्तिं त्वां स्तुतभिः पुष्कलाभिः

5)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일체형 개인용 컴퓨터 애플II]

현재에는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지면서 무선 인터넷 같은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슈퍼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컴퓨터이며, 주로 핵실험이나 워게임 같은 군사/우주 시뮬레이션, 대규모 연산 같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쓰이며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역시 슈퍼컴퓨터중 하나이다.

III. 핵과 컴퓨터의 차이점

1. 과거와 현재의 용도

과거에 핵기술은 순수한 전쟁용이었다. 핵융합/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로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컴퓨터는 약간 달랐다. 암호해독, 탄도학 계산 등의 군사용으로도 쓰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이 지속되면서 핵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무기로써 쓰였다. 이러했던 핵기술을 발전소에 쓴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이다. 냉전 이후 핵보유국들의 핵 감축으로 핵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핵분열/핵융합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들이 등장하면서 군사 분야 이외에도 전문 분야에서 핵추진, 핵발전 등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컴퓨터는 냉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술력 경쟁이 벌어지고, 이 기술력 경쟁이 우주로 향하자 우주항공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치가 되었다. 복잡하고 많은 계산은 컴퓨터가 필수였었고 수요가 늘어나자 자연스레 공급도 늘어나면서 컴퓨터 관련 직종이 인기를 얻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의 발전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기 위한 노트북, 성능을 최대로 높인 슈퍼컴퓨터 등이 등장하면서 컴퓨터는 용도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에 많이 쓰이게 되었다.

2. 차이가 생긴 이유

컴퓨터의 상용화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두 회사가 없었더라도 개인용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는 존재할 것이다. 지금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말이다. 애플이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할 당시의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강력했던 회사가 바로 IBM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개인용이 아닌 국가나 기업에서 쓰는 컴퓨터가 주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IBM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때가 애플이 애플II를 출시하고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활성화된 때인 것으로 봐서 애플이 아니었다면 개인용 컴퓨터는 지금보다는 느리게 출시되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쓰기 쉽고 간편하게 통일시켜버렸

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었다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러 회사들의 경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호환이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핵은 아직까지 핵을 발전시켜줄 무언가가 나오지 않아서 발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직 핵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핵분열이나 핵융합기술의 원리인 상대성이론 자체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컴퓨터도 내부의 장치를 잘못 만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나 이는 이러한 장치들을 보호할 보호장비만 잘 갖추면 해결된다. 하지만 핵은 아무리 보호 장비를 갖추어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또한 컴퓨터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는 간단한 감전사고로 끝나겠지만 원전에서 조금만 잘못되어 사고만 나도 큰 피해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원전사고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원전이 폭파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이 위험성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핵은 넓은 분야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좌)사고 직후의 현장, (우)체르노빌 주변 집단농장에 수용된 어린이들

또 다른 이유는 핵분열/핵융합의 재료의 희소성이다. 핵에 쓰이는 원자는 우라늄/플루토늄/토륨의 세 개다. 먼저 우라늄은 그렇게까지 희소하지 않다. 다만 핵기술에 쓰이는 우라늄은 우라늄235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라늄 자체는 지각에 주석만큼이나 풍부하지만 우라늄 235는 반감기가 짧아서 전체 우라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희소하고 희소한 만큼 비싸다. 플루토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로 주로 핵무기로서 이용된다. 그리고 매우 비싸다. 토륨은 반감기가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많다. 그렇기에 지각에 굉장히 풍부하지만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마저도 처음엔 우라늄이 필요하다.

IV. 결론

용도의 차이는 두 발명품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 처음 만들었을 당시부터 용도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지만 발전의 과정 또한 달랐다. 이는 위에 상술한 세 개의 이유들 중에서 2,3번째 이유, 즉 핵과 컴퓨터의 본질적인 차이가 만들어낸 것일 확률이 크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핵기술은 컴퓨터보다도 빠르고, 발전된 형태로 상용화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유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같은 시대에 발명된 2개의 발명품은 현재에 와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래에는 둘 다 사용되거나 아니면 둘 다 사용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우라늄238도 우라늄이다. 만약 이 우라늄238을 핵발전에 쓸 수 있다면 지구상에 전력난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우라늄238이 아닌 토륨을 핵발전소에 써서 토륨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것 또한 과학 분야의 큰 업적이 될 것이다. 만약 방사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거나 개발된다면 방사능 연료 전지 같은 제품도 출시되어 우리 주변에 쓰일 것이다. 당연히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말이다. 이처럼 핵도 우리 주변에 상용화 될 수 있다.

핵은 언젠가 방사능의 위험성을 뛰어넘어서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

전하고 있고 인류는 곧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우주에 대한 탐사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특이한 원소나 재질들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떠한 위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이다. 위기는 과학의 발전을 가속화시켜주는 매개체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그 이후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할 것이다. 과학의 발전엔 적당한 위기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위기는 해가된다. 다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미래에는 컴퓨터가 용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아예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현대적 고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중심으로

Die Ethik von Schopenhauer moderne Betrachtung

경희 고등학교 2학년 2반 5번 김선중 Kim SunJoong Su09073@naver.com

초 록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많은 학문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직접적으로 행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독일의 철학자이다. 쇼팬하우어의 철학의 정수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꺼내며 생존의지가 만드는 표상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그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 또한 이 생존의지에서 찾는데, 생존의지가 추구하는 욕구와 갈망은 끝이 없고 이로인해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금욕주의적 의지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생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에 그의 철학을 대입한다면 보다 평로운 세계적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Auszug

DieSchopenhauer-Philosophie beeinflusste viele Disziplinen und Kulturen. Schopenhauer ist auch ein deutscher Philosoph, der sich bemüht hat, das Problem des Glücks direkt zu lösen. Analyse der Essenz der Philosophie des Schoffans, die "Welt der Medizin und des Gesichts".

Zuerst habe ich mich mit der metaphysischen Weltanschauung befasst, in der er sagt: "Die Welt ist mein Gesicht", und er widerlegt, dass wir in einer Vision leben, die von Überlebenden gemacht wird. Er sagt auch, dass wir die Ursache für unser Unglück in diesem Überlebensgebiet finden, und dass der Wunsch nach Überleben kein Ende hat und dass die Menschen unglücklich werden.

Schopenhauer argumentiert, dass zur Lösung dieser Probleme eine nüchternen Willensstörungen notwendig seien, die die Gier loswerden. Es wird gezeigt, dass ein friedlicheres globales Zusammenleben möglich ist, wenn er seine Philosophie in internationale Angelegenheiten wie auch in unser Leben einbringt.

I. 서론

현대철학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철학자로서 형이상학과 윤리학에서 큰 역할을 맡았고 또한 그는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있다. 이 책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형이상학적 연구와 윤리학적 연구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윤리학적 요소를 분석할 것이며 현대의 사람들 또는 사회가 그의 윤리학으로서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석 및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말하기에 앞서서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단치히에서 상인이었던 아버지 하힌리히 쇼펜하우어와 요한나 쇼펜하우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의 불화, 아버지의 이른 죽음, 우울증 등으로 많이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는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 그리고 심지어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도 영감을 준 인물로 유명하다. 니체는 자신이 철학자가된 계기가 쇼펜하우어 때문이라고 말했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억압'에 대해서 자신보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잘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근대 심리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선사했으며 심리학이 정식 학문으로서 자리잡기 전에 심리학적인 주장을 철학서적에서 펼쳤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한 라부아지에의 작업이 화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분석되기 어려웠던 "자아 혹은 영혼"이라 불리는 것을 이질적인 두 가지 성분[의지와 지성]으로 분해하는 작업은 철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헤겔의 거만한 문체보다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탐구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1)]

II.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분석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한다. 그의 저서의 제목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부터 알 수 있듯이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악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 앞에 서있으며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된 객관적 대상들로 가득한 세계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표상들의 거대한 조합으로 본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표상들의 조합으로서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주목했다. 그 세계는 우리가 그 것을 일상적 경험에서 관찰하는 방식 그대로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과학적으로 이해가능한 것이며, 측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Die Welt ist meine Vorstellung)”라는 주장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세계의 존재가 자신의 표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한다. 세계는 어찌 보면 나는 넘어선 무언가일 지도 모르지만 쇼펜하우어는 경험과 관련해서 세계를 ‘나의’ 세계로 주장한다. 쇼펜하우어는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들은 그의 관념 혹은 “표상들”이며, 이러한 정신적인 이미지들을 그것들이 등장하는 마음에 의존하는 바, 그것들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그의 현존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한 사람이 파악하는 세계를, 그 자신의 정신적인 이미지들의 광대한 집합으로 변형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쇼펜하우어의 “세계가 나의 표상이다”라는 진술을 지지한다.

쉽게 해석해서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이를 우리 자신의 표상으로서 본 것이다. 세계는 즉 우리의 지각과 기억의 풍요이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세계는 나의 의지이다”라는 명제를 덧붙임으로서 세계가 단지 불활성의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2)]

욕망을 통해서 자신을 다양한 종족들과 개체들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우주적인 의지가 존재한다

1) 위키백과 ‘쇼펜하우어’ 항목 참조
2) 로버트 L. 윅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입문』, 서광사(2014), 58-63

고 쇼펜하우어는 보았다. 이러한 우주적 의지는 우리가 직접 경험을 못하고 사변적인 추론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적인 의지야말로 진정한 실체이며 개체들의 욕망과 신체나 지성 등은 모두 이러한 진정한 실체로서의 우주적 의지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우주적 의지를 물자체(쇼펜하우어는 칸트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칸트 철학의 큰 공적을 물자체와 현상계의 구별로 보고 있다.)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가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현상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물자체로서의 우주적인 의지가 영원불변하다면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소멸한다. 현상계의 어떠한 개체들도 유한한 시간을 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개체들에 비하면 종족은 훨씬 오래 존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종족은 물자체에 보다 가깝고 물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개체는 종족에 비해서 물자체에 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물자체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3)]

III. 쇼펜하우어의 윤리학과 현대적 고찰

1. 기존 윤리학의 시대적 흐름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전 그가 비판했던 기존의 윤리학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긍정적이고 밝은 윤리학이 아닌 어둡고 비판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윤리학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합리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했다. 즉 그들은 도덕이 더 이상 종교적인 교리에만 근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철학은 감성적인 것 보다는 이성적인 것을 추구했으며, 증명될 필요도 없는 도덕의 자명한 원리들이 존재하고 이는 이성에 의해 파악된다고 생각했다.

이때 칸트 윤리학은 경험주의적 도덕관이 타율적인 도덕인 행복주의에 근거하고 보편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칸트는 자유와 당위를 동시에 함축하는 도덕철학을 모색했다. 그에게 당위란 자연적인 근거나 감각적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명령에서 오는 것이었다. [4)]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앞에서 언급한 의지와 표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인간에게는 욕구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존의지'가 있으며 이러한 생존의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면서 불행하게 만든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로 인해 늘 고통 받게 된다고 쇼펜하우어는 역설한다. 그는 우리가 시-공간적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내재된 욕구들을 발현하는 하나의 가지적인 성격이며, 우리 자신의 성품에 진실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다음, 쇼펜하우어는 그럼에도 자신의 성품에 맞추어 사는 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란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2. 쇼펜하우어의 윤리적 인생관

물자체로서의 의지의 욕망은 무한하며 이것은 현상계에서 각 개체들에게 무한한 욕망으로 나타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욕망이 끝이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게서 뿐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을 중심적으로 보자면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함에서 비롯되며 욕만이 한이 없다는 것은 결핍감에 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들은 한없는 결핍함에 시달려 그 결핍함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업시 노력할 수 밖에 없어 삶이란 한없는 결핍감과 무한한 노고의 연속이라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세상에 대하여 각 개체들이 한없는 결핍감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쫓기면서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는 모습이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는 조재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계라고 보았고 모든 존재자들이 충족되지 아노은 욕망과 서로간의 투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인간은 특유한 인식능력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3) 위키백과 '쇼펜하우어' 항목 참조
4) 박찬국(2010),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욕망론에 대한 고찰", 85-89

받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승은 추상적인 인식능력이 없기에 현실적인 감각이나 눈앞의 쾌락이나 고통에 따라서 행동하는 반면 인간은 추상적인 인식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행동한다고 한다. 인간들은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결핍을 기쁘게 감수한다고 한다. 즉 인간에게는 대부분의 고통이나 기쁨의 원인이 실재하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인 사유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추상적인 인식능력으로 인해서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이것이 인간의 고통을 더욱 증대시킨다. 다른 사람의 만족은 나의 결핍의식을 더하게 하고 타인의 결핍과 곤궁은 나의 만족의식을 더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의 소재로 삼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해 이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켜왔지만 욕망이 한이 없어 결핍감과 불만은 끝이 없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욕망이 채워져도 인간은 곧 권태를 느낀다. 따라서 물질이 충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물질이 충족해지면 권태로워서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욕망이 없으면 욕망의 부재로 인해 삶이 지루해져서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보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부와 삶의 행복도는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는다. 즉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아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부정하면서 사랑을 단지 종족 번식을 위한 수단이라고 바라본다. 그는 모든 남녀 간의 사랑은 예외없이 성욕이라는 본능에 의해 특수화되고 한정되고 개체화된 것이라고 본다.[5] 그는 남녀 간의 사랑이란 서로의 육체에 대한 성적인 욕망의 표현이고 이러한 성욕이란 본질적으로는 종족보존에의 욕망이라고 보았다. 또한 종족보존의 욕망은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2세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이게 함으로써 2세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하게 만든다. 그는 고결한 정신적 사랑 또한 부정하는데, 그는 인간의 사랑이란 절대적인 생존 의지 그 자체로서 살려고 하는 생존의지가 성욕이라는 욕구를 통하여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다.[6]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성이 객관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도구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의지의 명령에 따라서 현상들의 작용법칙을 파악하면서 이것을 이용하여 의지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들의 작용까지도 객관화하여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도 거리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이 때때로 욕망의 명령에 대해서 보이는 냉담한 반응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우리의 의지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은 이렇게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의지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는 향략을 추구하는 욕망이 강하게 존재하지만 그런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지혜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면ㄱ서 우리의 삶을 불행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지만 덜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이 감각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이성적 능력을 이러한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역설한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이 의지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양과 삶의 지혜 외에 모든 것의 필연성을 통찰하는 철학적 지혜, 동정, 금욕주의적 의지부정 등 여러 가지를 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욕주의적 의지부정인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5) 박찬국(2010),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욕망론에 대한 고찰”, 92-110
6)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인생론에세이 사랑은 없다』, 해누리(2004), 28-32

것도 어떤 적극적인 행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킴으로서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그것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보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 그의 형이상학적 분석을 통해 세계는 우리의 표상이고 의지로 인해 만들어진 표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끊임 없는 욕심에 빠져있는데, 동물이나 짐승과 달리 인간은 미래적인 것과 과거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로움을 느끼고 갈망을 느낀다고 한다. 현대 사회를 분석해 볼 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욕주의와 의지를 초월하는 힘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는 현대 사회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방법은 욕망을 줄이고 의지를 초월 해야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교육적으로나 우리 사회는 여러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가득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으로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빈부격차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재대로 되지 않은 분배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최근의 국제정치 이론은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각 개인들은 자신들 만의 욕구와 갈망이 있으며 이 욕구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 사회는 항상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보았다. 이러한 불안정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률과 제도이다. 하지만 이 법률과 제도는 국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각 국가를 개인적인 주체로서 바라본다면 각 국가가 힘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법률과 제도의 존재에 불구하고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욕심과 이에 따른 의지의 장난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확산과정과 교류현황 :K-pop과 K-movie를 중심으로

The Process of the Hallyu Content Spread in Vietnam after the Deutsche Policy: Focusing on K-pop and K-movie

경희 고등학교 2학년 2반 16번 이승균 sg2kevin@gmail.com
경희 고등학교 2학년 3반 27번 정원석 elleonoel82@naver.com
경희 고등학교 2학년 2반 26번 홍성훈 shoon0305@naver.com

초 록

베트남과 한국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동반자 관계로서 중요한 협력 관계에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한류 콘텐츠가 있다. 한류콘텐츠는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이 시장개방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해 단순히 유행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문화생활, 나아가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K-pop과 K-movie의 인기는 국가 차원의 문화 무역 교류를 활성화해 일방적인 수출이 아닌, 공동 작업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할 정도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도이머이 정책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 개방을 맞은 베트남 국민들과 정서적인 공감에서 출발한 한류콘텐츠는 다시 돌아와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이 앞으로 더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류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것에서 나아가 베트남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더 상호교류적인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ViệtNam và Hàn Quốc là những đối tác quan trọngtrong thế giớicạnh tranh ngày nay. Trọngtâm là Làn sóng Hàn Quốc (Hallyu) tạiViệt Nam. Hallyu bắt đầu chảyvào Việt Nam mộtcách nghiêm túc sau khi Việt Nam có chính sách đổimới, cụ thể là mở cửa thị trường. Và, Hallyu không chỉ là một nềnvăn hóaphổ biếnmà còn có ảnh hưởnglớn đếnviệc hình thành mốiquan hệ hữunghị giữahai nước. Đặc biệt,sự phổ biến củaK-pop và K-movie phát triển đã thúc đẩytrao đổi thươngmại vănhóa ở cấpquốc gia và tạora một hệ thống hợptác. Quá trình này liên quan sâu sắc đến chính sách Đổi mới. Điềunày là do nội dung củaHallyu, bắt đầugây hiệu ứng lớnvề cảmxúc đối vớingười ViệtNam và có ảnh hưởng đến quan hệ kinh tế. Để tăngcường hợptác trong tương lai, nộidung của Hallyu cầnvượt ra ngoài địnhhướng đơnphương hơnhết là tôn trọngvăn hoábản địacủa ViệtNam nhằm tạora môi trường tươngtác nhiềuhơn.

Ⅰ. 서론

“과거를 접고 미래를 지향한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당시 합의문에 등장한 문장이다. 최근 ‘박항서 신드롬’에 관한 뜨거운 반응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문화적인 유사점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에는 한-베 외교 수립 26주년과 FTA 체결로 문화, 경제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국 교류의 중심에서, 한류는 사회적 문화적 정서의 공감대를 이끌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류는 1986년 베트남의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 도입 이후 급속도로 베트남에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중반 베트남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뒤로 베트남 국민들은 K-pop은 물론, 전국 영화관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CGV등을 통해 K-movie와 같은 한국 문화와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는 문화적 차원의 교류를 넘어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무역 활성화 등 경제적 교류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 투자 1위국이 되었고, 1992년 5억불에 지나지 않았던 교역량이 2017년에는 640억불까지 달성하였다. 무역외에도 다양한 목적의 양국 상호방문객은 3년간 5배 이상 늘어나 2017년 기준 27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도이머이 정책 이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이머이 정책에 관한 특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에 따른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정과 현황을 K-pop과 K-movie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앞의 연구를 요약한 후 한국과 베트남이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긍정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도록 하겠다.

Ⅱ. 도이머이 정책

Ⅱ-1 도이머이 정책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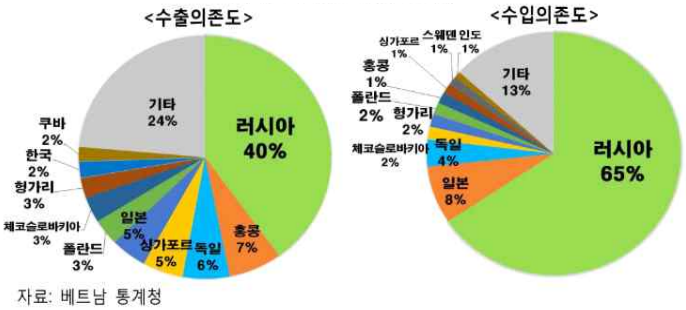
도이머이(đổi mới)는 베트남어로 ‘개혁하다’는 뜻으로, 도이머이 정책은 토지의 국가소유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등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베트남의 개방·개혁 정책이다.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응우옌 반 린(Nguyen Van Linh)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

Ⅱ-2. 도이머이 정책의 도입배경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개방한 이유로는 먼저 고립된 경제상황을 들 수 있다. 베트남전(1955~1975년), 캄보디아 침공(1978년) 등에 따른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종전 이후 국교단절과 함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하면서 베트남과의 무역교류를 전면 금지했다.

다음으로, 베트남은 구소련 등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았으나, 구소련이 대외원조를 축소하고 이로인해 교역관계가 단절되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베트남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 모두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코메콘체제[1)]*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외국 자본의 유입 실적도 코메콘체제의 국제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점을 볼 수 있다.

1) 1949년에 설립된 공산권 국가간 경제협력기구로 정식명칭은 공산권경제상호원조회의. 가맹국은 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독, 몽고, 쿠바, 베트남등 10개국이었으며 공산권의 몰락에 따라 1991년에 해체하였다.



[베트남의 수출입 의존도] 2)

3. 도이머이 정책 시기별 주요 특징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정책의 '도입기'에는 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로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한 후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교역 개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 시기에는 금융 개혁, 시장경제 발전, 농수산업·경공업·수공예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을 장려했다. 이전에 실시되었던 자유주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이머이 개방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고 외국과의 무역협정도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정책 '전환기'에는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했다. 두 차례 (1992, 2001)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관리 시장경제 추구, 제한된 사유재산 인정, 일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현재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토지법(1993)도 이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1993년도부터 2차 산업생산량이 1차 산업 부분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초를 완성한 후 본격적으로 선진국 경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였는데 농업과 경공업으로부터 벗어나고, 공업화 및 현대화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호치민 증권거래소와 하노이 증권거래소도 각각 2000년, 2005년 개장하였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책 '정착기'에는 WTO 가입(2007년)을 계기로 글로벌경제체제에 본격 가입함에 따라 대외지향적 성장방식을 굳혀나갔다. 이 시기에는 각종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고, 최혜국대우 지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현재 베트남은 국민 삶의 질적 향상, 2020년까지 장기계획하에 현대화된 국가 건설, SOC 건설, 근대화 농촌 건설, 공산당원의 사기업 설립 허용, 경제성장 촉진, 국영기업 개혁 추진, 공·사기업 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했다. 최근까지 WTO 양허안 이행(2007.1월), 정부조직 개편(2007.7월) 등의 정책을 펼치며 경쟁력있는 경제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Ⅲ. 베트남 내 K-pop과 K-movie의 확산과정

Ⅲ-1. K-pop의 확산과정 및 교류 현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가 생성된 한류1기 때부터 베트남은 콘텐츠가 성공한 주요 지역 중 하나였다. 한류에는 K-pop, K-movie, K-drama, K-game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지만, 필자들의 관심과 활발히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성공한 K-pop과 K-movi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아태경제팀. (2018).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구분	한류1기	한류2기	한류3기
키워드	한류생성	한류심화	한류다양화
기간	1997년~2000년대 초반	2000년대초~2000년대중반	2000년대 중반이후
주요분야	드라마,음악	드라마,음악,영화,게임	드라마,음악,영화,게임,한식,한글,캐릭터
주요지역	중국,대만,베트남	중국,일본,대만,동남아시아	중국,일본,대만,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미국

[한류의 확산과정] 3)

1. 확산과정

현재 베트남에서 K-pop은 한류콘텐츠의 분야 중 중요하고 핵심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음악콘텐츠의 유입은 K-drama의 유입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1990년대 말, 도이머이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개방과 더불어 문화분야도 개방됨으로써 K-drama가 진출하기 시작했을때부터 K-pop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해당 드라마의 OST(Original Sound Track) 삽입곡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게되고, 자연스럽게 유행을 선도하게 되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그 OST들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자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음악콘텐츠에 대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른 K-pop들이 팬덤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K-pop이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구분	한류1기	한류2기	한류3기
기간	1997년~2000년대 초반	2000년대~2005년대 초반	2005년대 중반이후
주요 분야	드라마	드라마, 음악	드라마,음악,영화,게임,한식,한글,캐릭터
대표콘텐츠	사랑이뭐길래, HOT	겨울연가, 대장금	음악(K-POP)

[베트남 내 한류의 확산과정] 4)

2. 교류 현황

K-pop 가수들은 베트남에서 수많은 팬들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 내 인기 아티스트 순위 15팀 중 K-pop 아티스트들은 9개 팀이나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베트남 내 젊은 K-pop 팬이 빠르게 확산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한국 아티스트가 유명세를 타면 베트남 유명 배우와의 합작영화나 베트남이 배경이 되는 한국 영화의 제작, 한국 가수가 베트남 드라마에 출연을 하는 등 양국의 공동작업의 사례가 증가하는 협력관계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7년 베트남에 방문한 K-pop 가수들을 보면 한국에서도 정상의 가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 나온 K-pop 가수들은 현재 베트남에서 한류를 이끌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가수들의 개인적인 공연 뿐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교류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한 공연도 눈에 띄게 많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K-pop 아티스트는 노래 공연만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행사의 홍보, 영화, 게임쇼, 자선 여행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가수들이 매년 베트남에서 공연을 하면서, 공연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장비와 시스템을 베트남에 가져가 공연하게 되면서 베트남에 있는 공연 관계자들은 기획 및 공연 노하우를 전수 받아 베트남의 공연기획과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프로듀서가 직접 베트남에 체류하며 한국의 방송 콘텐츠 노하우를 전수하고, 방송 콘텐츠를 수출하게 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제작의 길도 열렸다. 한국과 베트남과의 다방면의 문화교류로 인하여 일방적인

3), 4)박세진, 『베트남 미디어 시장의 한류 현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차세대 콘텐츠기획전공, 2017, p.7

문화 수출이 아닌 상호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동반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시	참여 가수	행사 명칭
2017.01.07	GOT 7	Zing Music Awards
2017.01.17	NCT 127, T-ara, DIA	V LIVE YEAR END PARTY 2016
2017.02.21	Block B	호치민-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2017.03.25	Seventeen, A-Pink, EXID, Laboum, Halo, NC.A, Se7en, LC.E, Bom-i	MBC Music K-Plus Concert
2017.04.01	SNSD, NCT127 , Lee Teuk	Going Together Concert
2017.04.08	EXID	Korea Days 2017, 하노이
2017.04.16	Infinite	DUET SONG FESTIVAL
2017. 05.06	Gugudan	K-Pop Cover Dance Festival
2017.06.07	Kang Tae Oh, Go Kyung Pyo	텔레비전 이미지 광고
2017.06.09	JJCC, Berry Good	Gangwon Day
2017.06.23	Jessica	Saigon Water World
2017.11.04	T- ara	콘서트
2017.11.08	T-ara,TEENTOP, Dreamcatcher,Halo, Snuper..	Korea-Vietnam Friendship Concert
2017.11.08.~ 2017.11.10	iKON, Krunk, Song Ji Hyo và Snuper	KBEE 2017
2017.11.25	Wanna One, SEVENTEEN , Samuel Kim.	MAMA 2017
2017.01	Taecyeon (2PM) , Kim Kwang Kyu	"Battle Trip" program
2017.05	Ahn Jae Hyun, Song Mino (WINNER), Kyuhyun (Super Junior), EunJiWon (Sechskies), Kang Ho Dong, Lee Soo Geun	New Journey to the West 4
2017.06	SanE ,Jung Chaeyeon (DIA)	"Love Again", movies
2017.08.17	TWICE	Carefree Travelers
2017～2018	Choi Siwon (Super Junior): Solar, Moonbyul (MAMAMOO): AOA - Jimin, Seolhyun: Kim So Eun: Jung Joon Young: CNBlue-Jung Yong Hwa: BIG BANG - Seung Ri	베트남에 여행

[K-pop 아티스트들의 베트남 내 공연 현황] 5)

형 태		내 용	비고
현지법인 설립		MAMAMOO-RBW E&M	2015
현지 오디션 및 트레이닝		- FNC Entertainment - Cube Entertainment - SM Entertainment (NCT VN) - V&K Entertainment (Lime)	2015 2018 2018 2018
전속 계약	RBW E&M	Châu Đăng Khoa (싱어송 라이터)	
	Flash finger	DJ Bee	

[베트남 설립 한국 기획사와 오디션활동]6)

K-POP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나라가 베트남인 사실을 반영하듯이 한류의 호감도가 높고 젊은이들이 많은 것은 베트남이 한류시장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국내기획사 중 걸그룹 마마무의 소속사 RBW Entertainment가 2015년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7년에는 "RBW Korea Viet Nam Audition"을 개최하였다. FNC Entertainment와 Cube Entertainment도 베트남에서 오디션을 주최하고 있다. 베트남 신예 작곡가 저우 당 콰(Chau Đang Khoa)는 RBW Entertainment와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인데 이전에 타잉 부이(Thanh Bui)가 한국 프로덕션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BTS, Lime의 곡을 작곡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계약까지 한국 기획사와 맺었다. 그리고 DJ Bee 역시 DJ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일렉트로닉 뮤지션 플래시 핑거 (Flash finger, 김정환)의 '애쉬스(Ashes)'에 참여하여 미국 비트포트 댄스 차트 3위에 올랐다. '애쉬스(Ashes)' 플래시 핑거가 베트남 DJ 응히 마틴(Nghi Martin), DJ 비(BEE)와 컬러버레이션한 곡이다. 2018년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 에 참석한 SM Entertainment 이수만 대표는 베트남 법인설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2016년 결성된 다국적 그룹 'NCT'에 베트남 출신 멤버를 합류시켜 NCT 베트남 유닛을 만들겠다는 뜻을 표하였다.

Ⅲ-2. K-movie의 확산과정 및 교류 현황

1. 확산과정

베트남 현지에는 영화 관련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불법 복제가 성행한 시기라 정식 수입으로 개봉하는 사례가 적어 K-movie는 다른 한류 컨텐츠들에 비해 조금 느리게 베트남에 진출을 하였다. K-movie의 진출은 1990년대 극후반과 2000년대 초반 한국 영상 콘텐츠들의 호의적인 인식과 한국 스타들의 대중적인 인

5) Tran Tuyet Hanh.(2018). "K-pop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내 한류 연구". 명지대학교 미디어 학술지.
6) 이계선.(2018). "베트남에서의 한류 현상의 확산과 콘텐츠의 다양화". 한국 베트남학회 학술저널.

기로 시작이 되었다. 베트남에서 2001년 3월 개봉한 안재욱, 김혜수 주연의 <찜>이 14만 명 관객, 80만 달러 수입을 달성해 베트남에서 한국 영화의 흥행을 맛보고 한국 영화 진출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후로 한국 영화가 베트남에서 리메이크되거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SNS에서 공유가 되면서 점차 확산이 되었다. 다른 콘텐츠들의 빠른 확산에 비해 movie는 늦게 시작한 만큼 최근까지 확산의 과정을 겪고 있다.

2. 교류 현황

베트남에서 2015년에 <수상한 그녀>를 리메이크한 <내가 니 할매다>, 2018년에 <써니>를 리메이크한 <고교 시스터즈>, <과속 스캔들>을 리메이크한 <스캔들 메이커>, <엽기적인 그녀>를 리메이크한 <마이 쎄씨 걸>이 베트남 박스오피스 1위와 흥행 1위라는 타이틀을 각각 거머쥐면서 영화 부문도 큰 흥행을 하과 있다. 리메이크된 영화들 중에서는 창의적인 작품의 해석으로 베트남 현지 관객들로부터 원작보다 더 훌륭하다는 호평을 얻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오늘도 청춘>, <태양의 후예>, <오싹한 연애>, <미녀는 괴로워>등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와 드라마들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나 한국과 베트남이 합작으로 만든 영화인 <Love Again>이 베트남의 김태희라 불리는 가수 겸 배우가 주인공으로 제작되면서 큰 인기를 끈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제작사/법인	제 목		상 영
Vifa-CJ Media	고수의 향기	Mùi ngò gai	2006 (106회)
CJ E&M-VTV	오늘도 청춘	Tuổi thanh xuân-1,2	2014-2016
VTV	태양의 후예	Hậu Duệ Mặt Trời	2018
CJ E&M-HK Film	수상한 그녀	Em là bà nội của anh	2015
TNA E&M CJ CGV	미녀는 괴로워	Sắc đẹp ngàn cân	2017
Stephane Gauger	오싹한 연애	Yêu đi đừng sợ	2017
Lê Đào Media	과속 스캔들	Ông Ngoại Tuổi 30	2018
CJ E&M HKFilm	Sunny	Tháng năm rực rỡ	2018
Live Media	엽기적인그녀	Yêu Em Bất Chấp	2018
HK Film, Donuts Culture	Love Again	Hãy để em yêu anh	2018 (합작)

[영화, 드라마의 리메이크 및 합작]7)

Ⅳ. 결론

Ⅳ-1. 도이머이 정책 실시와 K-pop, K-movie 성공의 연관성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1970년대 침체된 경제상황 속 계속된 부패와 경제적 권력의 오용과 남용 때문이다. 부패와 경제적 권력의 오·남용은 전면적인 개혁정책을 통해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시장경제가 단일 가격 체계로 전환되면서 잘못된 경제적 권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제 구매력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력 향상은 질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로 이어졌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단지 물질적 제품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증가했다. 여가시간활용과 관련한 문화 상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증대된 것이다.

베트남인들은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들의 투자에 힘입어 컬러텔레비전 수상기가 대량 생산되면서 제품가격은 낮아졌고, 소득 증대로 텔레비전이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의 소비 욕구 증대에 걸맞게 베트남 내에서는 오락성 필름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았고, 이 공백은 외국 필름의 도입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해외 드라마였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하나의 마케팅기법으로써 무료로 판권을 사주거나 구입 비용을 제공해주면서 현지 방송국들은 싼 가격으로 K-drama를 들여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 기업들도 싼 가격으로 자사 제품을 광고할 수 있

7) 이계선.(2018). "베트남에서의 한류 현상의 확산과 콘텐츠의 다양화". 한국 베트남학회 학술저널.

었다. 더불어 이 흐름이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한류정책의 다변화와 무역증대를 위한 'K-Culture 페스티벌'과 같은 무역거래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가주도의 행사가 늘어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음식, 건강 보조식품, 패션, 액세서리, 뷰티, 화장품, 전자제품, 관광 및 의료관광 등 한국 문화 콘텐츠에 따른 한류소비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내에서 베트남과 정서적,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국가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는 베트남인들에게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Ⅳ-2. 한국과 베트남이 콘텐츠 교류를 활용해 긍정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할 길

지금까지 베트남에서의 K-pop과 K-movie의 확산과정과 현황을 도이머이 정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서 문화콘텐츠의 교류가 양국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의 한 매체에서 "한국 대중문화콘텐츠는 한국의 가치와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실질적 소프트 파워이다.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로 인해 화장품, 패션, 소비재, 자동차, 스마트폰 등이 베트남 시장에 점차 친숙해지고 인기를 얻고 있다." 라고 했듯이 한류콘텐츠는 베트남에서 한류에 의한 소비를 확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 교류'는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국의 일방적인 대베트남 수출로는 한계가 있다. '협력 관계'는 상호적인 의미이며, 일방적인 방향을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 '협력'이 아닐뿐더러, 장기적인 국가 협력 관계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은 한류의 확산을 문화적 우월감이나 경제적 기회로만 보는 시각을 철저히 경계해야할 것이다. 과거 베트남 역사를 살펴볼 때 베트남에 유입되는 많은 외래문화들은 베트남 전통을 기반으로 토속화되었다. 일례로, 15세기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서양 선교사들은 베트남 문화 정서를 기반으로 한 가톨릭 발전을 베트남 선교의 중점사항으로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류콘텐츠의 교류를 통한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베트남 문화 존중의 기틀 위에서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가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윤희(2017)의 '한국 사회에 빠르게 퍼져가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자민족우월주의에서 벗어나 각 나라의 문화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의 문화콘텐츠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가를 잘 보여 준다'는 말처럼 한류수용국가에 대한 문화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개발과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류에 대한 연구는 한국 뿐 아니라 각국 현지의 사회 문화 전문가들의 현지에 부합된 특성화된 한류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이야말로 살아 있는 정책이 되어 한류의 인기를 지속시킴으로써 베트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 기틀로 한류를 자리매김할 수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업 또한 한류의 일방적인 전파 또는 지나친 상업주의 및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양국은 세계속에서 든든한 동반자 관계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Ⅴ. 참고문헌

- 이한우.(2002). "베트남에서의 "한류", 그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효과".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학술저널
- 강준섭.(2013). "베트남 경제발전과 한국-베트남 동반성장 전략에 대한 연구". 한양 사이버 대학교, 10-27.
- 이계선.(2018). "베트남에서의 한류 현상의 확산과 콘텐츠의 다양화". 한국 베트남학회 학술저널, 3-26.
- Tran Tuyet Hanh.(2018). "K-pop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내 한류 연구". 명지대학교 미디어 학술지
-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아태경제팀.(2018).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국제경제리뷰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교육 비교 연구: 한국과 베트남의 여러 교과서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Historical Educ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on the Vietnamese War: Focusing on School Textbooks

Một nghiên cứu so sánh về giáo dục lịch sử giữa Hàn Quốc và Việt Nam về Chiến tranh Việt Nam: Sách giáo khoa là trọng tâm của nền giáo dục Hàn Quốc và Việt Nam

경희 고등학교 1학년 4반 26번 이형준 Lee Hyung Jun 1204kevin@naver.com

초 록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패한 유일한 전쟁이라는 점과 이를 계기로 냉전이 해소되는 데탕트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에게는 통일을 이뤄준 전쟁이기도 하며, 참전했던 한국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 토대를 다진 사건이었다. 우리는 후대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소논문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후대에게 현대사를 가르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할애하고 있으며 얼마나 공정하게 서술하였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Abstract

Cuộc chiến tranh Việt Nam được đánh giá là một trong những giai đoạn vô cùng quan trọng của lịch sử thế giới bởi sự bắt đầu của cuộc chiến tranh lạnh, đó là một phần lý do mà Mỹ thất bại. Giống như Việt Nam, Hàn Quốc trải qua cuộc chiến và đã giành thống nhất, và đó là cột mốc nền tảng tạo ra kỳ tích cho Hàn Quốc thông qua lợi ích kinh tế. Chúng ta có nghĩa vụ truyền đạt tốt các sự kiện mang tính lịch sử quan trọng này cho thế hệ sau. Theo đó, luận văn này thông qua bài học chiến tranh Việt Nam nhằm lưu giữ lịch sử giá trị cho thế hệ sau của Hàn Quốc và nhất là Việt Nam.

I. 서론

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도 불리는 베트남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띤다. 한국은 정치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여 참전했다.[1] 당시 베트남은 호찌민(Hồ Chí Minh)이 이끄는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후 북베트남이라고 칭함)과 응오딘지엠(Ngô Đình Diệm)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 국가 베트남 공화국(이후 남베트남이라고 칭함)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집권 초기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듯했던 응오딘지엠의 남베트남 정권은 북베트남의 테러 등으로 다시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런 시기에 적화통일을 위해 남베트남에서 결성된 조직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다. 당시 미국은 남베트남을 그냥 두었다가는 북베트남이 적화통일을 이루고 같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이 도미노 현상을 통해 연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베트남에 간섭한다. 미국의 간섭은 초기에는 남베트남군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였으나, 남베트남군이 여러 전투에서 참패하면서 1963년부터 직접 파병을 통해 전쟁을 시행하였다. 미군은 북베트남군이 미국을 직접 공격했다는 통킹 만 사건을 구실로 전쟁에 직접 파병을 결정했는데, 이 중 제2차 통킹 만 사건은 거짓이었는데, 실수의 고의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은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고자 물자와 군대를 대거 투입했으나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들은 숲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미군을 당황케 했고 전쟁은 점점 길어졌다. 미국 내에서는 북베트남의 '구정 공세'가 중계되면서 반전 여론이 강해지고 결국 닉슨(Richard M. Nixon)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단계적 철군을 선언한다. 이후 남베트남은 베트콩에서 정권을 잡고 1976년 북베트남과 통일하면서 현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이는 미국이 개입하였다가 패배한 유일한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하여 오일 쇼크가 일어나 신자유주의 체제를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는 점차 냉전 분위기를 해소하는 데탕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면에서 베트남전쟁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한국군은 1965년 파병되어 1973년까지 작전을 수행했고, 이를 대가로 한국은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맺어 한국군의 무기를 현대화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냈다. 이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은 자금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베트남전쟁은 세계사적으로, 베트남사적으로 또 한국사적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서로 국교를 회복한 후에도 베트남이 한국에게 참전 당시의 행적에 대해 외교적 항의나 경고를 하기도 하고, 한국이 베트남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등 외교적으로 한-베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후대에게 이러한 세계사적으로 중요하며, 현재까지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전쟁 참여국들의 의무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의 교육은 전쟁 참여국들이 자신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다. 이런 중요성 속에서 서로 맞서 싸운 전쟁 참여국이면서도 서로 간의 외교적 교류가 활발한 한국과 베트남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베트남전쟁에 대한 서술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갖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서술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두산동아, 교학사, 천재교육, 비상교육 교과서와 베트남 교육부의 역사 9, 역사 12를 채택하여, 각 교과서에서 각각 베트남 전쟁의 원인, 전재, 결과와 영향에 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II. 한국 교과서에서의 베트남전쟁 교육

1. 한국의 교과서 제도

한국의 교과서 제도는 국가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정제와 출판사가 책을 발행한 후 교육담당 관

1) 이한우, 베트남전쟁과 한국의 동원된 근대화, 황해문화 통권 제89호, 2015.12, 382-390

청의 검정 혹은 인정을 거치는 검인정제의 양대 체제를 기본으로 한다.[2]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1종도서와 일반 제작자들이 제작한 도서를 교과서로 승인한 2종도서가 혼용되는 체제이다. 2015년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이처럼 교과서 발행제도의 다양성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교과서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큰 탓이라고 볼 수 있다.[3]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전쟁의 원인, 전개, 결과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들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2.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의 베트남전쟁 서술

(1) 두산동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2010)에서의 서술

① 베트남전쟁의 원인 서술

두산동아에서 2010년에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베트남전쟁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아시아에서는 중국본토의 공산화, 우리나라의 국토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어난 인도차이나 전쟁과 북위 17도선의 남북 분단 등으로 냉전이 점점 격화되었다.

이 교과서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분쟁들과 함께 엮어 서술하여 베트남전쟁의 원인이 냉전 체제로 인한 것이라고 서술한다. 한국에서 출판된 여러 '한국 근·현대사'과목의 교과서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베트남전쟁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 언급된 교과서이다.[4]

② 베트남전쟁의 전개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베트남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를 보내어 베트남을 지원하였으나, 곧 전투부대인 맹호·청룡·백마 부대 등을 중파하였다.

베트남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은 서술되지 않고 한국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술되어 있다. 교과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하여 다루는 책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③ 베트남전쟁의 결과 및 영향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결과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19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이익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일체 다루지 않아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베트남전쟁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 교학사 <동아시아사> 교과서(2014)에서의 서술

① 베트남전쟁의 원인 서술

교학사에서 2014년에 출간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베트남전쟁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

2) 한충일, 한국·미국·베트남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관련 내용 비교 분석, 학위논문, 2016
3) 한충일, 한국·미국·베트남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관련 내용 비교 분석, 학위논문, 2016
4) 한충일, 한국·미국·베트남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관련 내용 비교 분석, 학위논문, 2016

술하고 있다:

>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족·민주 연합 정부를 수립하고자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하였다. 북베트남의 사회주의자 정권은 이들을 지원하였다. 이에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베트남에 군사고문단을 늘리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1964년 미국은 통킹 만 사건을 조작하고 남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달리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하였다. 한국도 1965년부터 전투부대를 파병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과 북한, 소련이 북베트남을 지원하였다.

교학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베트콩을 향한 북베트남의 지원에 의한 미국의 지원 강화가 전쟁의 발단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북한·중국·소련의 지원을 서술하며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냉전 체제에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② 베트남전쟁의 전개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지상부대의 전투는 북위 17도선 이남의 베트남에서 벌어졌다. 북베트남은 호찌민 루트를 통해 비밀리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와 같은 중국의 개입을 피하고자 북진하지 않았고 (중략)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전쟁 비용을 들였지만,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반전 운동과 막대한 재정 부담, 인명 피해로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1969년데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베트남에서의 '명예로운 철수'를 위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중국과 화해를 모색하는 한편, 주한 미군을 감축하고 박정희 정부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 교과서는 미국의 전쟁 직접 개입 이후의 상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후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큰 자금을 사용했으며 이를 비롯한 반전 운동, 인명 피해에 대한 부담 등의 요소가 미국의 철수를 불러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대화를 요구하고 중국과 화해하려고 하는 미국의 모습을 서술하여 미국의 전후 처리 과정을 보여주었다.

③ 베트남전쟁의 결과 및 영향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결과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1973년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되었다.(중략) 많은 산업 시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고, 양측의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 고엽제 피해와 민간인 학살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쟁의 후유증이다.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내전을 겪고 있던 주변 지역도 공산화되었다.(중략) 베트남전쟁을 전후하여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독도 문제와 청구권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었다.(중략) 그러나 양국 정부는 반공과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다.(중략)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모색하던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했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고 미국의 고립화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미국과 화해하였다.

우선적으로 베트남이 입은 피해에 관해서 서술한 이후, 전쟁의 결과로 공산화된 국가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예외적으로, 베트남전쟁이 한·일 간의 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종합적으로, 베트남전쟁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다양하게 서술하였다.

(3)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교과서(2016)에서의 서술

① 베트남전쟁의 원인 서술

천재교육에서 2016년에 출간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베트남전쟁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미국이 지원한 베트남 공화국 정부가 반대자들을 탄압하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하여 저항을 시작하였고, 호찌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부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였다.(중략)미국 정부는 군사고문단 파견을 시작으로 차츰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였다. 미국 정부는 '통킹 만 사건'을 빌미로 1965년부터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고 미군 전투부대를 파견하였다. 이 전쟁에 한국군은 미국의 동맹국의 일원으로 파견되었고, 이에 북한은 북베트남을 지원하였다.

천재교육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교학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 내용과 대부분이 겹치며 전쟁의 원인에 있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통킹 만 사건에 대한 시각이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았다고 표현하였다.

② 베트남전쟁의 전개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1968년,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대대적 공세를 취함으로서 미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에서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분전과 이로 인한 미국에서의 반전 시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③ 베트남전쟁의 결과 및 영향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결과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미국은 철군 방침을 정하여 1973년에 파리 평화 협정(베트남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개입 종결을 선언하여 미군을 철수하였고, 북베트남 정부가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1975). 전쟁을 승리로 이끈 베트남은 공산국가인 캄보디아를 점령하여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하였다. 또한 내전 상태에 있던 라오스에도 간섭하여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 세력이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베트남을 침공하였다가 패배하기도 하였다.(중략) 냉전의 대립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북베트남 정부와 소련, 중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미국은 중국 정부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양국 간에 외교 관계가 회복되었다.

파리 협정 체결과 베트남의 통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공산화시킨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베트남전쟁의 영향임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교과서는 '전쟁이 남긴 비극' 이라는 부분을 구성을 통해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함께 '베트남전쟁과 고엽제의 피해'라는 제목으로 고엽제 사용 시기와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5)]

(4)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교과서(2014)에서의 서술

① 베트남전쟁의 원인 서술

비상교육에서 2016년에 출간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베트남전쟁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5) 한충일, 한국・미국・베트남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관련 내용 비교 분석, 학위논문, 2016

서술하고 있다:

> 미국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총선거에 개입하였다. 이에 베트남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다. 북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넘지 않고 남베트남에 있는 민족 해방 전선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남베트남 정국이 불안해지자 미국은 통킹 만 사건을 조작하였고, 이를 근거로 미국이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상교육의 교과서에서는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통해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한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또한 교학사와 같이 통킹 만 사건에 대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② 베트남전쟁의 전개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1968년 1월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과 북베트남 정규군은 대대적인 기습 작전인 설날(구정) 공세를 통해 미국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참혹한 설날(구정) 공세의 장면이 미국 전 지역에 방송되어 미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에서 반전 여론이 고조되었다.

미국에서의 반전 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인 구정 공세에 대해 서술하였고, 이를 통해 생겨난 반전 여론에 대해 언급하였다.

③ 베트남전쟁의 결과 및 영향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결과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1969)한 뒤 1973년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되자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개입 종결을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켰다. 이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점령하며 전쟁은 끝이 났고,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 전쟁으로 베트남의 인적·물적 피해가 가장 컸지만, 전쟁에 참여한 미군과 한국군의 인적 손실도 매우 컸다. 특히 한국은 베트남전쟁 특수를 통해 경제재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잃었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의 후유증에 고통 받고 있다. 일본도 전쟁 물자 보급을 통해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 전쟁은 냉전이 완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이른바 데탕트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파리 평화 협정과 사이공 점령을 통해 베트남전쟁이 끝나는 과정과 베트남, 미국, 한국 등 전쟁 주요 참여국들의 인적 손실이 매우 컸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전쟁이 세계사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익, 냉전 완화에 대한 도움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베트남전쟁이 한국에 끼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고루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세계사적으로 끼친 영향까지 서술한 교과서이다.

III. 베트남 교과서에서의 베트남전쟁 교육

1. 베트남의 교과서 제도

베트남은 교과서에 대해 검정제로 발행하고 있다. 2018년 이전까지는, 국가 발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5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제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4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과서 전부에 대하여 검정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검정제 상황에서의 교과서를 구할 수 없어 국정제 시절의 교육부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12>(2009)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 교과서 <역사 9>(2015)를 일부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2.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의 베트남전쟁 원인 서술

(1) 교육부 <역사 12> 교과서(2009)에서의 서술

① 베트남전쟁의 원인 서술

베트남의 교육부에서 2009년에 출간한 <역사 12> 교과서에서는 베트남전쟁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응오딘지엠 독재괴뢰정권을 통한 통치가 실패하면서, 미제국은 1960년 말부터 '특별전쟁 전략' 이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중략) '특별전쟁' 전략의 기본 책략은 "베트남인을 이용하여 베트남인을 친다."는 것이었다.(중략) 미국은 지엠군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남부로 많은 군사고문을 파견하고 사이공 군대의 세력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전략촌락' 모으기에 집중하고 (중략)미국의 전투지원과 고문계통의 지휘를 받은 사이공군은, 혁명세력을 섬멸하여 북부궤멸활동을 진행하고, 남부 전장으로 북부 후방의 지원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과 해상을 봉쇄하는 등 소탕작전을 펼쳤다.(중략) 대통령이 된 이후, 존슨은 '특별전쟁'을 더욱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중략) 1964년 겨울부터 1965년 봄까지 우리 군민은 빙쟈 촌락을 시작으로 동남부 지역의 적과 전투를 벌였다.(중략) '특별전쟁' 전략은 토대부터 무너졌다.

이 교과서는 남베트남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하여 서술함으로서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해방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존슨 대통령 당선 이후 베트남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음을 서술한다. 이후로는 이 개입의 강화가 북베트남에 위기감을 주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결국 군사적 충돌에서 민족해방전선 군인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나감에 따라 미국의 '특별전쟁' 전략은 실패했다고 언급하였다.

특이한 점은 한국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원인으로 '통킹 만 사건'을 주목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교과서에서는 아예 서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교육부 측은 통킹 만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전부터 남베트남의 뒤에서 전쟁을 조종해온 미국이기 때문에 전면으로 군대를 출전시킨 사건을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을 경우이다. 둘째는 통킹 만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여겨 서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경우이다. 그래도 중학교 교과서인 <역사 9>를 살펴보면, 통킹 만 사건에 대한 약간의 서술이 적혀있다:

> '통킹 만 사건'을 일으킨 후인 1964년 8월 5일에 미국은 쟈잉강 입구(꽝 빙), 빙-벤 투이(응에 안), 라익 쯔엉(타잉 호아), 혼 가이 시사(꽝 닝) 등 북부의 일부 지역에 폭탄을 투하했다.

<역사 9> 역시 통킹 만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 사건을 일으킨 후 북베트남을 향한 폭격을 실행했다고만 서술하였다.

② 베트남전쟁의 전개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1965년 중반부터 시작된 '국지전'은 새로운 식민지 침략전쟁 유형 중 하나로, 미군 및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 중 일부 국가의 군대, 그리고 사이공 군대에 의해 진행되었다.(중략) 우리 인민은 미국의 침략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지력으로 전 민족의 힘과 전후방의 힘을 모두 합하여 '국지전' 전략에 대응하여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첫 번째 건기(1965년 겨울-1966년 봄)에 접어들면서 72만 명의 군인(그중 미국과 그 동맹군은 22만을 차지한다)을 이끌고, 적군은 450개의 작전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그중 5개의 작전이 해방군의 주력부대를 섬멸하기 위한 대규모의 '탐색-살상' 작전이었다.(중략) 1968년 봄이 되자 두 차례의 건기를 마친 후 상대적인 역량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자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우리는 미군 및 동맹군의 일부 세력을 섬멸하고 사이공 정권과 구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실

시하여 정권을 시민의 손에 돌려주고, 미국의 철군에 대한 담판을 짓기 위해 각 도시를 중심으로 남부 전역에서 총공세를 개시할 것을 주장했다.(중략) 총공세는 1968년 1월 30일에서 31일로 넘어가는 새벽(무신년 설)에 주력군이 남부의 각 도시 전역을 전략적으로 습격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총공세는 1968년 1월 30일 밤부터 2월 25일까지 5월과 6월, 8월과 9월 등 3단계로 전개되었다.(중략) 총공세 이후 미국 및 사이공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들이 추가되면서 대미항전과 구국운동은 점차 확대되었다.(중략) 적들은 빠르게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우리 군을 공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군의 역량은 적지 않은 어려움과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다.(중략) 비록 손실과 한계가 있었지만, 무신년 봄의 대규모 총공세는 미군의 침략의지를 약화시켰으며, 미국이 침략전쟁의 '비미국화'를 선언하도록(즉 '국지전'의 실패를 인정하도록) 유도했고, 북부에서의 파괴전쟁을 무조건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면서, 베트남전 종결에 관한 파리협정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총공세는 대미항전과 구국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후략)

미국이 전쟁을 개시한 직후, 북부 베트남은 적절한 시기에 모든 상황을 전시상태로 전환하고 전 인민을 군사화 했다.(중략) 적이 오면 싸우고,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투를 위해 기여하며 평상시에는 모두 생산에 종사했다. 전투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부 베트남에서는 미국에 대항하여 나라를 구하고 "자유·독립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실현하려는 운동이 경쟁적으로 발생했다.

이 교과서는 미국과의 전쟁이 본격화 된 이후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의 전술을 '특별전'에서 '국지전'으로 수정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확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의 '국지전'은 미국이 전쟁 개입을 강화하여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후에는 미군의 국지전 전략에 대해 북베트남인과 남베트남인들이 펼친 저항에 대해 서술하는데, 미군을 포함한 적군의 숫자를 서술하여 전쟁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는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서술을 할애하고 있는 '구정 공세'의 내용이다. 우선적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해방 전선이 구정 공세를 취한 배경에 대해 전력적 우위를 가졌다는 군사적 판단과 상대의 혼란한 상황을 들고 있다. 구정 공세에 대해서는 한 번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구정 공세 도중에도 북베트남 측에 협력하는 세력들이 증가했다는 서술이 있다. 이후 미군과 남베트남이 전력을 재정비하여 반격하여 북베트남과 베트콩도 큰 피해를 겪었음을 알리고, 구정 공세가 그들의 패배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정 공세로 인해 미국의 북베트남에 대한 공격의지를 약화 시킨 점, 파리협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 등의 영향도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의 다른 단원의 서술에서는,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았더라도 베트남이 미국에 대항하여 투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민족 전체가 한 뜻으로 미국에 맞서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는 식의 서술을 통해 베트남의 민족주의 성향이 잘 드러난다.[6]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교과서적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한 칭찬과도 같은 서술이 다양한 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③ 베트남전쟁의 결과 및 영향 서술

본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결과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지전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후, 미국은 '베트남화 전략'으로 전환했다. 또한 인도차이나 전체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차이나화 전략'을 실시했다.(중략) 전장에서 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베트남화 전략'을 통해 미군과 동맹군은 점차 전쟁에서 물러나는 대신 베트남인을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사이공 군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베트남인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공격한다."는 음모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었다.(중략) 미국은 또한 중국과 소련이 우리 인민들의 항전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는 타협하고 소련과는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등 중국과 소련의 대립관계를 이용하는 외교를 펼쳤다.(중략) 우리는 전장에서 적에 맞서 싸우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적에 대한 투쟁을 벌였다.(중략) 1970년과 1971년의 2년 동안 우리 인민들이 캄보디아, 라오스의 인민들은 군사상, 정치상 의의가 있는 승리를 거두었다.(중략) 1972년의 전략적 공세는 '베트남화 전쟁' 전략에 혹독한 철퇴를 가했으며, 미국이 '미국화'를 선언하고 침략전쟁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들었다(즉 베트남화 전쟁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중략) 1968년 5월 13일에 파리에서

6) 한충일, 한국·미국·베트남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관련 내용 비교 분석, 학위논문, 2016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와 미국 정부대표 간의 공식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1969년 1월 25일부터는 베트남민주공화국, 남부베트남 민족해방전선(남부베트남 공화국임시혁명정부), 미국, 베트남공화국(사이공 정권) 간의 4자 회담이 개최되었다.(중략) 1973년 1월 27일에 베트남에서의 전쟁종식과 평화재건에 관한 협정이 회의에 참여한 정부대표와 외교부 장관에 의해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되었고,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중략) 베트남에 관한 파리협정은 군사·정치·외교 간의 협력을 통한 승리였고, 국토의 양쪽 지역에서 우리 군과 민이 굳은 의지와 불굴의 정신으로 싸운 투쟁의 결과였으며, 대미항전과 구국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우리 인민의 기본적인 민족권을 승인하고 군대를 전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역사상 중요한 승리이며, 이로써 우리 인민은 남부 베트남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중략) 1973년 6월까지 북부 베트남은 미국이 바다 및 강 등에 설치한 기뢰와 폭탄을 완전히 제거하여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게 되었다. 1973년과 1974년 2년 후에 북부 베트남은 각종 경제기반과 농업용 수리시설, 교통망, 문화 및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의 복구를 마쳤다. 경제는 발전하기 시작했다.(중략) 미국이 지휘하는 고문의 조언과 원조를 받으면서 사이공 정권은 임의로 파리협정을 파기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영토침범 선전운동을 진행하면서, 해방지역에서의 '평정-점령'행군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중략) 1973년 말부터 남부 베트남의 우리 군과 민은 단호하게 적을 물리치고 해방지역을 지켰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전쟁근거지를 공격하면서 해방지역을 넓혀 나갔다.(중략)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거둔 후, 사이공 정권은 강력하게 반응했고 군대를 보내 재점령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주로 먼 거리에서 위협적인 압력을 가하기만 했다.(중략) 1975년 봄의 총공세는 약 2달 동안 3개의 큰 작전을 통해 진행되었다.(중략) 인도차이나의 세 민족이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싸운 투쟁에서 서로 돕고 단결한 결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세계 민주·평화·혁명세력, 특히 소련, 중국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옹호와 지원, 그리고 미 제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미국 및 세계 시민들 역시 승리를 위한 큰 힘이 되었다.(중략) 대미항전과 구국운동은 1945년 8월 혁명 이후 조국수호와 민족해방 투쟁을 벌인지 30년 만에, 그리고 미국에 대항한 지 21년 만에 승리로 매듭지어져 우리 땅에서 행해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악랄한 통치를 종식시켰다.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인민민주주의민족혁명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을 이루게 되었다.(중략)우리 인민의 승리와 미 제국의 실패는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쳐 세계혁명운동, 특히 민족해방운동을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에 대한 서술을 시작할 때, 미국의 '베트남화 전략'을 시작으로 하는데, 이는 미국이 이 때를 기점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멈추기 때문이다. 이 교과서는 베트남화 전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베트남인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공격한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의 민족주의 성향으로 인해 남베트남인들도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 1970년, 1971년에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베트남전쟁의 전선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전장뿐만 아니라 협상의 과정에서도 투쟁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뒤에서는 '혹독한 철퇴'라는 단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미국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북베트남이 전쟁 중 실시한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서술하였다. 그 후 전쟁이 종결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1968년 미국과 베트남의 공식회담을 언급하여 당시부터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과서는 파리 협정에 대해 내용을 서술하는 등 자세히 언급하고, 북베트남 측이 지뢰 제거, 경제 회복 등 베트남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후 미국이 미군을 철수시킨 후에도 남베트남 정권을 도우면서 베트남전쟁에 지속적으로 간섭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언급하였고, 1975년의 총공세로 통일에 성공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전쟁의 승리는 당의 지도, 남, 북베트남인들의 노력, 인도차이나 반도 내의 결속과 외부 공산국가들의 협조 등의 도움을 통해 이뤄졌다고 서술하는데, 가장 눈길이 가는 점은 미국 시민들이 베트남의 승리에 큰 힘이 되었다고 서술한 것이다.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제국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킨 것, 베트남이 통일된 것,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 교과서에서는 베트남전쟁이 세계사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한국의 교과서들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것을 염려한 미국이 통킹 만 사건을 빌미로 한 것을 전쟁의 원인으로 서술하였으나, 베트남에서는 시각이 달라 통킹 만 사건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이 남베트남군을 지원하여 북베트남을 공격한 것을 전쟁의 원인으로 보았다. 통킹 만 사건은 조작 여부에 대해 의혹이 있으나, 한국 교과서의 경우 대체로 솔직한 서술을 보였다. 이는 한국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교과서들은 베트남과 비교해서, 사건이 각국에 미치는 중요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베트남전쟁에 관한 서술이 매우 부족하며, 한국 군대가 파병되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국민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미국의 군대가 철수한 원인을 구정 공세로 인한 세계의 반전 여론 격화로 보았다. 베트남 교과서는 전쟁 과정에 대하여 베트남이 거둔 성공을 중심으로 하여 상세한 서술을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인력과 물자의 우세를 바탕으로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 북베트남군이 이를 정글을 활용한 게릴라전으로 격퇴했다는 사실 등이 서술되었다. 또한 북베트남이 전쟁 도중에도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이는 베트남이 가진 민족주의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형식의 서술이다. 또한 구정 공세를 전쟁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미국이 파리 협정을 받아들이게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한국의 교과서들은 전쟁이 끼친 국내전, 세계사적 영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반면 베트남의 교과서에서는 전쟁이 종식되는 과정과 함께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에 베트남전쟁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었다. 한국의 교과서에는 주로 한국 장병들의 희생,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인도차이나 반도의 일부 공산화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 전쟁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베트남의 피해와 한국군의 희생에 대해서는 언급만 될 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베트남의 교과서는 미국이 직접 파병을 그만둔 이후로 외교적인 면에서 압박을 시도한 전적이 있으며, 전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서술이 있다. 전쟁의 영향으로는 베트남이 통일된 점과 세계 각국의 민족해방운동을 불러일으킨 점을 들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이를 통해 이뤄낸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엽제 문제, 베트남 민간인에게 끼친 피해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서술이 나와 있지 않아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위험이 있다. 반면 베트남 교과서는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서술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베트남이 승전국이라는 면을 제외하더라도 정도가 심하며[7] 베트남의 학생들이 베트남전쟁을 공부할 때 이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기 힘들도록 한다.

2. 제언

이 보고서에서의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역사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의 서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현재의 교과서들은 베트남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차릴 정보가 전혀 없고, 결과의 서술에서도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만 서술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역시 베트남전쟁의 과정 중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서술할 이유는 충분하며, 결과 및 영향에 관해서는 고엽제의 피해와 베트남에게 미친 영향 등 베트남전쟁에 관한 부정적인 면을 더 적극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 역사교과서는 베트남전쟁이 서술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현재의 교과서는 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정보를 긍정적인 면에서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의 부정적인 면에 관해서 서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연합에 참가하여 파병한 국가들과 베트남을 지원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교과서

7) 한충일, 한국・미국・베트남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관련 내용 비교 분석, 학위논문, 2016

에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서술이 있는지 조사하여 더 많은 연구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과 시사점-스웨덴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Startup Support Policy in Scandinavia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 Focused on Sweden and Finland

Startuppolitik I Skandinaviska länder och dess Implikationer - Fokuserad på Sverige och Finland

경희고등학교 2학년 2반 4번 이름 김민성(Kim Min Sung) xxxx718@naver.com

초 록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스타트업이 매우 활발하다.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급부상 중이다. 본 보고서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스타트업 활성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가장 큰 원인인 각국의 복지제도를 조사 연구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을 발전시켰다. 더불어 겸손과 평등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서는 스타트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스타트업을 위한 휴직의 권리도 큰 이점이다. 핀란드에서는 정부의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자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스타트업을 활성화시켰다. 국내의 스타트업이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스타트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스칸디나비아의 복지제도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Abstract

Startups är mycket aktiva i skandinaviska länder. Nyligen framträder Sverige och Finland snabbt som globala startup hub. Denna rapport har varit beredd att ta reda på orsakerna till vitalisering av startup i Sverige och Finland. Den viktigaste orsaken var studien av välfärdssystemet i varje land och det hjälper att presentera slutsatsen. I Sverige har det utvecklats nystartade företag genom regeringens startupprojekt och startupinkubationscentra. Dessutom lägger den allmänna stämningen som värderar ödmjukhet och jämlikhet grunden för nystartade företag. Rätten att ta ledighet för att starta nya företag är också en stor fördel. I Finland är regeringens "stöd men inte ingripa" politik den största funktionen. I synnerhet har subventioner för medborgarna aktiverat uppstarten. Med hänsyn till att inhemska nystartade företag är i en nedgång har det skandinaviska välfärdssystemet hittat och presenterat implikationer och konsekvenser för att utveckla Sydkoreas nystartade företag.

I. 서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1]에서 유래된 이 표현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복지 정책의 특징을 일컫는 표현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상징 중 하나인 보편적이고도 활성화된 복지 정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닮고자 하는 독보적인 정책이다.

"핀란드·스웨덴에 韓 스타트업 진출 거점 센터 설치"[2]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지난 2007년부터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현 한국연구재단)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스웨덴의 앞선 분야에 대해 상호 기술, 경험 교류를 위한 사업을 개최해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을 계기로 한·핀란드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KSC[3] 설치 관련 MOU를 체결했다. 또한 스웨덴 기업혁신부와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20위권 밖에 랭크되어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스타트업 분야에 관한 각국의 복지 정책과 환경의 차이에 대해 주목했다. 스칸디나비아권 국가들의 활발한 스타트업 산업의 부상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비교 후 적용시킬 수 있는 점들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II. 스웨덴의 스타트업

Ⅱ-1. 스웨덴 스타트업 현황

최근 스웨덴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급부상 중이다. 스웨덴은 인구 1백만 명 당 스타트업 수를 기준으로 할 때, 5.52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이는 룩셈부르크(14.9개)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다. TEA지수[4] 또한 7.3으로 유럽 4위를 기록했다. 또한 스웨덴에 이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순위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참조[5]) 이에 2018년 기준, 스톡홀름의 스타트업 유니콘[6]은 Spotify, Skype, King, Mojang, Klarna, Izettle 등 6개로 대부분이 현재 스웨덴 Top 10 스타트업 기업에 선정되었다.

1) 모든 국민이 국가 책임 하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 개념을 채택한 보고서로,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사회보장체제가 받은 평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는 흔히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논할 때 사용된다.
2) "핀란드·스웨덴에 韓스타트업 진출 거점 센터 설치", <ZDNet Korea>, 2019.06.10.
3) Korea Startup Center.
4)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18-64세의 경제활동 인구 중, 창업 42개월 이하의 스타트업 종사 또는 창업단계에 있는 인구 비중.
5) Mattemark Data.
6)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순위	국가	건수	인구	인구 백만 명 당 건수
1	룩셈부르크	8	536,427	14.91
2	스웨덴	53	9,595,619	5.52
3	캐나다	189	35,309,555	5.35
6	핀란드	22	5,434,241	4.05
7	노르웨이	20	5,022,555	3.98
8	덴마크	21	5,628,958	3.73

[표1] 인구 1백만 명 당 스타트업 수 (2015.01-2016.08)

Ⅱ-2. 스웨덴 스타트업 환경

Ⅱ-2-(1) 정부 지원

스웨덴 정부는 1980년대부터 앞선 IT 인프라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다. 1980년대에는 회사에서 개인 PC 구매 직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고, 1990년대에는 직원들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해 PC 보급률을 높여 강력한 IT 인프라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스타트업 지원 전담 공기업으로 VINNOVA(스웨덴 혁신청)[7] 가 설립되었다. 스웨덴 혁신청은 '15년 기준 총 592건의 창업·혁신부문 프로젝트를 지원(3340만 유로)했고, 현재 67개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트 프로그램 또한 운영중이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이노베이션을 비롯해 기업 및 대학·연구소 이노베이션 등 혁신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16~'19년까지 820만 유로(7800만 크로나, 약 100억 원)를 투입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 프로젝트에는 4차산업 외에도 지속성장성 향상, 제조업 부문 스킬 확대, 테스트베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북구이사회[8]도 '16년 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150만 유로의 펀드를 조성해 매년 1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창업 시 정부기관에서 자금지원이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있다. 스웨덴 혁신청에서 창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영 벤처캐피털인 ALMI에서 '소프트 론(soft loan)'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 론'은 성공 시 100% 상환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상환할 필요 없이 일부만 상환하면 되는 창업자부담이 적은 대출상품으로,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활발한 편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정책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스웨덴 내 최우수 창업기업 보육센터 중 하나인 웁살라 혁신센터(Uppsala Innovation Centre)[9]는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단계부터 창업기업의 설립 초기 과정, 제품 생산과정 등 다섯 가지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성, 상업화 타당성, 국제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웁살라 혁신센터는 설립 당시에는 전통적인 인큐베이터였으나 스타트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 컨설팅'과 '노하우 전수'라고 판단하여 2004년에는 비즈니스 코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였고 현재는 전·현직 기업인들로 구성된 70여 명의 비즈니스 코치를 두어 스타트업의 제품개발 방향, 회사조직 구성 및 운영, 금융네트워크 소개, 제품홍보 및 국내외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또한 창업기업에게 사무실 임대는 하지 않으며, 창업 지원 관련 기관들을 한 건물 내에 입주시켜 창업기관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공식/비공식 회의는 물론 휴식시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네트워킹, 정보 교환 및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더욱 혁신적인 창업 지원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웁살라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의 90% 이상이 시장에서 생존하였고 창업기업이 세

7) VINNOVA는 기업 및 혁신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며, 연구 및 혁신을 위한 EU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의 담당기관이다. 2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스톡홀름과 브뤼셀에 지사를 두고 있다.
8) 1952년에 북유럽 국가 간에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 협력과 유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 기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5개국이 참여하였다.
9) 1984년 웁살라 지역내 경쟁력 있는 고성장 기업 육성 목표로 추진된 창업 지원 인큐베이터.

금과 직원 급여 등으로 1년간 사회에 환원하는 투자회수지수(ROI: return on investment)는 투자금액의 13배로 알려져 있다(주스웨덴 대사관, 2015;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 2016).

Ⅱ-2-(2) 사회적 구조

20년 전부터 스웨덴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 6개월간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고용주는 오직 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직으로 인해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새로운 기업이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피고용인은 기간이 지나고서 동일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버지니아대학교의 부교수로 기업 재정을 주로 연구하는 팅 수는 무급 휴직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창업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타트업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 안정적인 전문직 커리어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주된 이유죠. 많은 국가들이 창업가들에게 보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만 커리어 상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종종 간과하곤 하죠." 라고 주장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대학 내의 프로그램 역시 스웨덴 내 스타트업 기업 확대 및 창업가 정신 고취에 일조하고 있다. 스톡홀름 부근의 다섯 대학이 모여 만든 스톡홀름 창업 대학(Stockholm Schoolof Entrepreneurship)은 창업가 정신뿐 아니라 창업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수업과 워크숍을 무상으로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내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창업에 대해 고민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인 'Campus'를 두어 실제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02년, 왕립공과대학(KTH)과 연계해 만들어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STING과 스톡홀름 경제대학(Stokcholm School of Economics)이 만든 Business Lab은 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스템 또한 잘 마련되어 있다. 실업수당, 육아수당, 부모수당, 학생수당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개인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인들에게 엄청난 동기를 제공한다.

Ⅱ-2-(3) 사회 전반적 분위기

스웨덴에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 번씩 타임오프를 갖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또한 창업 장려 육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가능하기에 나올 수 있다. 스웨덴이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얀테의 법칙(얀테 라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얀테의 법칙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서로, 오래 전부터 스웨덴에서 내려오는 겸손과 평등을 강조하는 국민정서이다. 이러한 정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이 번성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얀테 라겐은 그 반작용으로 혁신이나 창업 영역에서 한동안 스웨덴의 발목을 잡았었다. 성공해도 부를 과시하면 안되고, 나의 성공은 내가 영웅이어서가 아니라는 엄격한 가르침이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꺾었다. 그러나 이제는 얀테 라겐이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요아킴 아펠키스트 스웨덴 혁신청(VINNOVA·비노바) 부국장은 2019년 4월 25~26일 '미지(未知)의 첨단(尖端): 내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9 키플랫폼(K.E.Y. PLATFORM)'의 연사로 참여해 얀테 라겐이 어떻게 스웨덴을 스타트업 혁신 국가로 이끌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국가에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늘리면서 서서히 젊은이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얀테 라겐은 이제 오히려 실패해도 실패자라는 '낙인(stigma)'을 찍지 않는다는 것에서 젊은 창업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얀테 라겐 문화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좋은 면을 받아들이면서도 안 좋은 문화를 거를 수 있는 하나의 '필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얀테 라겐이 스타트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III. 핀란드의 스타트업

Ⅲ-1. 핀란드의 스타트업 현황

핀란드는 "대학 나오면 노키아에 취직한다"는 핀란드의 믿음이 무너졌던 노키아 쇼크[10] 이후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주도성장을 도모한 결과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했다. 핀란드 벤처투자 규모는 '16년 383백만 유로(전년 대비 +42%)로 최근 급성장 중이며 스타트업 수는 약 2,400개로 인구수 대비 세계 1위 수준이다. 특히 산학연 협업을 기반으로 정부가 선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선진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며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 하면서 기업환경 13위, 창업환경 26위를 기록(World Bank)하였다. 또한 5G TNF(5G Test Network Finland) 프로젝트[11] 등도 다수 마련되어 있다. 핀란드는 인구 1백만 명 당 스타트업 수를 기준으로 할 때, 4.05개로 6위를 기록했다(표1 참조). 슈퍼셀(Supercell)·로비오(Rovio)·크리티컬 포스(Critical Force) 등 핀란드의 대표 스타트업은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다. 그 외 스타트업 2세대로 불리는 신생 게임 기업 및 e-러닝, 비즈니스 솔루션 등의 스타트업이 산업의 주축이다.(표2 참조[12])

순위	스타트업	업종	분야
1	Supersell	온라인 게임	게임
2	Serious	온라인 게임	게임
3	Yousicia	악기연주 교육 App	교육/엔터테인먼트
4	Dealdash	온라인 유통(경매)	이커머스
5	Fingersoft	온라인 게임	게임
6	LocalBitcoins.com	비트코인	핀테크

[표2] 핀란드의 대표 스타트업

Ⅲ-2. 핀란드의 스타트업 환경-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Ⅲ-2-(1)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핀란드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표방하고 민간 부문과의 네트워킹을 강조하며 자금 부분에서 재정 조달적, 기술적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활발히 지원한다. 그 예로 정부와 민간 수출 신용기관이 설립한 특수금융 공적자금 기관인'Finnvera'는 스타트업 인수와 투자 및 자금조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창업 붐 조성을 위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디지털 라이트 하우스(Digital Lighthouse) 전략 추진 중이다. 디지털 라이트 하우스는 크게 단기, 중기, 최종 총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으로 특정 회사가 자사 연구를 사업 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핀란드 정부 산하 Business Finland(전 Finpro)[13]가 추진 중이다. 중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최종 단계인 장기적으로는 5G·가상현실·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VTT(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비자 발급 제도와 창업자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창업비자 발급 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는 무한 책임회사(1인 기업) 또는 유한 책임회사의 대표(외국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Business Finland'의 타당성 평가 합격 시 이민청을 거치지 않고 거주허가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최소 2인 이상의 창업자로 구성된 전문기술 보유해야 하고, 핀란드에서 성장 물색 중이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헌신과 궁극적으로 기업설립 의지 보유와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상당부분(60% 이상) 소유, 회사 초기단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및 재원

10) 핀란드 GDP의 24%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주력인 무선사업부를 Microsoft에 매각, 국가적으로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를 야기

11) '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1억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5세대 Gea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G 이동통신과 관련한 제반 테스트를 수행 중이며, 기술 연구 및 검증, 수직 산업 제품 개발 및 개척자 실험을 넘어 5G를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진화하는 혁신 생태계

12) Start-up100 (기술력·마케팅 능력·브랜드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

13) 핀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혁신기관으로 경제부 산하에서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조달 가능의 요건을 충족해야 창업비자를 발급한다. Business Finland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사업계획안 등 필요서류제출 뒤, Business Finland 평가 및 합격 통보, 이민청거주허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마지막으로 핀란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때 최초 체류 허가는 2년간 유효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갱신할 수 있다. 심사는 해당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 아이디어가 충족시키는 고객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지의 여부, 잠재고객과 수익모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시킬 계획의 보유 여부, 타깃 시장의 잠재성과 비즈니스 규모의 예측 여부, 해당 스타트업의 다양한 전문기술 보유 여부, 핀란드 경제에 대한 예상 기여도 등에 따라 심사함으로써 외국 인재들을 자국으로 불러모아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키웠다.

정부의 두 번째 지원제도는 보조금 지원제도이다. 신규창업자에 32.40€/일의 보조금을 지급(최장 12개월까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보조금 제도의 지원자격은 관대한 편인데, 지원 대상자는 미취업 구직자, 현재는 실업 상태가 아니나 보조금 지급 이후 유급 고용, 직업훈련, 또는 가사노동이 끝나면 풀타임 창업자가 될 자, 풀타임 창업자가 되려는 현재 파트타임 창업자 등이다. 이때 풀타임 창업자는 해당 사업에 적합한 역량과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잠재력을 보유해야 하고, 창업자의 생존에 보조금이 필수적인 상태여야 한다. 더불어, 창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Ⅲ-2-(2) 사회 전반적 분위기

'SLUSH'는 매년 30개국 이상,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이다. SLUSH는 핀란드 헬싱키 알토 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에서 거대 글로벌 행사로 발전했다. 일반 컨퍼런스와 달리, 20대를 주축으로 젊은 사람들에 의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헬싱키 내의 최대 규모의 행사장을 빌리고, 무대를 꾸리고, 행사 전체를 구상한다.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전략과 동일하게 정부와 투자자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행사인 것이다. 이 밖에도 'SLUSH'에서는 투자 상담, 부스를 통한 제품 시연, 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다양한 스타트업 성공 사례들을 접하며 자신들의 방향성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나누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문화 덕분에 핀란드가 노키아 쇼크를 이겨내고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Ⅳ. 국내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대한민국에서 '벤처열풍'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2000년대 후반 전 세계적인 모바일 혁명이 시작된 후 많은 국가에서 벤처기업 창업 열풍이 불었고 투자가 크게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금씩이나마 부침을 겪기도 했다. 창업 증가율이 꺾이기도 하고, 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가 하면 펀드 모집이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창업 열풍은 꺾이지 않았고 투자는 꾸준히 상승했으며 벤처기업 수는 나날이 늘었다. 2016년 3만 3289개에 달했던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17년 3만 5187개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3만 7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2009년 1만 9000여 개에서 9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수치만 본다면 현재 국내의 스타트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매출, 고용 등 질적인 지표들은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2년 67억 2000만 원이었던 벤처기업 1개사 당 평균 매출액은 2013년 68억 4000만 원, 2014년 71억9000만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벤처 열풍이 아직 시작되기 전인 2009년 64억 5000만 원에 비해서도 분명 늘어난 수치였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이 숫자는 거짓말처럼 꺾이기 시작했다. 2015년 69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 68억 5000만 원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64억 원으로 줄었다.

기업 1개사 당 고용하는 인원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09년 벤처기업 1개사 당 고용 인원은 평균 27명이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2011년에는 25.5명, 2012년에는 24.7명으로 줄었고 2015년 23.3명, 2016년 22.9명에 이어 2017년에는 21.7명으로 감소했다. 신규로 창

업하는 벤처기업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매출액이나 고용 인원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도 벤처기업의 영세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내 벤처업계에도 유니콘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벤처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 및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벤처기업들의 성장성이 단순히 양적인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분명히 국내 스타트업의 현실은 개선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매출과 수익성, 고용지표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내 스타트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소규모 회사들이 생존을 걱정하게 되면서 단순히 양적인 팽창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방법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선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 도전적인 스타트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정부의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의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토대로 오직 스타트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만이 아닌, 더 나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도전을 격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관대함이 사회에 존재해야 한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투자 유치에 관한 가장 많은 어려움이 실적 관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단기적인 성과가 평가 기준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보아 투자에 관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심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보고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사회제도를 살펴본 후, 이 요소들이 국내의 스타트업에 어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가 직접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복지 제도들을 살펴보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크게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스웨덴 정부의 컴퓨터 보급으로 강력한 IT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여기에 활발한 대출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창업인들이 마음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사회적 구조 측면에서는 타임오프를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와 평등과 겸손을 중요시하는 '얀테의 법칙'이 핵심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정책들 덕분에 스웨덴은 현재 세계적인 스타트업 국가로 성장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커져가는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러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칸디나비아권 사회에 다방면의 영향을 끼친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웨덴의 막강한 복지정책을 살펴본다면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국내의 스타트업 발전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인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었다. 핀란드 정부의 지원정책의 핵심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 과 민간 부분과의 네트워킹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의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위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의 네트워킹은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핀란드는 노키아 쇼크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의 스타트업 중 대부분은 현재 중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했다. 핀란드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관대한 스타트업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으로 외국의 유능한 스타트업을 국내로 불러들였다. 자국민에게는 창업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스타트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스타트업의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국내의 특성과 비교해 핀란드의 지원은 관대하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의 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고용, 매출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저조하다. 국내 스타트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이다. 창업가들이 마음껏 아이템을 내놓기 위한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스타트업의 질적 저하를 야기한다. 현재 우리나라 투자 유치의 기준인 '단기적 성과'만이 중요시된다면 스타트업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창업가들이 높은 수준의 아이템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창업에 있어 유연안정성이 필요하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고 있는 직장

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실패를 하더라도 용인하고 격려해주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

국내의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에 있어서 창업가들에게 보편적이고 관대한 지원을 펼치는 스웨덴, 핀란드의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과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적 특성과 정부의 지원 등 북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꾸준한 논의를 이어나가 우리 사회에 맞게 도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VI. 참고문헌

- 이수정, 2017, <스웨덴은 어떻게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가 되었나?>,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 성새롬, 2018,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 “스웨덴을 스타트업 강국으로 만든 휴직 제도”, BBC, 2019년 2월 9일
- “文 순방 후…북유럽에 국내 스타트업 진출 거점 만든다”, 중앙일보, 2019년 6월 10일

ZARA를 중심으로 알아본 SPA브랜드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향

Características, problemas y direcciones de mejora de las marcas SPA enfocadas en ZARA

경희 고등학교 1학년 4반 20번 이름 유민기 Yoo Minki dbalsrl2003@naver.com

초 록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의 침체로 젊은 세대를 포함한 소비자의 입장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옷을 구매하려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입장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쉽게 구매하고 쉽게 바꿀 수 있으며 쉽게 폐기할 수 있는 패스트 패션, 즉 SPA브랜드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SPA브랜드들의 특성과 성공요인 등을 SPA브랜드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ZARA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또한 SPA브랜드의 대규모화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보고 있다.

Abstract

Recientemente, con el aumento de los hogares de una sola persona y la recesión económica, los consumidores, sobre todo, de la generación más joven, ha cambiado su postura en el momento de comprar: Ellos optan por la ropa de calidad a precios razonables. Debido a estos cambios en la posición del consumidor, la moda rápida que se puede comprar y tirar con facilidad está experimentando un incremento virtiginoso en varios países, incluso en Corea. Este estudio investiga los elementos característicos y los puntos decisivos para su éxito tomando Zara de España, pionera de la marca SPA, como referencia. También observamos los problemas y las soluciones que se han planteado junto con la expansión de la marca SPA.

I. 서론

질보다 양인가 양보다 질인가. SPA브랜드는 이에 적당한 질, 많은 양이라고 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높은 품질의 의류를 구입하고, 오래 입는 것을 지향했다면, 현대의 소비자들, 경제의 침체와 1인가구의 증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 소비자 층들의 합리적 소비기준은 바뀌었다. 이제는 높은 가격의 높은 품질이 아닌, 조금은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기준에서 값이 적당한 옷을 구입하고, 낡으면 쉽게 버리고 새로 구입하거나 낡지 않아도 유행에 따라서 새 옷을 사는 소비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 흐름의 변화는 SPA브랜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SPA와 비슷한 개념으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패스트 패션을 SPA브랜드의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SPA브랜드의 패스트 패션은 단지 낮은 가격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끈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연구는 패스트 패션을 주도하는 SPA브랜드의 특징, 비즈니스 전략, 국제마켓팅 성공전략 등을 SPA브랜드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ZARA'라는 브랜드의 모습을 중심으로 SPA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브랜드들과 비교하며 알아본다. 이렇게 수년 사이에 급부상한 SPA브랜드, 패스트 패션은 단순히 사랑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류의 대량 공급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공급과정에서의 아동노동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PA브랜드,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II. SPA 브랜드란?

(1) 1. SPA 브랜드의 정의

SPA브랜드란,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의 약자이다. 사실 이 SPA브랜드라는 용어는 일반적 학술용어라기보다는 주로 한국과 일본 등의 패션 유통업계에서 부르는 용어이다.[1] 이를 직역하면 개인 라벨 의류 브랜드 전문 매장 소매점 이라는 뜻이 된다. 이는 자사의 기획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을 뜻한다. SPA브랜드의 특징은 전문 소매점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어 대량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여 제조원가를 낮추고,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이다. 이처럼 자사 브랜드의 상품의 기획 및 개발, 생산, 유통, 판매까지의 전 활동을 모두 통합하는 프로세스의 혁신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유행에 따라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가 반영되어 빨리빨리 변하는 패션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른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 의하면, 패스트패션은 2004년 외국어 표기 신어로 등록되었으며 유행에 따라서 빨리 바꾸어 내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패스트푸드에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문화 계층이 다양함에 있어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감지하는 대중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패션현상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일시적인 것에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동원되는 대중 패션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다.[2]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글로벌SPA브랜드들은 아래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김주헌, 이상윤. (2009). 글로벌 SPA 의류 브랜드의 한국시장 진출 : 유니클로(Uniqlo)와 자라(Zara). 국제경영리뷰, 13(4), 271-297.

2) 노주현, 김민자. (2009). 패스트패션(Fast Fashion)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 복식, 59(3), 27-41.

[그림 1]

III. 스페인의 SPA 브랜드 ZARA

(1)ZARA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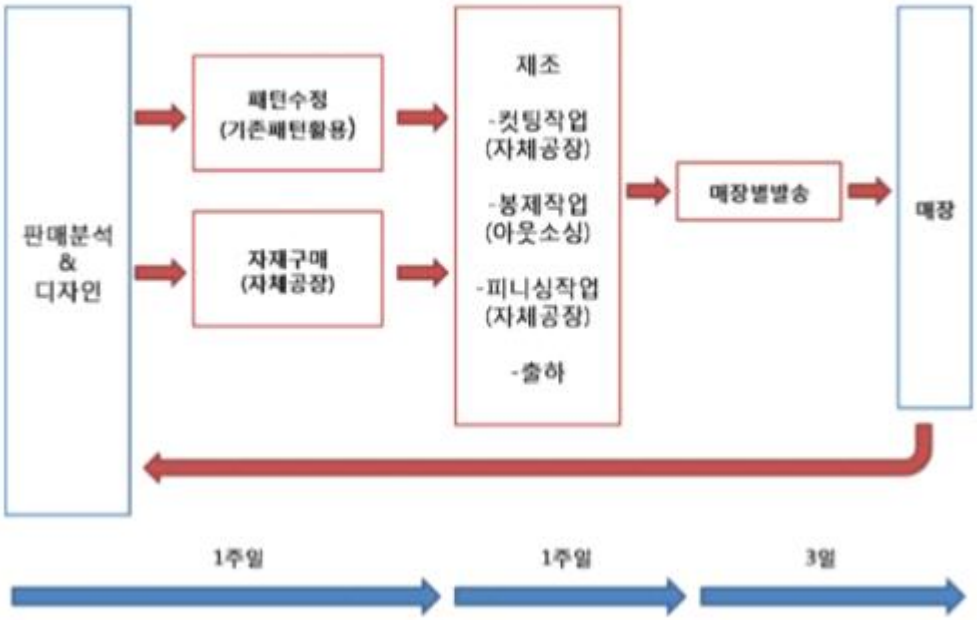
ZARA는 1975년 스페인에서 인디텍스그룹의 회장인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설립한 패션브랜드이다. 자라의 이름은 자라의 설립자인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크게 감명 받은 그리스영화 '희랍인 조르바(Zorba the Greek)'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매장 오픈 당시,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그리스 영화 '희랍인 조르바(Zorba the Greek)'에 매료되어 매장 간판을 '조르바(ZORBA)'로 만들었다. 하지만 매장에서 두 블록 떨어진 술집에서 이미 이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접하고, 그는 조르바라는 이름에서 알파벳 'O'와 'B'를 빼고 'A'를 더해 '자라(Zara)'로 변경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고급 브랜드의 디자인을 차용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제작했으나 신생 브랜드로서 자라는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없었다. 이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차별화 요인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이를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관례를 깨는 새로운 사업 전략을 구상했다. 기존 의류 브랜드의 리드타임(Lead Time,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5~6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각 브랜드들은 연간 2, 3번 정도의 컬렉션을 생산했고 매 컬렉션은 소비자의 니즈를 앞서 예측하여 기획되었으며 예측의 불확실성은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자라의 리드 타임을 짧게 단축시켜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를 파악한 후 재빨리 원하는 의류를 제작해 제공하는 '패스트 패션' 시스템을 구상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리드 타임을 최대한 단축하려면 생산과 유통을 직접 관할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생산 설비와 유통망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는 갈리시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 내 소규모 생산공장을 흡수해 생산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했다. 또한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마드리드(Madrid)와 라코루냐를 연결할 유통망을 확보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보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누나의 사위인 호세 마리아 카스테야노(José Maria Castellano)를 영입했다. 당시 호세 마리아 카스테야노는 아혼(Aegon, 네덜란드의 보험회사)사의 스페인 지사에서 데이터처리(Data Processing)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그를 외부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자라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2) ZARA의 특징

ZARA의 기업철학은 Good Design & Good Quality at Good Price 이다. 이는 자라의 기본 전략인 '값싸고 트디 (trendy)하고 발빠른 아이템 순환'이라는 기본 원칙을 잘 나타낸다. 이는 역시 SPA 브랜드들의 전형적인 전략방향에 잘 부합된다. ZARA는 이에 입각하여 '소비자에게 잘 팔리는 품목을 빠른 속도로 유통시키고 재고량은 최소화시키는 스피디한 유통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다.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디자인-생산과정-유통'의 수직계열화, 그 중에서도 디자인 과 생산과정의

수직 통합은 인디텍스 사업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의 하나다. 생산과정의 수직계열화와 조직의 유연성은 빠르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수 있도록 한다. 자라는 모든 제품의 60% 정도를 인하우스(In-House)방식으로 조달함으로써 최신의 트랜드를 15일 정도에 상품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자라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체제



[그림 2][3)]

일주일에 2회 신상품을 세계에 투입할 수 있는 고속 생산이 가능하다. 스페인 본사에는 축구장 크기의 90배에 달하는 50만 평방미터에 완전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갖춘 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상품을 각국의 포별로 구분해 그 다음 주 목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세계에 출고시키고 있다. 생산과 물류의 자체 처리는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을 모두 외부에 의뢰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불량 납품지연 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공한다. 심지어 원단의 40%에 달하는 물량을 직접 제조하여 계열사를 통해 염색 작업을 수행할 정도다.

(3) ZARA의 전략

자라는 한국 매장을 전세계 매장과 동일한 매뉴얼대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백화점 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에 스페인에서 집기를 공수해 사용하는 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기위해 투자비 지출을 많이 한 편이다. 사실 자라의 경우 고급 백화점 입점은 한국이 거의 최초인 셈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은 자라의 특징적 전략 중의 하나다. 그만큼 제공되는 제품믹스의 구색이 다양하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신상품 교체주기는 새로운 트랜드와 희소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자라는 빠른 교체주기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방문 고객의 구매를 자극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국에 글로벌 SPA 랜드 도입이 확장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시장으로 보고 있는 한국시장에 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개성 있고 패셔너블한 브랜드'라는 이미지와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가격 이외의 마케팅 전략은 기본으로 글로벌 표준화전략을 지향한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본사의 일관된 마케팅 전략을 세계 매장에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광고나 홍보의 주제는 일관되지만, 매체는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하는 편이다. 자라는 한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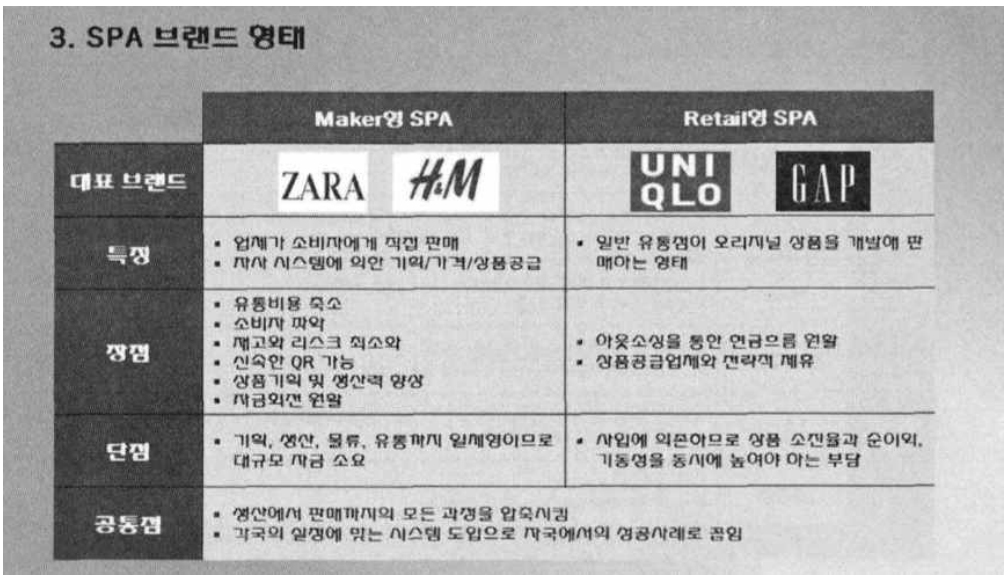
3) 김주헌, 이상윤. (2009). 글로벌 SPA 의류 브랜드의 한국시장 진출 : 유니클로(Uniqlo)와 자라(Zara). 국제경영리뷰, 13(4), 271-297.

승시키기 해 최근 버스 래핑(wrapping) 광고를 시작했다

(4) ZARA와 UNIQLO

대표적인 글로벌 SPA브랜드로 한국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니클로와 자라는 SPA 브랜드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차별적인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두 브랜드 모두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수직계열화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와 빠른 스피드를 구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체로 시작한 자라(인디텍스)는 자체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판매점으로 시작한 유니클로(패스트 리테일링)는 의류 제조의 부분을 파트너형 협력 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쉽게 말해 ZARA는 Maker형 SPA의 대표브랜드, UNIQLO는 Retail형 SPA브랜드의 대표브랜드 라고 말할 수 있다. Maker형의 특징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것과 자사 시스템에 의한 기획/가격/상품공급을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Maker형의 장점으로는 유통비용의 축소, 소비자 파악, 재고와 리스크 최소화, 신속한 QR기능, 상품기획 및 생산력 향상, 자금 회전 원할 등이 있다. 하지만 기획, 생산, 물류, 유통까지 일체형이므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Retail형의 특징은 일반 유통점이 오리지널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아웃소싱을 통한 현금흐름 원활, 상품공급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있다. 하지만 사업에 의존하므로 상품 소진율과 순이익, 기동성을 동시에 높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두 형태의 SPA 브랜드의 공통점은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압축시킨다는 것이다.

기본 전략에서 두 브랜드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역시 취하는 품목 수와 품목당 생산량이다. 자라는 최근 기본형 스타일의 의류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원칙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한다. 최신의 스타일과 트랜드를 수시로 반한 한정된 수량의 옷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니클로는 패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기본형 스타일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지향한다. 유니클로의 주요 제품은 디자인을 부각시키지 않는 베이직한 스타일이라 10~50 연령층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라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원가 구조의 원인이 된다. 유니클로와 제품구성이나 목표시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격수준이 다소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유니클로는 상대적으로 가격과 매장확대 전략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3] SPA브랜드 형태[4)]

IV. SPA브랜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임채숙, 이민상. (2013). SPA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13-226.

(1)문제점

SPA브랜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의 부재이다. 먼저 환경오염 부분을 보면, 소비자와 기업 두 부류로 원인을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비자의 문제점을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한 철 입고 버리는 Fast Fashion 소비형태이다. 물론 모든 소비자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SPA브랜드의 의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트랜드에 맞추어 싼 값에 의류를 구입하고, 쉽게 버리는 소비성향을 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류의 대량 공급과 대량 폐기에 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5] 마찬가지로 기업은 더 싸게, 다양하게 만들다보니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기량이 발생한다. 사회적 책임의 부재라는 말은 기업의 책임을 지칭하는 말이다. SPA브랜드 경쟁에서 제품가격의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소규모 중고 상인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와 비슷하게 SPA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SPA브랜드를 포함해 여러 의류분야를 장악하게 된다.

(2)개선 방향

패스트 패션의 특성상 의류 폐기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을 유발하는 SPA브랜드들은 로하스(LOHAS)개념을 도입하여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로하스란,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웰빙에 사회와 환경을 추가해,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생활방식 또는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로하스의 개념은 환경과 미래에도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사회적 웰빙'이라는 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는 웰빙과 차이가 있다. 즉, 개인의 웰빙을 뛰어 넘어 사회가 함께 웰빙하자는 이른바 사회적 웰빙을 뜻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표적 활동에는 재활용 캠페인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는 2006년 세계 최초로 '로하스인증' 제도를 도입,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이며 사회 공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 등에 인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미지 또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방향제시

본 연구는 SPA브랜드의 특징, 전략 등을 SPA브랜드의 선구주자라고 불리는 글로벌 SPA브랜드 스페인의 ZARA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 또한 SPA브랜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또한 함께 보고 있다. SPA브랜드 시장이 계속하여 커지고 있음에 따라 많은 신생 SPA브랜드들도 생겨나며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기업과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PA브랜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까. 먼저 첫 번째로는 SPA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고 트렌디한 디자인이지만, 저렴한 가격, 뛰어난 품질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이어나가야 한다. 트랜드 변화와 낮은 가격에 중심을 두고 있음에 따라 주 고객층은 어린세대가 될 것이다. SPA브랜드들은 이에 맞추어 1.20대에 초점을 두고 많은 제품을 출시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 어린 고객층에 초점을 두되, 그들만을 위한 브랜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SPA브랜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패션을 추구해야하므로 고객 연령층은 다양하게 유지해야한다. 또한 너무 트랜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사 브랜드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자사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고유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저렴하지만 합리적인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타사와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해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조금 더 고급화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5) 한은주, 김지영, 권수애. (2013). 패스트패션 구매자의 쇼핑성향과 의복 폐기 행동.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196-196.

스페인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of Spanish Language
Estudio de historia española

경희고등학교 1학년 6반 30번 최정민 Choi Jeong Min cjm0334@gmail.com

초 록

이베리아 반도는 역사적으로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에 접촉이 있었다. 그 중 로마는 스페인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스페인어의 변화 과정은 크게 로마가 스페인을 지배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로마의 영향 이후로 스페인은 아랍의 지배를 받았고, 이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 1713년에 설립된 스페인 한림원이 스페인어의 정서법 등을 정리하게 된다. 스페인어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은 발음, 문법, 단어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다른 언어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나타난 차용어로 인한 외래어의 흔적도 볼 수 있다.

Abstract

La Península Ibérica ha tenido varios contacos con otros países a lo largo de la historia. Entre ellos, Roma ha desempeñado un papel importante en la formación del idioma español hasta que puede dividirse antes y después de Roma. Después de la influencia de Roma, España estaba bajo el control del árabe, y en el proceso de independizarse de él, el idioma español comenzó a formarse. Desde entonces, la Real Academia Española, establecida en 1713 desde el comienzo de los tiempos modernos, ha compilado la ortografía española. Se muestra de varias maneras, como la pronunciación, la gramática, la forma de las palabras, etc., que ocurrieron durante el proceso de cambio de español. También puede ver rastros de palabras extranjeras en términos prestados que se muestran por contacto con otros idiomas.

I. 서론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발달 과정을 어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페인은 단일 민족에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와는 달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여럿 거쳐 가면서 스페인어 형성에 기여했다. 따라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경우 스페인어의 모체가 되는 라틴어를 비롯하여 아랍어와 같은 다양한 언어의 흔적들을 접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스페인 역사 시기를 따라 언어적 변화가 남긴 어휘적 흔적을 모아 스페인어 자체의 역사에 접근하고자 한다. 스페인어와 역사를 연결하는 창의적 방식을 통해 본 연구는 스페인어 어휘 학습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스페인 약사

역사 속에서 국가는 다른 나라와 접촉하게 되고 그 접촉에 의해 다른 나라의 문화 등이 그 언어에 녹아들게 되므로 스페인의 역사를 아는 것이 스페인어의 변화를 아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재 스페인이 위치한 곳은 서유럽에 존재하는 이베리아 반도이다. 기원전 80만 년 즈음에 인류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10세기까지는 이베리아 반도 지역을 페니키아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기원전 6세기에는 카르타고인들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민족의 유입으로 이베리아 반도는 페니키아,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아랍 비시고도족 등의 문화, 언어, 민족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후 기원전 2세기에 세력을 확장한 로마가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세력을 잡고 있던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로마가 이베리아 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로마는 6세기동안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였지만 이후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 여러 차례 타 민족의 침입을 받아 로마는 결국 쇠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베리아 반도를 침입한 서고트족은 5세기 중엽에 서고트 왕국을 세웠지만 봉건제도의 확립 과정 중 8세기에 이슬람 왕조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이슬람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를 약 8세기동안 지배하였으나 지배 기간 동안 이슬람 왕조의 말미에 이베리아 반도의 북서쪽에 존재했던 기독교 왕국들이 국토 회복 운동 (Reconquista, 재정복/탈환)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지에 소규모의 왕국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아랍에 맞서 각각의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왕국 중 카스티야 왕국은 국토회복전쟁 중 주변국의 언어들을 흡수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 카스티야어를 형성, 스페인어의 시초가 되는 언어를 만들게 된다.

16세기 중반에 스페인은 전성기를 이루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모직물 공업이 네덜란드와 영국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파견된 '무적함대(Armada Invicible)'의 대패와 30년 전쟁, 스페인 계승전쟁으로 인해 스페인은 더욱 침체되었다. 이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8세기 후반에 스페인은 국가체제 재건을 계획하였다. 이후 스페인은 잠시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나서 알폰소 12세의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1885년 알폰소 12세의 요절 이후 20세기 초반에 현대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몇 차례의 내전 끝에 현대 스페인이 되었다.

III. 스페인어의 형성 과정

1. 로마화 이전

스페인어의 형성 과정은 크게 로마화 이전과 로마화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스페인어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형성되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로마화 이후 바스크어만이 사용되어 왔지만 기존의 언어들은 스페인어에 음성적/음운적, 문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음성적 특징

바스크어는 현대 스페인어에 5모음 체계를 남겼다. 라틴어의 어두 자음 [f-]가 없어졌으며 v음 역

시 상실되었다. 켈트어의 경우, 라틴어 이중자음 [ct]가 [ch]로 변화되는 영향을 주었다. (nocte -> noche, 밤)

(2) 어휘의 형태

이베리아어나 바스크어가 -orro. -arro, -urro(명사나 형용사의 약어 형성) 등의 접미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리구르어도 /-asco/, /-osco/, /-usco/ 등의 발음(예시: peñasco, 큰 바위), 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일부 어휘들은 로마화 이전의 언어에서 기원하였다. 이것의 예로는 páramo(황무지), barro(진흙), manteca(버터), nava(나무가 없는 평지), vega(평야) 등이 있다.

2. 로마화 이후

로마화 당시 라틴어는 바스크어를 제외하고 모든 언어를 지배하여 바스크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은 이것의 영향을 받았으나 반대로 바스크어 이외의 언어들이 라틴어에 영향을 준 경우도 존재한다. 이후 게르만족이 유입 당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들은 행정,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이런 분야에서 사용하였던 언어도 유입되어, 앞서 언급된 분야 이외에도 법률, 지명과 인명 등에 관한 어휘가 흡수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라틴어의 강세모음 [e], [o]가 이중모음이 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아랍 지배 당시 아랍 민족의 스페인어에 대한 영향은 매우 컸는데, 현대 스페인어에 아랍어에서 차용된 어휘가 4000개, 전체 어휘의 약 7~8%를 차지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만큼 아랍어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아랍어 자체에도 차용 어휘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아랍어는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뉘며 서부에는 (1) 아람어, (2) 그리스어, (3) 라틴어, 동부에서는 (1) 파흘라비어, (2) 페르시아어, (3) 산스크리트어가 속한다. 아랍어에서 차용된 어희는 대부분 아랍어 이전의 단어에서 그 단어가 아랍어로 차용된 뒤, 다시 그 어휘에 아랍어의 관사가 붙어 스페인어 어휘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스페인어의 아랍어 차용 어휘를 보면 a(l)-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아랍어의 관사(an- 또는 al-)이다. 이중 서부에서 유래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1) 아람어: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600년경까지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이다.

aceite (기름, 올리브유): 아람어 zaytā에서 유래하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azzáyt로 변화되었다.

aceituna (올리브 열매): zaytā의 축소사인 zaytūnā에서 유래되었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관사가 붙은 형태 azzaytúna가 되었다.

(2) 그리스어

acelga (근대): 그리스어 Σικελή[Sikelí]에서 유래되었다. 이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assílqa로 변하였고 관사가 붙었다.

adarme (아다르메: 중량의 단위, 1.79g) δραχμή [drachmí] (Dracma)에서 유래되었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addárham로 변화되었다.

(3) 라틴어

alcázar (성) : castra에서 유래되어 아랍어 qaṣr로 변화, 후에 관사 al-이 붙어 형성되었다.

almendra (아몬드): amygdala에서 유래하였다.

다음은 동부에서 유래된 어휘의 예이다.

1) 파흘라비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용어였다.

jazmín(자스민): yāsaman에서 유래하였고 '신의 선물'이라는 의미이며 아랍어 yāsamīn을 거쳤다.

azúcar(설탕) : šakar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이 그리스어 σάκχαρι를 거치고 고전 아랍어 sukkar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의 아랍어에서 assúkkar로 변하였다.

azogue(수은) : zīwag에서 유래되었다. 고전 아랍어 zāwq 또는 zā'ūq을 거쳐 이베리아 반도 아랍어에서 관사가 붙어 azzáwq가 된 후 변화하였다.

2) 페르시아어: 고대에는 쐐기 문자로 기록하였고, 근대 페르시아어는 7-9세기경 형성되었다. 아람 문자의 일종인 페르시아 문자를 사용하였다.

alubia(강낭콩, =judia): lubeyā에서 유래하였고, 이후 고전 아랍어 lúbiyā'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의 아랍어에서 관사가 붙어 allúbya로 변화하였다.

berenjena(가지): bātingān에서 유래되었다. 고전 아랍어 bāḍinğānah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 아랍어에서 baḍinğána로 변화하였다.

talco ([광]활석) : talk에서 유래된 어휘이다. 고전 아랍어 ṭalq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 아랍어에서 ṭálq가 되었다 talco로 변화되어 정착하였다.

tambor (북): tambir에서 기원된 어휘로 아랍어 tambur를 통해 유입되었다.

3) 산스크리트어: 인도유럽어족 인도이란어파, BC 4C경 문법학자 파니니가 인도 서북 지식계층의 언어를 기초로 하여 체계 완성

cero (0): 고전 아랍어 ṣifr가 어원이고 '비어 있는'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이베리아 반도 아랍어에서 ṣífr로 변했고, 후기 라틴어로 들어가 zephyrum이 되었다. 스페인어 cero는 이탈리아어 zero에서 차용한 어휘이다.[1)]

이전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회복전쟁 시기에 카스티야어가 형성되게 된다. 국토회복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2세기에는 El Cantar de Mío Cid (시드의 노래)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스페인어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12세기 이전까지 구전되다가 12세기에 글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당시 스페인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ue, uo(fuont-fuente; puont-puente)와 같이 이중모음 혼용.
2) 축소사 사용이 적음(-iello).
3) 어휘의 마지막 모음 탈락(muert, tien, noch, buen, diom).
4) 조합된 표현들의 존재(gelo(se lo), nimbla(ni me la), nul(ninguno), al(otro), maguer(aunque), ca(porque))
5) 복합시제에서 과거분사가 직접목적격과 성, 수 일치("cercados nos han")
6) 같은 시점에서의 시제 혼용("embraçan... enclinaron... ívanlos... mataron... fazen...")

아랍의 지배 이후 카스티야 왕국의 카스티야어가 스페인어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카스티야 왕국의 카스티야 민족은 산악지방에 위치해 그 성향이 거칠고 독립적이어서 그 언어 또한 라틴어에 기반을 둔 다른 로망스어군 언어들과 다른 특징을 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라틴어 어두자음 f-의 기식음화 및 상실(facere 〉 hacer(만들다/하다), farina 〉 harina(가루))
2) [li+모음]의 j 교체 (muliere 〉 mujer(여성), filiu 〉 hijo(아들/딸), conciliu 〉 consejo(의견, 충고))
3) 비강세모음 e, i 앞의 어두자음 g, j의 상실(jenuariu 〉 enero(1월), gelare 〉 elar(helar) (얼리

1) 아랍의 스페인 지배 시기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강국(2015), "아랍 기원 스페인어 어휘들의 원(原") 어원 분석을 통한 문화전파 흔적 연구", 중남미연구, 34(1), 29-52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다))

4) 중간 자음 -ct-, -ult-의 ch 교체(lectu 〉 lecho(침대), lacte 〉 leche(우유), multu 〉 mucho(매우), cultellu 〉 cuchillo(칼))

5) 라틴어 자음군 sci-의 z 교체(asciata 〉 azada(곡괭이))

6) 강세모음 e, o의 이중모음화(ie (terra 〉 tierra(지구)), ue (porta 〉 puerta(문)))(예외: oculu〉 ojo (눈), lectu 〉 lecho(침대), nocte 〉 noche(밤))

7) 어두자음군 pl-, cl-, fl-의 ll- 교체(pluvia 〉 lluvia(비), clamare 〉 llamare(llamar(부르다)의 3인칭 단수 미래 가정형), flama 〉 llama(llamar의 3인칭 단수형)

이후 알폰소 10세가 즉위하던 시기에는 스페인어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1) 어휘의 마지막에 나오는 모음 -e 상실(mont/monte(산), trist/triste(슬픔에 잠긴))

2) 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어휘삽입의 증가(se de mi partió)

3) 동사 2변화형의 분사형태로 -udo 사용(tenudo, sabudo)

4) 미래형에서의 중간모음 생략 (recibrá, vivré, comré)

5) 종속절을 인도하는 접속사의 증가(si quier, comoquierque, aunque, para que)

6) 접속사 et, que의 반복적 사용

7) 많은 신조어의 유입(horizón, húmido(습한), septentrión(북쪽) 등)

18세기에는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ía Española)이 설립되어 스페인어 전반의 틀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스페인 한림원은 정서법(正書法, 언어를 표기하는 바른 방법)에 관한 많은 책들을 출판하여, 스페인어의 문자 체계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한림원이 이 당시 확립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ss는 단자음 s로, ç는 z, c로 교체한다(za, zo, zu, ce, ci).

2) x와 j의 음을 달리하고, 오늘날의 [ks] 음가를 가진다(exposición(전시회), examen(시험)).

3) b, v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음구분이 사라지고 양순음으로 발음된다.

4) z + a, u 또는 c + e, i는 치간음[ɵ]으로 발음된다.

5) 모음 사이의 i는 y로 반자음화된다(raia 〉 raya(선, 줄)).

6) 라틴어 형태인 qua-, quo-를 cua-, cuo-로 교체한다(cuarenta(40), cuota(몫)).

7) ph 〉 f, ch 〉 c로 교체한다(física(물리학), teología(신학), cristo(구세주, 예수)).

8) 일부 라틴어 자음(-pt-, -gn-, -mn-, -xc-)은 유지한다(concepto(개념, 의견), digno(위엄이 있는), solemne(장엄한), excelente(우수한)) (일부 -ct-가 사라진다(fruto(열매), luto(상장(喪章)), auto(판결, 판정))).

IV. 결론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변화 과정을 그 역사에 관련지어 알아보았다. 스페인어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주변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문법적인 특징이나 형태론적 특징이 주로 변화하였다. 모음과 자음을 비롯한 음성적 변화, 철자상의 변화, 신조어의 유입과 같은 스페인어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이할 만한 발견 결과는 스페인어가 영어와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z의 발음 같은 경우 초기 ss에서 변화된 것으로 본 연구 결과, 주로 영어를 먼저 학습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경우 스페인어 발달 과정과 함께 설명할 경우 더욱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라틴어에서 파생된 스페인어와 같은 프랑스어나 이태리어, 나아가 영어에 이르기까지 어휘 학습에 라틴어가 기본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역사적인 특징으로 인해 아랍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고, 아랍어는 언어적으로도 거리가 매우 먼 언어이지만, 스페인어를 통해서는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향후 가능하다면 문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교통재해 대응 비교

—항공과 철도를 중심으로—

韓国と日本の交通災害の対応の比較

—航空と鉄道を中心に—

경희고등학교 1학년 5반 2번 이름 김범진 Kim beom jin kimbeomjin9347@gmail.com
경희고등학교 1학년 5반 23번 이름 조경모 Jo kyung mo rudah8261@gmail.com

초 록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추돌 탈선사고와 JR서일본의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와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항공, 철도 홈페이지에 기재된 교통재해 시의 예방 및 대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부족한 대응책의 보완점을 찾아보았다. 보완해야 할 점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 상황에서 그저 시민들의 태도만 안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교통기관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추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Abstract

上往十里駅の列車衝突による脱線事故とJR西日本の福知山線の脱線事故、そして、大韓航空の801便の墜落事故と日本航空の123便の墜落事故をそれぞれ比較して分析した。そして、韓国と日本の航空や鉄道ホームページに記載されている交通災害時の予防および対策を比較して韓国の不足している対応策の補完点を考察した。補完すべき点は地震等の自然災害の状況であり、ただ市民の対応態度だけが案内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である。

I. 서론

2014년 4월 16일,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돌아올 수 없는 수학여행이 되었던 세월호 사고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도하며,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응책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교통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연구를 진행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교통시설이 발달하였고 교통시설을 사용한 이력이 우리나라에 비교해 길어 더 많은 교통재해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는 철도 부설권을 얻어서 우리나라의 경부선(서울-부산),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서울-원산), 호남선(용산-목포), 경의선(서울-신의주) 철도 등의 경우는 직접 부설하였다. 철도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포공항(여객)과 서울공항(군사)으로 그 기능이 이동된 여의도공항도 설치하였다. 목적이 비록 군수 물자 수송과 수탈이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통의 기틀을 다진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교통재해를 해결하고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지 알아보려 한다.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을 조사해 보고 그 둘을 비교해 더 나은 대응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양국의 교통 누리집에 첨부된 시민이 대비해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운영 주체가 대비해야 할 안전수칙을 비교하겠다.

II. 한국의 교통재해

1. 한국의 교통재해 사례

(1) 철도교통(지하철) :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 사고 2014년

2014년 5월 2일(금), 서울메트로 2호선 내선을 운행하는 선행열차가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시(15:23:00)보다 4분 46초 늦게 도착(15:27:46)하여 승객 승하차를 완료하고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 PSD[1] 열림 표시로 인해 2회 반복 여닫고 PSD 바이패스[2] 조치하느라 정차시간 (1분 46초)을 초과하였다. 기관사와 차장이 PSD닫음 조치하고 열차를 출발하여(15:29:40) 약 4m 정도 진행하던 중(속도 7㎞/h), 후속열차가 상왕십리역으로 진입하여 추돌하였고, 선행열차는 추돌지점에서 약 19m를 더 진행하고 정차되었다. 후속열차가 신당역을 출발하여(정시 15:28:00, 실제 15:28:51) 상왕십리역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폐색신호기 중 ③번과 ②번 신호기는 진행신호(녹색, Green)로 현시되었고, 상왕십리역 ①번 장내신호기는 정지신호(적색, Red)로 현시된 상태였다. 후속열차 기관사는 상왕십리역으로 접근하면서 우곡선 터널(R=500)의 ①번 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적색, Red)로 현시된 것을 확인하고(가시거리 134m) 즉시 비상제동 및 보안제동을 순서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약 140m 진행하고 속도 15㎞/h에서 선행열차를 충돌하고 6m정도 더 진행한 후 정지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중상자 22명 경상자 68명이 발생하였고, 경미한 통원환자 387명으로 총 477명의 인명 피해가 집계되었다 충돌로 인해 전동열차가 239편성이 6량과 212편성이 7량의 차체굴곡 등 손상이 있었고 탈선으로 인해 궤도의 콘크리트침목(판넬형 7개 체결구 14개 및 게이지블럭 5개 파손 등으로 물적 피해액이 총 28억 2천 6백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3]

(2) 항공교통 :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1997년

대한항공(주)은 본래 괌 항로에 유럽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에어버스 A300기를 운항하고 있었으나, 휴가철을 맞이하여 승객이 증가하자 그 수용을 위해 보잉 747을 투입하였다.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블랙박스(비행기록장치)를 분석 중이라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탑승자는 승무원 4명, 미국인 20명, 일본과 뉴질랜드인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254명이었다. 탑승자 중 생존자는 26명, 사망자는 228명이다.

---

1) (Platform Screen Door) 전철 승강장 위에 선로와 격리되는 고정벽과 가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되도록 하는 승강장 안전 지원 장치 또는 그러한 시스템

2) 신호를 전달해서 목적하는 회로를 통하지 않고 신호를 전달하는 것

3)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 조사보고서 (2014)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가 난 니미츠힐은 정글을 방불케 하는 산악지대의 언덕으로, 대한항공 801편은 착륙을 앞두고 활강하던 중 활주로에서 남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왼쪽 날개 바깥쪽 1번 엔진이 언덕의 나무와 충돌하여 미끄러지면서 솟아오른 뒤 480m 아래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대파되었고, 이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아가냐 공항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착륙 유도장치인 글라이드 슬로프(glide slope)가 고장 난 상태였으며, 태풍 티나호의 영향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기류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착륙 유도장치의 고장은 기장이 이미 알고 있어 오토파일럿으로 최소고도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하강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상조건도 시계 8km 정도여서 시정거리가 충분하여 사고의 주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사고기는 1997년 7월 7일 감항(堪航: 비행능력) 검사를 받아 정상판정을 받았으므로 정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조종 실수 또는 기체의 결함 중 하나로 모아졌으며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음성정보 입력기의 일부를 해독한 상태에서 사고 원인을 '착륙 과정에서 관련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한국의 교통재해 사전 대비책

(1) 철도교통(지하철)

철도 교통의 사고시 승객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승무원의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탈출할 시에는 교량, 지하구간 등 열차사고 지점에 따라 더 위험할 수 있다. 열차 탈출 안내방송 시 출입문 옆 비상열림장치의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주어진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고 주변 확인을 한 후에 출입문을 양쪽으로 열어 개방한 후에 탈출해야 한다. 안내방송과 직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지하철 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지진 시에 지하철에 타고 있을 경우에 큰 충격이 닥쳐올 수 있으므로 손잡이 등을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차내 방송 등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한다. 지하철 안은 비교적 안전하다. 지진이 발생하여 지하철이 정차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다. 열차 내 정전 시 바로 차내에 비상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출구로 뛰어나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며, 큰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하철 역사에 있을 경우에 정전이 되더라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역사 안내방송이나 역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한다. 지하철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역무실에 연락해서 구조를 요청한다. 지진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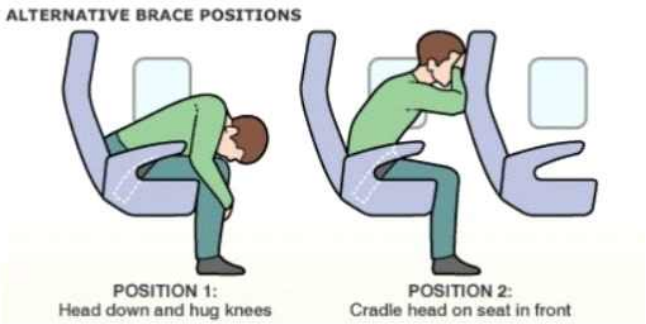
지하철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으로는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하는 것이 있다.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열고, 여의치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깬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을 경우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바를 밀고 나간다.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 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가야 한다.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 방향 터널로 대피해야 한다.

(2) 항공교통

승객의 비행기 사고 대처 요령으로는 기내 안전수칙 방송을 경청하는 것이 있다.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된다면 몇 개의 문으로 수백 명의 승객이 수십 초 이내에 탈출해야 한다. 따라서 승무원의 지시에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승객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비행기는 수천 미터의 상공에서 날기 때문에 스스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폭발하면 외부로 빨려 나가게 되고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사고 후 평균 90초 안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므로 '골든타임 90초'를 지켜야 한다. 비상탈출 시에는 승무원이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한다. 비상탈출 실험을 하였을 때 존댓말로 비상탈출을 한 경우에는 1분 44초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반말로 명령하듯 비상탈출을 한 경우에는 1분 11초가 소요되었다. 사람들이 존댓말로 하였을 때보다 반말로 명령하듯이 말했던 경우에 비상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었다. 수상에 떨어졌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한다면 착륙하고 기체 밖으로 탈출하기 전까지 절대 구명조끼를 미리 부풀려서는 안된다. 침수된 기체에서는 구명조끼를 미리 부풀리면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비정상적 착륙 시 최대한 낮춰 몸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맸어도 벽에 부딪혀 다칠 수 있거나 사망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이다.



충격 방지 자세[4)]

항공조종사의 사고 발생 시 메뉴얼[5)]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고 발생 시 조종사의 우선 조치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때 조종사로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의 안전 및 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속한 항공사 및 협회에 사고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 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첫 보고를 받는 시점부터, 조종사가 부당한 비난 또는 형사책임 추궁 등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종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사고 직후에 조종사는 ALPA-K 긴급전화나 소속 조종사노동조합에 최대한 빨리 연락해야 한다.

연락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발생일시, 장소, 비행기 번호, 승무원 성명, 승객수, 사상자 유무, 사고 개요 (비행상황, 기상상태, 손괴정도), 조종사가 있는 곳, 사용전화번호, 차후 행동예정이 있다.

조종사는 이상을 느끼지 않아도 병원에 가 진찰받아야 하며, 기기/스위치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조치(화재, 탈출)외에는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활주로 상태, 기상 특별관측을 요청해야 한다. 최대한 사실 정보(사진/증언) 입수에 노력해야 한다. 기상상태, 활주로 상태나 특이한 기체의 움직임 등에 관련된 기억을 정리해야 한다. 승무원 상호 간 기억을 정리하고 기록(메모)을 작성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II. 일본의 교통재해

1. 일본의 교통재해 사례

(1) 철도교통 : JR서일본 후쿠치야마선(福知山線) 탈선사고(Violation)

2005년 4월 25일 오전 9시 20분경 JR 서일본 후쿠치야마선 7량 편성의 쾌속 열차가 5량이 탈선되어 맨 앞의 2량이 전복되면서 선로 옆 고층 아파트 1층과 충돌하였다. 메이신 도시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할 때 제동을 걸어 70km/h 이하로 감속해야 했지만, 열차 발차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가

4) 브레이스 자세.[사진=NTSB 홈페이지]
5) http://alpak.or.kr/cherry-services/retirement-planning/

중되어 가속하였다. 기관사는 뒤늦게 아파트 건물이 위치한 곡각지점인 사고현장을 발견하면서 늦게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제때 교체하지 않은 ATS 등 안전장치 시설과 더불어 JR 서일본의 잘못된 고용과 근무정책으로 인한 운전자의 위반(Violation)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다.

(2) 항공교통 : 일본항공(JAL) 123편 추락 사고

1985년 8월 12일에 일본항공(JAL) 123편 추락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항공기가 이륙 후 상승 과정에서 수직 꼬리 날개가 파손되는 동시에 유압 조종시스템이 손상되어 유압을 사용하는 승강타와 보조 날개의 조타가 불능이 되었다. 출발지였던 하네다 공항에 돌아가려 노력하였지만, 조타 불능 상태, 상승과 하강, 선회를 계속하다가 비행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군마현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이 사고에서 총 탑승자 524명 중 520명이 숨지고 4명은 부상했다.

2. 일본의 교통재해 사전 대비책

(1) 철도교통

1. 지진 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 사내 워킹 그룹을 발족하고 대규모 지진 발생시 과제에 대해 그 대응책을 검토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에 귀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대책으로 역에 음료수나 간이 담요, 2012년도에 간이 매트, 구급 용품, 간이 화장실, 휴대용 화장실을 배치했다.

향후 조기 운전 재개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다른 철도 사업자 간의 전용 전화를 설치했고, 기존 보강 불필요 판정 된 육교 기둥의 전수를 대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수도 직하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철도 시설과 지상부의 피해 상황 등을 조기에 확인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오토바이를 4개 배치하도록 했다.

재해 발생 시에는 본사 직원이 오토바이를 활용하여 철도 시설과 지상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본사의 지원으로 향하는 역까지 도보 가능한 루트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기에 본사에서 인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이고 동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4곳의 차량 기지에 오토바이를 총 10대 배치함으로써, 정보 수집 시간 단축과 정보 수집 영역의 확대, 정보 수집 증가 등이 가능하다. 한신 · 아와 지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터널 · 육교 · 지상부 건물에 대한 내진을 검토하고 내진 보강 공사 (사진 왼쪽)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말에 완료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연선 6개소에 설치해있는 지진계에서 종합 지령소의 정보 표시 장치에 지진 경보가 표시되어 즉시 지진의 크기에 따른 열차 운전 규제를 실시한다. 일정 이상의 진동을 감지한 경우 전체 노선의 전철에 긴급 정지 경보가 흘러 승무원은 열차를 정지시킨다. 또한 36개 소에 설치되어있는 지역 지진계의 표시에 따라 점검하여 안전이 확인된 구간에서 운전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기상청에서 발생하는 긴급 지진 속보를 활용 한 조기 지진 경보 시스템 운용을 하고 기설의 지진 경보 장치와 함께 사용하여 지진 발생시의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 화재 시

도쿄 메트로에서는 2003년 2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받아 개정된 화재 대책 기준에 따라 피난 유도 설비, 배연 설비, 이단 떨어 셔터, 소화전 설비 등의 정비, 케이블의 내연성 조치 차량 천장재의 내연성 조치, 차량의 관통 문의 설치 등으로 화재에 대한 안전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홈에서 지상까지의 대피 통로가 한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역에서는 고객이 홈에서 지상까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 (피난 계단, 지상 출구 등)를 새롭게 설치하고 두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배연 풍량이 부족한 역 등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배연 설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단 떨어 셔터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닫히는 때 일단 정지하여 고객의 피난 통로의 확보를 하고 있다. 기존 지하 역사 구내의 나 홈에 피난 유도 방향을 나타내는 축광식 명시 물을 설치하였다. 천정부의 냉풍 덕트 냉 후부키 출구, 선풍기 날개 등의 내 연소성 및 내 용융 적하 확보를 도모한다. 차량과 차량의 연

결면에 관통 문을 설치하여 만일의 화재 시 연소 방지를 도모한다.

(2) 항공교통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일본의 항공 관련 사이트는 재해 대비책이 언급되어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동영상을 요약 정리하였다.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급상황 시 산소마스크가 객실 감압에서 갑자기 자동으로 내려온다. 산소마스크를 앞에 두고 코와 입에 두고 머리에 고무 밴드를 고정해야 한다. 끝을 잡아당겨서 탄성 밴드를 조정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위급상황 시 브레이스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III. 결론

한국과 달리 일본의 항공 관련 홈페이지는 재해 시 대응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다. 연구의 처음 목표는 교통의 역사가 더 긴 일본의 대응책 중 한국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안내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철도만큼은 일본의 경우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지진 시의 재해 대책이 명확하였다. 이는 화재 시의 대책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그저 시민의 대책 요령만을 제시하는데, 일본은 열차, 터널 등 시설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포항 지진 발생 이래,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 철도도 이를 반영해서 지진 시의 구체적 시설 설비의 안전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IV. 참고 문헌

- 도쿄메트로 홈페이지(https://www.tokyometro.jp/index.html)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kr/index.do?device=PC)
-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 충돌탈선 조사보고서
- 철도운영기관 안전시스템 비교 연구(서울, 도쿄, 오사카를 중심으로) 박준형*†, 양진송*, 장승민*, 류경수*, 박정수**
- 일본의 교통재해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대응 토마리 나오유키, 다니구치 토모코
- 두산백과 KAL기괌추락사건
-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7313

일본 사소설의 형성, 발전과 의미
가지이 모토지로의 「레몬」을 중심으로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meaning of Japanese I Novel Mainly on 「Lemon」 by Motojirō Kajii
日本の私小説の形成、発展と意味 梶井基次郎の「レモン」を中心に

경희 고등학교 2학년 1반 17번 이권률 Lee Kwonryul rnjsfbf2002@naver.com

초 록

사소설은 20세기 초 일본에서 형성된 문학 사조로 다야마 가타이의 『이불』을 사소설의 시초로 본다. 가지이 모토지로의 소설 「레몬」에 초점을 두고 사소설의 정립과 발전, 그리고 의미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다자이 오사무 소설의 '나'와 가지이 모토지로 소설의 '나'의 비교를 통해 사소설의 특징을 연구했다. 사소설이 작가=화자 구조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통해 일본 사소설 문학의 의미를 알아내었다.

Abstract

私小説は20世紀の初頭に日本で形成された文学思潮であり、田山花袋の『蒲團』を私小説の始まりとみている。梶井基次郎の小説「レモン」に焦点をあて、私小説の定立と発展、そして意味について研究してみた。また、太宰治の小説「私」と加治井元次郎の小説「私」を比較し、私小説の特徴を調べてみた。私小説が'作家=話者'の構造を明示しなくても、読者が誰であるのかが分かるように構成されている点を通じて、日本の私小説文学の意味を究めた。

I. 서론

사소설(私小説)은 일본어로 '와타쿠시 쇼세츠(わたくししょうせつ)'또는 '시쇼세츠(ししょうせつ)'라고 하며, 영어로는 'I Story' 또는 'I Novel'이라고 한다. '와타쿠시'는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으로 '와타쿠시 쇼세츠'는 자신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말하는 소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의 일상 경험을 소재로 하여, 작가 자신을 화자로 하여 쓴 소설이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만 보면 자서전이나 자전적 소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소설은 글머리에 화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는 반면, 자서전이나 자전적 소설은 화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사소설은 일본의 특징적인 문학 사조로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자연주의 사조는 이야기의 실증을 중시하는 사조인데, 사소설은 자연주의를 개조해서 새롭지만 익숙한 사조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문학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있다. 사소설 이전의 일본 문학은 고사기(古事記)와 같은 신화 문학부터 픽션 소설이 있었다. 그러나 사소설은 철저히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있다. 다른 문학 사조에서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픽션이 가미된다. 하지만 일본 사소설은 작가 자신이 자신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독자들은 작가의 별다른 명시가 없을지라도 사소설 작품에서 화자=작가이고,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한다. 그러한 요소들이 일본 사소설 문학과 서구 소설과의 차이점인 것이다. 픽션인 소설이면서도 그 이야기는 철저히 논픽션인 사조이다.

사소설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표현된 작품은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1907)이지만, '사소설'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우노 고지(宇野浩二)의 『시시한 세상이야기(甘き世の話, 『中央公論』 1920:9)』이다. 이후 1920년대부터 평론가와 소설가들 사이에서 사소설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II. 본론 1

1. 가지이 모토지로의 약력과 작품 세계

가지이 모토지로는 1901년 2월 17일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이과로 진학하지만, 음악과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동경제대에 입학한 후, 친구들과 동인지 ≪푸른 하늘≫(1925)을 창간한다. 그러나 이듬해인 1926년에 폐병이 심해져서 요양 생활을 하게 된다. 1928년, 다시 학교로 돌아갔으나 병세가 더욱 심화되어서 다시 오사카로 돌아간다. 이후 1932년 3월, 34살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병상에서 창작을 계속한다.

가지이 모토지로는 20여 편의 단편을 집필했다. 생전에 작품집 『레몬』(1931)이 간행되기 전까지는 일개 무명작가에 지나지 않았다. 『레몬』이 간행되고 평론가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얻게 되며, 기성 문단과 대중들의 호응을 받게 되지만, 이미 가지이 사후의 일이었다. 그의 일생을 키워드로 요약해보면, 병, 불안 정도가 있다.

병, 가지이 모토지로는 평생 동안 병을 앓으며 살았다. 폐첨 카타르(폐결핵)와의 사투를 계속했다. 지금은 결핵으로 인해 죽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그가 살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의 병은 죽음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병은 그의 일상과 창작을 방해하기도 했다.

빨리 일어나서 소설이 쓰고 싶습니다. 소설을 생각하면 흥분되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라 큰일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점점 괜찮아져서 딱히 생각 없이 낮이고 밤이고 잘 잡니다. 다음엔 그 소설의 속편을 쓰고 싶습니다. '태평한 환자'가 '태평한 환자'일 수 없는 부분까지 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제게 주어진 일 하나를 완성하게 되겠지요.[1)]

이상은 가지이가 사망 두 달 전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다.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병으로 인해 소설 창작에 다소의 곤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늘 죽음의 불안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어렴풋이 예견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지이가 자연주의와 사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작품의 주인공, 등장인물은 가지이 자신처럼 환자인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자이의 소설은 완전한 사소설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그러나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만을 쓰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쓰고 있다. 가지이가 자신의 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병으로 인한 불안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불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불안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말이다. 가지이는 독특한 감성과 세련되고 자세한 묘사로 자신의 경험에서 그러한 공통적인 경험을 잘 녹아들게 하였고, 그렇기에 육체의 병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소설에 공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안이다. 가지이 작품에서 표현되는 불안은 권태적인 면이 존재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의 고통 등으로 인한 불안은 작품 전반에서 일상적인 배경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실제로 가지이는 병상에서 창작한 작품이 많으니 그의 일상은 건강한 삶보다 오히려 병에 시달리는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러한 권태감이 언제까지고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으나 권태감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 유명한 실험이 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려준 쥐가 들려주지 않은 쥐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내용의 실험이다. 고양이 울음소리, 그러한 긴장감이 없으면 사람은 서서히 죽게 된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가지이에게 긴장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었을까. 그건 아마 소소한, 보잘 것 없는 즐거움을 찾는 행위였을 것이다.

『물 홈통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현실 인식의 과정에서 한편은 이상의 빛에 번쩍이고 한편은 암흑의 절망을 업고 있었다. 이것은「빛과 그림자의 이원적 묘사가 이어 나타나는 주제의 이가치적(二價値的), 모순 구조와 평행선으로 대응하고 있다.[2)]

가지이는 '어둠 속 빛', 어둠과 빛의 아슬아슬한 결합에서 생기는 모순을 표현하는 것을 즐겼다. 어두운 불안과 권태감,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이자 탈출구인 빛.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행위는 어두운 불안 속에서 가능하다.

2. 「레몬」의 줄거리, 중심소재에서 나타나는 소설 속 '나'와 작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응어리가 내 마음을 시종 짓누르고 있었다. 초조라고나 할까, 혐오라고나 할까,—술을 마신 뒤에 숙취가 오듯이 술을 매일 마시면 그만큼 숙취의 기간도 길어진다. 바로 그것이 온 것이다. 이것은 조금 좋지 않았다. 폐렴이나 신경쇠약에 결렸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성화같은 빚 독촉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다. 좋지 않은 것은 그 불길한 응어리다.

「えたいの知れない不吉な塊が私の心を始終おさ壓へつけていた。焦燥と云おうか、嫌惡と云おうか—酒を飲んだあとに宿 があるやうに、酒を毎日飲んでいると宿 に相 した時 期がやってる。それが たのだ。これはちょっといけなかった。結果した肺尖カタルや神経衰弱がいけないのではない。また背を くような借金などがいけないのではない。いけないのはその不吉な塊だ」[3)]

1) '이이지마 다다시에게 보내는 편지', (1932.01.31.)
2) 佐藤昭夫「 の話」文 ·解 と鑑賞 社, 1982.4, p.89.
3)『레몬』(가지이 모토지로 , 이강민 역, 소화, 2004)

「레몬」의 주인공이 느끼는 '불길한 응어리'는 불안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권태감으로 직결된다. 그 '불길한 응어리'로 인해 좋아하던 음악이니 문학에 질려서 권태를 느낀다. 그 때, 주인공은 '레몬'을 사게 된다. '나'의 보잘 것 없는 즐거움은 바로 그 '레몬'이었다. 열을 식혀주는 레몬의 냉기가 곧 권태감을 없애주는 긴장감이다.

소설 전체에서 '레몬' 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레몬은 '불길한 응어리'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レモンエロウの絵具をチューブから搾り出して固めたようなあの単純な色も、それからあの丈たけの詰まった紡錘形の恰好かっこうも。――結局私はそれを一つだけ買うことにした。それからの私はどこへどう歩いたのだろう。私は長い間街を歩いていた。始終私の心を圧えつけていた不吉な塊がそれを握った瞬間からいくらか弛ゆるんで来たとみえて、私は街の上で非常に幸福であった。あんなに執拗しつこかった憂鬱が、そんなものの一顆いっかで紛らされる――あるいは不審なことが、逆説的なほんとうであった。それにしても心というやつはなんという不可思議なやつだろう。

その檸檬の冷たさはたとえようもなくよかった。その頃私は肺尖はいせんを悪くしていていつも身体に熱が出た。事実友達の誰彼だれかれに私の熱を見せびらかすために手の握り合いなどをしてみるのだが、私の掌が誰のよりも熱かった。その熱い故せいだったのだろう、握っている掌から身内に浸み透ってゆくようなその冷たさは快いものだった。

私は何度も何度もその果実を鼻に持っていっては嗅かいでみた。それの産地だというカリフォルニヤが想像に上って来る。(中略)

私はもう往来を軽やかな昂奮に弾んで、一種誇りかな気持さえ感じながら、美的装束をして街を※(「さんずい＋闊」、第4水準2−79−45)歩かっぽした詩人のことなど思い浮かべては歩いていた。汚れた手拭の上へ載せてみたりマントの上へあてがってみたりして色の反映を量はかったり、またこんなことを思ったり、

――つまりはこの重さなんだな。――

その重さこそ常つねづね尋ねあぐんでいたもので、疑いもなくこの重さはすべての善いものすべての美しいものを重量に換算して来た重さであるとか、思いあがった諧謔心かいぎゃくしんからそんな馬鹿げたことを考えてみたり――なにがさて私は幸福だったのだ。

どこをどう歩いたのだろう、私が最後に立ったのは丸善の前だった。平常あんなに避けていた丸善がその時の私にはやすやすと入れるように思えた。

레몬옐로우의 물감을 튜브에서 짜내어 응고시킨 것 같은 그 단순한 색깔도, 그리고 그 속 이 꽉 찬 방추형의 모양도. — 결국 나는 그것을 단 한 개만 사기로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어디를 어떻게 걸어 다녔던 것일까? 나는 오랫동안 거리를 걷고 있었다. 온종일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불길한 응어리가 레몬을 손에 쥔 순간부터 다소 느슨해진 것 같았다. 나는 거리에서 무척 행복했다. 그토록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우울이 레몬 한 개로 사라져 버리다니, —이것은 어쩌면 역설적인 진실이었다. 그지렇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인가. 그 레몬의 차가운 촉감은 다른 무엇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그 무렵 나는 폐렴 증세가 있어서 언제나 몸에 열이 있었다. 사실 여러 친구들에게 나의 열을 과시하기 해 악수를 해 보기도 했지만 나의 손바닥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그 열 때문이었을 것이다. 쥐고 있는 손바닥을 통해 몸속으로 스며드는 레몬의 차가움은 정말 기분 좋은 것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과일을 코끝에 대고는 냄새를 맡아 보았다. 그러자 그것의 산지인 캘리포니아가 머리에 떠올랐다. (중략) 나는 어느새 거리를 가벼운 흥분에 들떠 일종의 자부심마 느끼면서 흥분에 치장을 하고 서 거리를 활보했다던 시인을 생각하며 걷고 있었다. 그것을 더러워진 수건 에 얹어보기도 하고 걸치고 있던 망토 에 어 색깔을 비해 보기도 하면서 걷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 —그래, 이 정도의 무게일 거야. 그 무게야말로 늘 내가 찾아 헤맸던 것으로,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을 질량으로 환산한 무게가 아닐까 생각했다. 내 딴에는 해학심을

발휘한답시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보기도 했던 것이다.—어쨌든 나는 행복했었다.[4)]

작품에서 레몬은 단순한 레몬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즉 가지이는 '나'가 레몬이라는 자신의 권태로움을 해소해줄 작은 즐거움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병상에서의 권태로움을 해소하고자 즐거움을 찾길 원했다.

III. 다자이 오사무 소설의 '나'와 가지이 모토지로 소설의 '나'의 대조를 통한 일본 사소설에 대한 정리

우선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과 가지이 모토지로의 소설을 엄연히 말하자면 축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자이의 소설은 정형적인 사소설로 그의 경험을 일부분 각색한 것이다. 그러나 가지이의 소설은 사소설의 영향을 받은 소설로, 엄연히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소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병종(丙種)이다. 열등한 체력을 갖고 태어났다. 철봉에 매달려 있어도 그냥 그대로 달랑 매달려 있을 뿐으로 아무런 곡예도 운동도 못 한다. 라디오체조조차도 나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열등한 것은 체력뿐만이 아니다. 정신이 박약하다. 쓸모가 없다. (다자이 오사무 전집 제3권 1975:154-155)

다자이 오사무 소설의 '나'는 다자이 오사무가 정치와 시국성(時局性)으로부터 도피하여 예술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자이는 전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철저한 무능으로 정의 지었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다자이 소설의 '나'는 전시라는 혼란 속에서 무능한 예술가로 남고자 했던 다자이 본인이라고 볼 수 있다.

레몬의 '나'는 가지이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나'와 가지이는 별개의 인물이면서도, 동일인물이다. 일종의 대변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레몬」은 가지이의 교토에서의 고교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화자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 여타 사소설처럼 실제 생활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대한 심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그 과일가게에 대해 소개한다면 그 가게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장 맘에 드는 가게다. 그곳은 결코 근사한 가게는 아니었지만 과일가게 고유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었다.[5)]

화자 '나'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다. '나'는 의식의 흐름대로 과거의 일들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되는 듯이 서술하다가 이 대목에서 '여기에서 잠깐 그 과일가게에 대해 소개한다면'이라는 문장과 함께 갑작스레 작가로서, 혹은 제3의 벽을 허문 화자로서 독자들에게 말을 건넨다.

그 과일가게에서 발견하게 되는 레몬이 여느 레몬을 넘어서 화자 '나'에게 관념화된 '그 무엇'임을 부각시키기 한 설명인 것이다.[6)]

즉, 화자가 독자들에게 말을 검으로써 작가가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한 의도가 화자의 말처럼 녹아들게 된 것이다. '나'와 가지이는 별개의 인물이면서도, 동일인물이다, 라는 말 그대로 '나'는 가지이가

4) 『레몬』(가지이 모토지로 , 이강민 역, 소화, 2004)
5) 『레몬』(가지이 모토지로 , 이강민 역, 소화, 2004)
6) 어연경 (2010). 가지이 모토지로의 레몬. 일본문화연구, 33, 431-449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가지이는 '나'가 될 수 있다.

가지이의 '나'와 다자이의 '나'의 차이점은 '나'와 작가의 동일성 문제이다. 다자이의 '나'는 작가와 완전히 동일한 반면, 가지이의 '나'는 작가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통점은 어찌되었든 자신의 일상이나 그에 관련된 심경을 각색한 이야기의 화자라는 것과 작가가 화자 본인이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이야기의 화자와 작가를 잠정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일본 사소설이 성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작가=화자 구조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상을 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사실대로 묘사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심경 또한 솔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IV. 결론

일본 사소설의 형성 배경에는 메이지에서 다이쇼로 넘어오며 생긴 일본인들의 자아 찾기 심리에 근거한 것으로 이후 전시라는 시국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쓰였다. 다자이 오사무는 자신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임을 일찍이 깨닫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예술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내려갔다. 그런 과정 중에 「후지산 백경(1930)」, 「비용의 아내(1947)」 등의 작품이 쓰였다. 가지이 또한 자신이 환자였다는 점에 근거해 후기 작품들에는 환자 주인공이 잦게 등장하고, 대부분이 가지이 자신을 모티브로 한 등장인물, 혹은 자신의 일상을 투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소설의 특징이자 단점은 작가 본인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사소설이라는 장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작가 본인이 화자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읽는다면 그저 허구의 통속소설로 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까지 알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사소설보다 자전소설 쪽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소설에는 그 나름대로의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V. 참고문헌

- 어연경 (2010). 가지이 모토지로(梶井基次郎)의 「레몬(檸檬)」論. 일본문화연구, 33, 431-449
- 김경숙 (2013). 다자이 오사무 작품에 나타난 나에 대해서. 일본문화연구, 47, 5-27
- 임현숙 (1998). 梶井基次郎 研究 - 『レモン』을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5, 247-263
- 안영희 (2012). 일본 사소설의 정전 형성. 일본문화연구, 42, 277-294
- 임중빈 (2006). 가지이 모토지로(梶井基次郎)의 작품에 나타난 명암. 일본문화연구, 17, 215-231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본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 사유 – 당시 일본 내 사회와 전술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歴史的、文化的観点から見た日本帝国主義の敗亡の理由 −当時の日本国内の社会と戦術的な側面を基に

경희 고등학교 2학년 1반 5번 김정원 Kim Jeong Won (zeakrom2@naver.com)

초 록

현대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은 경제 대국으로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모범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시장 팽창 정책인 제국주의에 의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성장한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어두운 면인 일본 제국주의를 역사적, 문화적 관점으로 탐구하여 패망 사유를 분석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성립 배경과 그 진행 과정으로 시작하여 일본식 제국주의의 내부 구성적인 문제점을 당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과정과 비교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교육적인 문제점, 그리고 전쟁에서의 일본군의 행적에 대한 문제점을 전쟁구도 형성과 전술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중반까지 지속된 서구 제국주의와의 통상교섭과 이에 대처하지 못한 당시 일본 정계의 문란함에서 탄생한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적 한계, 이와 연결되는 교육정책에서 나타난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 목표, 결국 도화선이 된 무리한 전선 전개로 이루어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의 이유를 정리한다.

Abstract

現代の日本は米国、中国に次ぐ経済大国として、他の東アジア国家の経済的模範ともなっている。 しかし、その裏には無分別な市場膨張政策である帝国主義による諸問題を抱え、成長した暗い裏面を持っている。

本稿では、その暗い面である日本帝国主義を歴史的,文化的観点から探求し、敗戦を分析する。日本帝国主義の成立背景とその進行過程を始めとし、日本帝国主義の内部構成的な問題点を当代の帝国主義国家の過程と比較して、日本帝国主義を存続させる役割を果たした教育的な問題点、そして戦争における日本軍の行動に対する問題点を戦争構図の形成と戦術の側面に分けて分析する。

これを通じて20世紀前半まで続いた西欧帝国主義との通商交渉とこれに対処しなかった当時の日本政界の紊乱することで誕生した日本帝国主義の思想的限界、これと連結される教育政策で現れた時代に逆行する教育目標、結局、導火線になった無理な電線展開で行われた日本帝国主義の敗亡の理由を整理する。

I. 서론

반도체, 세계 시장, 자동차 , 정치 등 점차 21세기 흐름 속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세계의 영역인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은 동아시아 구성 국가들 중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국가, 근대화 이후 가장 먼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은 어떻게 하여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의 하나로 제국주의, 일본만의 제국주의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당연히 구미 열강의 통상 요구로부터 기인하였다. 당시 이미 초기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구미 열강은 당시에도 굉장히 기대수요가 높았던 시장인 동아시아에 자신들의 물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였고, 당시 유행하던 함포 외교 형식을 이용하여 일본의 문을 두드렸다. 일본은 에도 막부의 쇄국정책에 따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만 간접적으로 교류하였을 뿐, 1636년 반기독교 법령 선포 이후로는 완전히 나라의 문을 외세로부터 닫은 상태였다. 그러나 처음 접하게 된 구미 열강의 함포 외교 앞에서 그들은 결국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후 다른 열강들과 차례로 조약을 맺어가며 기존의 막부 봉건 사회가 무너져갔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 고대의 천황제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명치(메이지)유신을 단행하였다. 명치(메이지) 정부는 중앙집권, 군대의 서양화와 산업화로 흔히 나라들이 강해지기 위한 노력인 부국강병과 이를 통한 자주독립국가를 이루려 노력하였고, 명치 정부 출범(1869)부터 명치 헌법(1890)까지의 '제국주의 맹아기'를 통해 자유 민권 운동 등 정부에 반대되는 일의 진압과 폐번치현을 통한 신분제도 폐지, 거주 이전&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중앙집권적 근대 교육 확립, 화폐단위 통일, 징병제 시행 등의 근대적 개혁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이후 1932년까지 한일병합, 제 1차 세계대전의 승전으로 인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치환, 만주정부 수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일본은 완전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고, 그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다 폭주, 1945년 8월 6일과 9일 원자 폭탄을 맞고 15일 패망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일본 제국의 패망 원인들을 세 가지 큰 주제들로 엮어 특수한 제국주의의 형태인 일본 제국주의의 내,외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근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제국주의의 사상적 한계를 고찰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허술한 속사정과 그 결과로 인한 문제점들을 시사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 확장 과정][1]

[메이지 유신 헌법발포약도(1889 묘사)][2]

II. 일본식 제국주의의 구성적 문제점

일본의 제국주의는 탄생 배경이 다른 제국주의와는 상이하게 다른 면모를 보인다. 대부분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우는 가장 큰 목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한 개척적 면모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1) The Nanjing Atrocities | Map: Japanese Empire Building (1870-1942). https://www.facinghistory.org/
2) https://owlcation.com/humanities/Remembering-the-Meiji-Restoration

사상적 기반이 자본가들에 의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에 있다. 이들은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전까지 존속해 왔던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국내 시장에는 더 이상의 공급을 견뎌 낼 수요가 사라져가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두면 초과공급을 통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국가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부르주아들은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면서 이들의 계몽주의는 점차 제국주의화가 되어 간다.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문화를 식민지에 테라포밍하여 자국의 새로운 시장으로 만드는 데 있었던 반면, 일본의 제국주의의 경우 이들 열강이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권력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천황제와 그 이후 정치 형태인 군국주의 군사정부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1.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적 근원 – 천황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적인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천황주의는 사실 원래 일본 토착 신화인 천손강림 신화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한 바가 크다. 아래 인용문이 천손강림신화의 핵심으로, 일본은 여기서 메이지 유신 전후 그들 정부의 정당성 확보와 더불어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 갈 근대국가 구축의 중심 원리로 작용하도록 신화 내용을 이용하였다.

‘이때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는 황손에게 명령을 내려, “아시하라(葦原)의 지이호아키(千五百秋)의 미쓰호(瑞穗)라는 나라는 나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할 땅이다. 이에 황손은 가서 다스려라. 나아가라. 하늘 자손(寶祚)의 융성이 천양과 더불어 무궁하리라[3)]

이 절을 통하여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황조황총의 절대적인 윤리를 통해 천하를 다스린다는 신정국가의 이념으로 삼았다. 신정국가란 우리나라 삼국 시대와 비슷하게 제사와 정치를 하는 통치자가 한 사람인 제정일치의 특성과 율령을 반포하는 점에서 비슷하며, 근대까지 여느 국가들이 탈피해오려 애썼던 국가의 형태를 일본은 채택함으로써 천황제라는 종교와 유사한 특성을 띠는 제도에 끼워 넣었다. 이를 통해 메이지 정부가 페번치현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황권을 안정시켰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신화를 정치요소에 집어넣어 천황이 신의 후손임을 강조, 일본 국민들에게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도록 세뇌시키며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것이었으며, 결국 이는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에서 사면 바다에 둘러싸인 섬나라로써 문명 발달에 소외적이라 다른 동아시아 주변국보다 문명의 질이 낮아 열등감을 느낀다는 일본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메이지 정부가 띠고 있었던 서양 제국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제국의 문화에 쉽게 잠식당할 것이란 서민층에 대한 불신인 우민관이 작용하여 다른 서양 국민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민들을 배제한 지배층 엘리트들만이 독점하는 국민국가로 탄생하여 국민들의 뇌리 속에 ‘신정국가’라는 관념이 뿌리박게 된 것이다. 이렇듯 메이지 유신기부터 이루어진 일본 사상가들과 메이지 정부의 합작으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허구적 논리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천황제에 집어넣어 천황주의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서양 열강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그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길 원했고, 나아가서 일본 제국으로 넘어가는 원인 중 하나인 팽창주의 정책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 이후 일본은 다양한 조약들을 주변국들과 체결해 나갔고, 청.일 전쟁으로 그동안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들을 없앨 수 있었고, 러.일 전쟁으로 제국주의 반열에 올라서며, 1930년대에 들어가서는 아시아권의 거대한 제국이 되게 된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해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 제정으로 기존까지 이어지던 천황 중심의 체제에서 군사화가 진행되게 된다.

2. 일본 제국주의의 오점 – 군국주의화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 사변 이후로 군사 세력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한다. 침략 전쟁에서 군사력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힘이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3) 전용신 역(1989),「9단「천손강림조」제1의 1서」,『일본서기(日本書紀)』, 일지사, 44쪽.

완전히 군국주의 국가로 정착하여 만주 사변을 그 시발점으로 하여 만주국을 세운 뒤로 계속해서 중국 내륙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방향을 택하면서 군사 세력들이 점점 정치, 경제에 손을 뻗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정계에서는 국수주의적 집단, 괴상한 우익 사상을 연구하는 집단도 등장하며 이전까지의 일본 정부의 정당 정치가 힘이 약해졌고, 이를 통해 군부는 1913년 폐지되었던 `군부대신현역무관제`를 복구하여 내각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돌려받고, 국가 정책에 점차 관여하는가 싶더니 정계를 잠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세워진 군사정권은 제대로 나라를 관리할 힘이 없던 것이 대다수였고 일본 제국 역시 그것을 간과하지 못한 듯 하였다. 군부 정권은 30년대 후반 군국주의적 성격이 짙게 묻어나는 정책인 국민정신총동원 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앞서 말한 1938년 국가 총동원법 제정으로 전쟁의 고착화로 인한 재정 지출을 어떻게든 채워보려 폭주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일본 군사정권의 권력자 도조 히데키의 군사 재판4)]

[제 2차 세계대전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두 국기5)]

III.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적 문제점

1.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적 의지

서구 국가들은 그들의 제국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대두되며 같이 성장하였지만, 이와는 다르게 일본 제국주의는 민주주의 교육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1장에서 말했듯 신정국가라는 국가이념에 충실하게 천황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의 헌신을 가르치는 것에 중요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배경에는 메이지 유신 초기 자유 민권 운동에 대한 경각심이 컸는데, 이 운동으로 인한 자유주의 이념 같은 천황제에 반대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론들이 퍼져나가자 지배층 세력은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보다 옛날처럼 사회적인 질서와 규율에 복종하는 것을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자유 민권을 주장하거나 동의 의사를 띠고 있는 학교의 선생들을 차례차례 해고하였으며, 2017년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 논란처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유 민권같은 자신들의 통치방식이 위협받을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들은 삭제하고 교육 내용을 정부의 선택으로 한정하여 통제하였다. 이런 방식 덕에 이 당시 교과서에는 천황에 대한 신격화를 표하는 지문인 '교육칙어' 문헌 같은 친정부적, 친체제적 내용들이 성행하였고, 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를 불경처럼 학교에서 낭송하게 시키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이 지문을 진리라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렸다. 이는 1930년대 군국주의로 더 심해지면서 폭주한 일본 군국주의 정부부터는 국민사상의 통제와 획일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

4)침략전쟁의 주역 '도조 히데키'…그가 재판서 남긴 궤변.연합뉴스 2017-02-19 07:30
https://www.yna.co.kr/view/AKR20170218033000005

5) 왼쪽은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우측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욱일기 사용은 왜 문제인가?. 작성자 할리우드 이슈 알려줌. 알지미디어
https://alzi.me/page/%ED%95%A0%EB%A6%AC%EC%9A%B0%EB%93%9C%EC%9D%B4%EC%8A%88%EC%95%8C%EB%A0%A4%EC%A4%8C/report/1198

하여 의무교육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고등교육마저 군국주의화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가장 먼저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잠식하고 동원하여 내부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뇌된 신지식을 전파하고, 외부적으로는 일본 제국이 정당하다고 믿는 획일화된 황국 신민들로 만들어 내겠다는 교육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일본 메이지 정부가 제정한 {교육칙어}. 1890][6]

2. 이러한 교육적 의지가 가져온 결과

결국 이러한 교육적 의지에서 비롯된 일본 제국주의의 황국 신민 양성에 목적을 둔 교육은 일반 일본인 대중들에게 지배층의 윤리에 따른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의 주인에 대한 가치를 국민적 윤리로 확대한 것인,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서 나온 규범을 천황제와 엮어 일본만의 독특한 제국주의 문화를 만들었으니, 즉 일본 제국주의 문화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 추진 방향을 '누구나'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 '일본인들만' 해당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쉽게 정부의 영토 확장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교육제도의 획일화로 인한 국정 교육으로 인하여 1890년 이후의 거의 모든 여론들과 국민들은 천황의 존재에 대해 정말로 신의 후예라 믿으며 자라나거나 배경지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천황과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통해 황국 신민으로 길러지게 되었다. 이 같은 억압과 강제적인 주입식 세뇌교육은 이후 30년대 두 번의 경제난을 겪고난 결과인 재정 악화로 인한 군국주의 성향이 일본 내에서 두드러지면서 더 강화되어 버렸다. 특히 이 때는 식민지인인 조선인에게도 황국 신민 서사를 암기하라는 등 식민지내 피지배인들조차 황국 신민의 신념을 각인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보하였으며, 이들이 가진 재물조차 일본 본국에 바치라고 강요하였다. 지배층들은 이렇게 개개인이 가진 민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던 시기에 대해 계속해서 나오는 불만을 천황제와 그 체제에서 나오는 절대권력을 이용하여 잠재웠고,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력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천황제 이론과 반대되거나 이를 위협할 수 있는 계몽주의와 민주주의를 앞서 서술한 교육적 의지에 따른 친체제적으로 편향된 지식을 가장 지식의 수용이 빠른 학생들에게 주입시켜 이들 대부분을 세뇌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상을 배제하도록 억압하였다. 그리하여 이 결과로 일본은 과학적이고 계몽적이던 서구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려는 움직임들을 탄압하거나 배제해 버렸고, 이 사상들로 인해 얻어낼 수 있었던 서구 사회의 발달된 사회 통제력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6) 日 군국주의 잔재 '교육칙어' 학생 교육가능 결정. 뉴스원. 김혜지 기자. 2017.04.01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는 조선인들][7]

[군복을 입고 칼을 손에 쥔 일본인 교사들][8]

Ⅳ. 2차 세계대전에서의 무리한 전쟁 구도와 전술

일본은 이미 193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군사적 요충지 정도였던 조선과 만주국까지 식민지 범위를 넓혀 놓은 상태였고 그 전의 관동 대지진 때 나눠주었던 채권 가치의 폭락으로 일어난 일본 내의 대공황과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이미 본국의 재정으로는 감당이 버거워진 수준이었다. 결국 그러다 일본 정계는 군부에게 잠식당해 버렸고, 1937년 중화민국 정부와 기동방공자치정부의 국경이었던 베이핑 서쪽의 루거오차오 다리에서의 해프닝을 발단으로 커져버린 중.일 전쟁이 생각외로 커지면서 일본은 전쟁에서 무리수를 두게 된다.

Ⅳ-1. 전쟁구도 형성에서의 문제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추축국으로 참가한 이후 계속해서 자국의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 중.일 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이었다. 일본 제국 내 분위기는 이미 몇 차례 중국 군대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옛 전성기 시절 때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일 전쟁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당시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려는 일본의 확장을 막으려 당시 일본 제국의 주요 자원이었던 석유를 차단하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이미 일본은 중.일 전쟁으로 사실상 폭주하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 상 일본 제국의 동남아시아 등지로의 식민지 개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개척의 불확실성으로 미국에게 오는 수출 피해를 위해 내린 조치였지만, 이미 폭주하여 닥치는 대로 식민지를 개척해야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본은 결국 1941년 12월 7일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을 선전포고 없이 감행하고 말았다.

---

7)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교과서 속 이미지 자료.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i/view.do?treeId=06027&levelId=ti_027_0230

8) 이 식민교육의 근간이 이러한 지배층의 교육을 배운 후 식민지에 적용한 것이었다.
세종포스트. 전재홍의 근대도시답사기. 군복 입고 칼 쥔 일본인 교사, 살벌한 식민교육. 2017.11.24. 11:52.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8

9)

[진주만 공습으로 격침되는 미국의 애리조나 호(1941.12.7.)]

일본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일본은 총전력에서는 당연히 미국에 밀리지만 해군력에서는 미군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의 함선들의 주요 전력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상하고 진주만에 기습을 가했던 것이었다. 당최 일본은 거함거포주의의 상징인 야마토급 전함을 두 척이나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큰 나가토급 전함을 시작으로 나중에 미국 해군에게 꽤나 애먹인 항공모함들의 존재, 큰 차이를 보이는 중,경순양함과 구축함,항공모함 전력차로 진주만 공습 전 미국과의 해군력 차이를 보면 미국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건 이후로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려 노력하면서 1942년 동북아에서 시작하여 동남아, 남태평양까지 이르는 전선을 짜내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서쪽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하여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의 전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은 당시 대결 구도로 보자면 동서양에 있는 거리가 먼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는 지리적으로 양측에 힘을 실어야 하는 불이익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결국 이런 일본의 무리한 전쟁구도의 확장은 당시 얼마나 일본 제국이 경제적으로 무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후술할 전술 내용과 실행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합쳐지며 일본 제국이 패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만다.

Ⅳ-2. 전술내용과 실행에서 발생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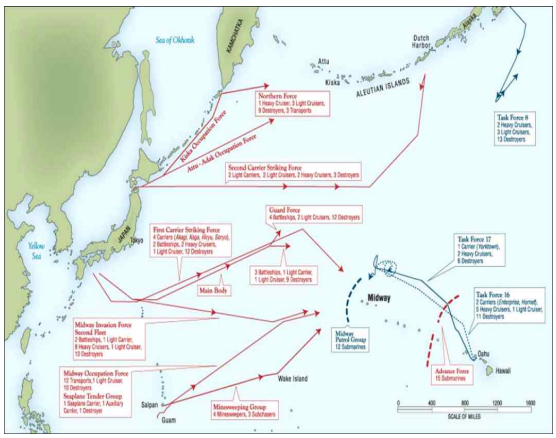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일본은 전쟁 중 무리한 확장 구도를 이룬 것 자체로 문제가 크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전쟁의 전술 하나하나의 정립과 실행에서 일본은 또 한 번 폭주하는 그들의 광기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먼저 앞서 설명한 진주만 공습의 전술 내용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의 핵심 역할이었던 진주만 기지를 기습, 점령함으로써 미국의 태평양 보급로를 차단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을 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하여 미국에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용도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전술적으로는 성공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일본의 손실을 내다보지 못한 실책이라 평할 수 있다. 일본은 이 공습을 자신들

9) 日진주만 공습에 격침된 美애리조나호. [뉴시스] 입력 2016.12.28. 16:21. https://news.joins.com/article/21053972

이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한 공습이었다. 물론 당시 일본의 영토 확장이 누구보다 불편했던 나라가 미국이었고, 먼저 선제공격을 함으로써 미군의 전력을 어떻게든 깎아내려 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무역봉쇄를 한 이유가 중국 본토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어갔기 때문었음을 자각하지 못했고, 중국 침략을 계속하기 위해 공습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국민감정을 이용하여 협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본이 그 때 당시 취해야 했던 가장 좋은 방안을 발로 걷어 찬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이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은 해군 전력에서만 미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뿐 실질적인 국력으로는 당시 전 세계와 전쟁을 벌여도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생산력과 기술을 갖출 수 있는 미국을 너무 해군 전력에만 한정시켜 보았다는 점이다. 애초에 그 당시 누가 봐도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재정이 미국으로 쏠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미국에 비해 당시 군사력만큼은 1위였던 독일의 경우 없는 경제를 억지로 만들어 쥐어짜낸 군사력이었고, 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일본의 경우 미국의 생산력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군사력과 생산력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이 공습의 모티브를 러.일 전쟁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이는 미 해군이 전함을 위주로 하는 운용이 아닌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운용한 것을 모른 채 러시아에게 써먹었던 점감요격작전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대치 만큼의 미국 전력에 손실을 입히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역으로 인해 일본군은 초반 우위를 보인 이후 더 이상 태평양 해전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일본 제국의 패망을 앞당기게 된다.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초반부터 유명한 미국의 미드웨이 기지의 특장점인 해저 케이블과 교란 무선의 양동 암호 낚시에 걸려 상륙함에 안 실어도 되었었던 해수 담수화 장치, 식수 등을 엄청 챙겨와 군수물자를 챙기지 못하였고, 기만작전에 제대로 걸려 진주만 공습 이후 미 전역이 얼마나 호전적이었는지 감안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부대의 배치를 굉장히 넓은 간격으로 배치해 각 부대 간 협력이 교전 시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전쟁 준비에 굉장히 소홀한 태도를 보였음은 두말 할 것도 없으며 결국 미드웨이 해전 당일 하필 미 잠수함 노틸러스를 따라가다 뒤쳐진 일본 구축함 아라시의 항적을 발견해 본대를 발견한 미군의 급강하 폭격기 집중 공격을 5분이란 시간 동안 레이더의 부재로 적기가 공습하는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폭격당해 항공모함 카가, 아카기, 소류 모두 대파되어 뇌격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상 당시 미드웨이 해전 참전 일본 해군 병력의 90% 이상이 침몰당한 격이므로 전투능력이 급하강했고, 이후 전투에서 남은 한 척의 항공모함 히류마저 격침되는 피해를 입고 퇴각하게 된다. 애초에 전투에 임하는 목적부터 분명하지 않았으며, 우발계획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의 전술, 그리고 가장 큰 원인으로 레이더의 부재, 암호 해독으로 꼽힌다. 레이더가 없어 급강하 폭격기의 공격을 예견하지 못했고, 사전에 암호가 다 드러나 미국의 준비가 만전했다는 것 때문이다. 이 전투 때문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 초반 공격력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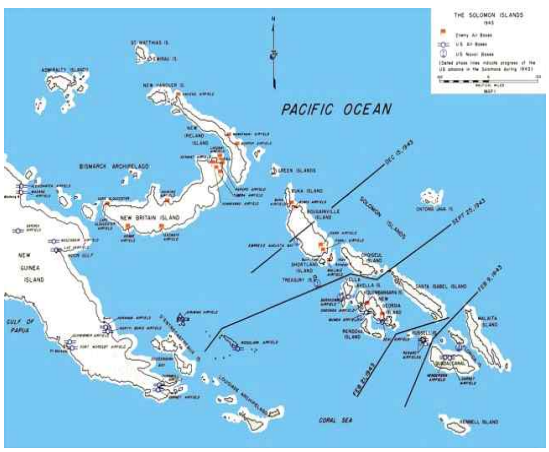


[미드웨이 해전 전개도][10]

[SB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11]

10) STRATEGY DURING BATTLE/RESULTS FROM BATTLE
https://battleofmidway2015.weebly.com/the-battle-of-midway.html

다음 과달카날 전역에서도 일본은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과달카날 전투, 해전과 육상전을 합쳐 과달카날 전역이라 부르는 이 전투에서는 미일 양측 다 많은 피해를 본 전투였지만, 일본이 물러남으로써 안 그래도 미드웨이 해전의 여파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연합인 ANZAC 연합군이 숨돌릴 기회를 줘버린 일본이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물러남으로써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는 계기를 낳아 실질적으로 이 때부터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전투였다. 충격적인 것이, 과달카날 전투가 진행중이던 당시 일본 대본영, 즉 일본의 컨트롤타워라 불리는 최고 군사기구에서 과달카날에 일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일본 본토에서 지원 가능한 전투기가 겨경량화를 통해 4,000km 항속거리를 지닌 G4M 전투기 이외에는 사실상 왕복불가능에다 과달카날에도 비행물자가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 마디로 일본은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전략저인 요충지를 잘 간수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물론 상대국인 미국 역시 사보섬 해전 참패로 전투 초반 과달카날 제해권을 뺏겨 상당히 고전하였지만 과달카날의 본격적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평을 받은 테나루 전투에서 옛 중일전쟁 초반에나 먹힐 전략인 반자이 어택, 총검이나 카타나를 들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짓을 두 번씩이나 저질러버려 2차 돌격 때의 가와구치 소장 부대는 병력을 70% 이상 버린 꼴이 되었고, 이후 헨더슨 비행장을 완벽히 비행장을 부수지 못하였고, 미국이 이 비행장을 죽기 살기로 보수한 끝에 일본군 보급 상륙 부대를 뒤에서 요격할 수 있었고, 격투 끝에 일본군 화포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후 마타니카우 강 전투에서 일본군 보조 본대가 대패당하고, 미일 둘다 큰 피해를 입은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패배하며 사실상 과달카날 전선에서 이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무능한 대본영은 이 전선을 지키려 하였고, 결국 뒤이어 이어진 과달카날 해전에서 1차로 야간전에서 초반 미 제독 2명을 전사시키는 전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제독이었던 아베 제독이 자신이 승좌한 전함 히에이가 포위당하자 퇴각 명령을 내렸고, 미국이 열세였음에도 전함 1척에 구축함 2척을 잃어버린다. 게다가 2차 과달카날 해전에서는 당시 일본군 2함대(사실상 거의 총 전력)의 함재 정찰기가 미 전함을 중순양함으로 오인해버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전투력손실이 적은 미 구축함들에 당시 미 해군에게 위협적이었던 93식 어뢰를 전부 써버렸고, 원 목적인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지도 못한 채 패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 일본 해군에 가장 중요한 수송 선단에 피해를 주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여 2차 과달카날 해전에서 퇴각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 바로 다음 날 그 유명한 캑터스 항공부대와 미 해군 포병대의 협공으로 수송선단을 전멸, 6천명 이상의 전사자에다 보급물자 1만 톤 중 달랑 5톤만 건져내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이전까지의 과달카날 제해,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쥐 수송 등의 방법으로 말라리아, 기아에 허덕이다 총공격을 맞고 전멸 위기에 몰렸으나 간신히 미 해군의 실수 덕에 겨우겨우 철수에 성공하여 두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태평양 전략적 요충지인 과달카날을 뺏김으로써 패퇴하게 된다.



11) 앞서 설명한 항공모함들을 대파한 급강하 폭격기.
The Douglas SBD Dauntless dive bomber of World War II. WORLD WAR MEDIA. 2016.9.15
https://www.worldwarmedia.com/2016/09/15/the-douglas-sbd-dountless/

[과달카날 반자이 돌격의 최후(1942.10.25.)][12] [과달카날 해전도][13]

V. 결론

이렇듯 다양한 서양 열강들의 외교적 통상 압박에 대해 방어적으로 일본은 근대화를 진행하였고, 에도 막부의 무능함에 반하여 존왕운동을 벌인 결과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 일본은 천황주의적 정책으로 다시금 중앙집권형 국가로 돌아감으로써 민생을 안정시켰고, 제국주의 국가로 아시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동아시아를 석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천황주의적 정책은 결국 두 번에 걸친 경제대공황으로 정계가 마비되어 앞선 전쟁으로 권력을 얻어 정치적 입지가 커진 군부가 통치하는 체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중.일 전쟁을 시발점으로 하여 일본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 1차 세계대전에 쓰였던 총력전 전술을 그대로 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 총동원법, 진주만 공습 등 당장 일본 자국민 뿐만이 아니라 식민지의 경제력마저 전쟁에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군사력의 기반 재료들을 수입하던 미국에게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드는 등, 일본은 사실상 폭주하였고, 통제력을 잃은 채 앞서 서술한 태평양 전쟁의 두 전투인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역에서 패배하여 가뜩이나 안 풀리던 아시아 전선과 더불어 미국 등과의 태평양 전선 역시 밀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실상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퇴각하거나 최상의 경우 해군 전력에서 당시 적국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만큼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 시 오판이 적었더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두 전투에서도 적 기지의 파악과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레이더의 부재, 군사적 요충지였던 과달카날에 일본군들이 주둔해 있었다는 것, 심지어 그 과달카날조차 그렇게 태평양 전선에서 중요한 거점인지 몰랐던 대본영의 아둔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배하여 당시 일본 제국의 군사적 오점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내부적으로도 천황주의라는 중앙집권국가로 되돌아간 제국주의에다 두 번의 경제 대공황을 막아내지 못하여 폭주하고, 맹목적인 교육과 틀에 잡힌 신정국가의 면모로 당시 서양 제국주의와 함께 발전하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결국 마지막은 무리한 전선 확장으로 인해서 일본 제국주의는 패망한 것으로 보인다.

VI. 참고 문헌

- 송호근. (2015). '일본 제국주의의 정신구조'.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제 16호. p273~307
- 박태준. (1997). '일본 제국주의의 성격과 그 교육적 특징'.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제 9권. p 113~130

12) BEMIL 유용원의 군사세계. BEMIL사진자료실. 일본군의 침략 반자이와 반자이 돌격의 종말. 작성자 슈트름게슈쯔. 2016.04.06. 19:41:20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203436

13)BEMIL 유용원의 군사세계. [전쟁사] 태평양 패권을 두고 공방을 펼치다 과달카날 2차 해전 [1]. 2015.03.30. 13:25 http://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30/2015033001741.html

미국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의 특징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Agent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pplication to Sports Agent Industry in Korea
Looking for a direction for development

경희 고등학교 1학년 4반 31번 이름 최준경 Choi jun kyoung (nkav0331@naver.com)
경희 고등학교 1학년 5반 12번 이름 이건희 Lee gun hee (it0302@naver.com)

초 록

전 세계에서는 스포츠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전된 산업이 바로 스포츠 산업이다. 스포츠 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은 미국에서 최초로 발전되어 왔고, 미국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 어떻게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에 관해 조사해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찾은 뒤,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기업인 IMG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에이전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Abstract

Sports fever is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The industry developed through this is the sports industry.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sports industry is the sports agent industry. The sports agent industry has been developed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has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sports agent industry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throughout the world. So how does the U.S. sports agent industry operate? And how should our country develop its sports agent industry through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 want to investigate the sports agent industry in the U.S. and our country, find out our problems, and find out about our country's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IMG, a leading sports agent company in the U.S.

I. 서론

현재 전 세계에서 스포츠 열풍이 과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된 산업이 바로 스포츠 산업이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스포츠 산업 중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을 발전 시켰다. 개인 자격의 대리인으로 머물러 있던 에이전트의 역할을 조직화된 기업의 차원에서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 단계 도약시킨 IMG(International Management Group)의 창업자 마크 매코맥(Mark McCormack) 등이 스포츠 산업 분야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스포츠 에이트 산업을 오늘날의 형태로 이끌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스포츠산업 규모 자체의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로 인해 각각의 스포츠 종목에서 스타 선수가 출현 또는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업들도 스타 선수들의 탄생에 많은 역할을 하는 등 선수를 이용하는 마케팅 의존도를 높이면서, 선수를 관리, 대리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초기에 프로 스포츠가 각각의 종목에서 출범하기 시작했지만 스포츠 마케팅을 포함한 스포츠 산업은 프로 스포츠를 배제하고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스타 플레이어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의 개발을 요구한 박세호(1999)의 연구 이후 스포츠 에이전트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으로 발표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연구 결과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국내의 에이전트 산업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야구, 축구, 골프, 테니스, 농구 등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세계 스포츠 시장에 진출시켜 더욱 성장시키고 가치를 극대화시킬 국내의 전문 에이전트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아직 태동단계에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기획하기 위해 현대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을 최초로 기업화 시키고, 현재 세계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로 자리매김한 미국 IMG(International Management Group)의 발전과정과 사업 시스템의 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의 전반에 대해 자세히 진단해 보고 국내 에이전트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미국의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

Ⅱ-1. 발전 방향

미국프로야구(MLB), 미국풋볼리그(NFL) 선수들의 100%, 미국프로농구(NBA), 미국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의 약 99%가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프로 시장에는 약 1700명의 에이트가 MLB, NFL, NBA, NHL 등에서 선수 협의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스포츠 프로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자기 관리에 따른 수입 창출을 위해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고, 선수 에이전트가 단순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 선수의 생사존폐 여부를 가늠하는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의 스포츠의 선수 에이전트의 위상은 매우 높게 평가된다. NBA 협회에 대한 선수의 입장과 프로 구단의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에이전트들의 선수의 입장으로서의 대처 능력과 의견 조정 수단은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선수들의 이러한 긍정정인 협상에 의한 권익 향상은 스포츠 에이전트들의 노력의 산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이처럼, 연간 수익 20억 달러에 달하는 NBA의 수익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스포츠 산업, 그 안의 스포츠 에이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또한, Kenneth L. Shoshire(1990)는 그의 저서 'Agent of Opportunity'에서 스포츠 세계에서 구단과 선수의 상호 대립을 피하고 서로 협상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에이전트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Mel Stein(2001)은 그의 저서 'How to Succeed as a Sports Agent'에서 스포

츠 선수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각 구단과 리그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선수 자신에게 최적의 구단을 찾아 수 있는 판단력과 분석도구를 가지고, 선수의 단점마저 장장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에이전트라고 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논문이나 저서를 통해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나 능력에 대한 글을 써서,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Ⅱ-2. IMG의 발전과정과 시스템 운용

선수 에이전트의 능력은 스포츠의 경기 결과에 있어서 경기실적이 다른 선수보다 기량이 떨어지는 자신의 고객이 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ESPN.com'에서 2002년 조사 실시한 스포츠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100인 중 마크 맥코맥 IMG 회장이 10위, 마이클 조던 등 개인 에이전트로서 NBA 올스타 선수 24명 중 9명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비드 폴크가 13에 오르는 등 에이전트가 10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특히, IMG는 이 10명의 에이전트 중 4명의 에이전트를 보유 하고 있다.

구 성	사 업 내 용
IMG :International Management Group	스포츠 선수의 모든 활동에 관한 대리 에이전트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예술 이벤트시리즈의 소유 및 운영·관리주요 이벤트 : 골프 - 전영 오픈골프, 전미 오픈골프, 월드 매치플레이, 테니스 - 윔블던대회, 기타 - 아메리카즈컵
TWI :TransWorld International	세계의 스포츠 프로그램(주로 TV용)을 제작·배급하는 최대의 독립회사
IAI :InvestmentAdvisers International	주로 계약고객에게 투자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으며 계약고객이 아닌 기업의 중역이나 개인사업가를 위한 투자 상담

[IMG의 주요 사업내용]

IMG는 선수 에이전트 사업을 바탕으로 TWI(Trans World International)를 통해 전 세계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IMG의 매코맥 회장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방송도 스포츠에 접목시켜 스포츠산업으로 형성·발전시켰다. 현재 IMG는 TWI(스포츠 전문 방송 독립 제작 배사)를 기반 구축으로 전 세계에 제공하는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수관리와 방송은 물론 골프 종목의 분야에서 매년 50 여개 이상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면서 신진 스포츠선수를 양성하고 있으며, 골프, 테니스, 축구, 야구 아카데미를 통해 활발히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선수 관리 및 대행 측면에서 대단한 인프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스포츠선수뿐 아니라 모델, 방송인 , 방송 해설원 등의 스케줄도 사업의 영역으로 관리 하고 있다. 한 IAI(Investment Adviser International)를 운영하면서 투자 상담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실현해가고 있다.

Ⅲ. 한국의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

Ⅲ-1. 현황

현행 프로스포츠 종목 7개 단체의 규정 에이전트 관련 내용의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2개 단체(남자프로골프, 여자프로골프)를 제외하고, 국내선수 및 외국인선수를 위한 에이전트 규정은 모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다만, 프로야구는 규정은 있으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프로농구, 프로배구 여자 프로농구는 규정상 에이전트제도의 시행은 가능하나 에이전트가 없는 현실이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공인 국내 에이전트 수는 축구 71명(국제축구연맨 등록), 야구 약 50명, 농구 7명(국제농구연맹 등

록), 배구 9명(국제배구연맹 등록) 등 4개 종목 약 137명이 각 종목별 국제 스포츠기구에 등록되어 있다. 위 종목 중 유일하게 표준 에이전트계약서가 있는 프로축구의 경우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에이전트 규정을 통하여 공식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인정하고 있었다. FIFA 에이전트 시험을 합격한 에이전트 외에도 선수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해당국가의 변호사가 FIFA 선수에이전트규정 제4조에 따라 선수를 대리하여 활동 할 수 있었으나, 2014년 6월 제64회 FIFA 총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기존의 에이전트제도 대신 중개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표준 에이전트계약서마저 없는 종목들은 일부 상위권 선수들만 비공식적으로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인·비주전·신고선수 등 저연봉자의 연봉 인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구단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에이전트 난립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에이전트의 경우 경험미숙, 한탕주의적 일처리, 무자격 에이전트 난립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 문제점

문제점으로는 일부종목의 에이전트 제도 미운영, 해외 진출 내국인 선수, 국내 진입 외국인 선수에 한정된 에이전트 계약 등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활동 중인 내국인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스포츠의 주체인 선수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해 심리적 불안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발생에 따라 선수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이 미비하다. 특히, 프로구단-선수 간의 계약서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했다. 또한, 무자격 및 무분별한 에이전트 난립으로 인하여 위약금 및 에이전트 수수료 반환, 이중계약 분쟁, 에이전트 전횡, 무자격 에이전트 계약 중계 등 분쟁사례 증가 및 문제점 발생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구분	(국내선수) 에이전트 규정유무	(외국인선수) 에이전트 규정유무	(국내선수) 에이전트 제도 시행여부	표준 에이전트계약서 유무	에이전트 제재 규정 유무
프로야구 (KBO)	× (규약 제42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해 시행 보류)	○ (외국인선수 계약서 제10장)	X	X	X
프로축구 (K리그)	○ (규정 제2장 제1조 제2항)	○(좌동)	○	○ (FIFA 및 KFA 중개인규정)	○ (상벌규정)
프로농구 (KBL)	○ (등록제/규약 제76조)	○ (외국인선수 관리규정 제14조)	△ (국내선수 에이전트 없으나 규정상 시행 가능)	x	△ (상벌규정)
프로배구 (KOVO)	○ (규약 제65조 및 68조)	○ (외국인선수 관리규칙 제5조)	△ (국내선수 에이전트 없으나 규정상 시행 가능)	x	△ (상벌위규정)
남자 프로골프 (KPGA)	x	x	△ (규정 없으나 허용)	x	x
여자 프로골프 (KLPGA)	x	x	△ (규정 없으나 허용)	x	X

Ⅳ. 결론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국내 스포츠 스타들의 세계 스포츠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은 국내 스포츠 산업의 규모적인 성장이나 질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스포츠 에이전트의 전문적인 교육과 양성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 산업 및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거대한 경제규모에 힘입어 산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세계 시장에서 이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스포츠 에이전트의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IMG를 중심으로 미국의 스포츠 에이트 산업의 태동부터 현 단계의 산업 등을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경우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써 프로 스포츠 산업도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산업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과 규모를 갖추면서 스포츠 에이전트의 산업도 스포츠 마케팅의 한 범주에 벗어나 독립된 산업으로서 가치 창출을 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에이전트 산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스포츠 에이전트를 독립된 산업 분야로 인식하고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스포츠 에이전트의 기대 역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봉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선수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타당성있는 평가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정보 분석력과 협상력을 갖춘,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스포츠 에이전트의 필요성에 대해 기업과 구단, 선수가 동반자 인식을 같이하고, 스포츠 에이전트의 육성기이나 단

체를 조직하여 스포츠 에이전트의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스포츠 에이전트의 영향력은 선수와 구단의 갈등 중재를 넘어 전 세계의 스포츠 선수들로부터 선수들의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에이전트라는 신뢰를 확보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우선적으로 관련 협의회 구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재 단체 및 에이전트 자체단체 등의 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Ⅴ. 참고문헌

- 김방출(2004), 미국 스포츠 산업의 세계화 전략, 한국체육대학회지, 44(1)
- 박용주(2003), 한국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식(2004),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선수 에이트 활용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남희(2003),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필수(1999), 스포츠 에이전트의 현황과 전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영어회화와 영어수업
의사소통과 교육의 관계

English Conversation and English Cla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education

경희 고등학교 2학년 1반 3번 이름 김경수 Kim Gyeong Su flash2564@naver.com
경희 고등학교 2학년 1반 25번 이름 진지현 Jin Ji Hyun wlgus0230@gmail.com
경희 고등학교 2학년 1반 27번 이름 홍지원 Hong Ji Won hjw400@naver.com
경희 고등학교 2학년 3반 19번 이름 윤종호 Youn Jong Ho younjongho2@gmail.com

초 록

본보고서는 영어 회화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국의 영어교육은 문법과 독해위주의 암기적인 형식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왜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어권 나라들의 의사소통 방식(사생활 적인 부분), 'no-brainer'등과 같은 영어 속어 및 관용적 표현들(신체에 관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방식을 통해 핀란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핀란드의 영어교육에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통해 한국과 핀란드의 영어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국은 이 부분에서 어떠한 점을 알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후 의사소통, 관용적 표현같이 실생활에서의 표현들을 영어교육에 적용하여 교육방식을 바꿔야하는 이유와 그렇게 바꾸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예상을 해보도록 한다.

Abstract

This report explains the importance of English conversation and the problems of Korean English education. English education in Korea is a memorized form of grammar and reading comprehension. As to why this approach has been taught, English slang and idiomatic expressions (expressions about the body) such as the way English-speaking countries communicate (the private part) and 'no-brainer' (the body). And through Finland's education system, Finland explains how to teach students, what is important in Finland's English educa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Finland's English education through elementary school textbooks, and what Korea should know in this area. Then, apply real-life expressions such as communication and idiomatic expressions to English education to predict why they should change the way they are taught and how they will work if they are changed.

I. 서론

언어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영어 회화에서는 우리가 그 뜻을 직역해서는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Break a leg!'라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했을 때에는 '부러진 다리',' '다리 부러져라!'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이 표현은 '행운을 빌어', '잘 해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처럼 우리가 그저 단어, 문법만 외운다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언어이다. 그러나 한국식 영어교육은 암기식 교육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 4명의 인터뷰를 보면 4명 모두 한국 학생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고 성실하지만 한국식 교육은 시험과 암기에 너무 치중되어있다. 이 때문에 영어로의 소통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다. 이 인터뷰만 보더라도 한국식 영어교육은 수능과 학교 시험들을 위해서 암기를 통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저 단순암기식 공부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이는 곧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나타나고, 다시 이는 곧 의사소통능력부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과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관용어 등에 대해서 논문을 통해 조사 후 분석해보고, 이러한 의사소통을 이용한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II. 선행연구 I-영어 의사소통 방식

1. 사생활 관련 질문

먼저 영어권 나라와 한국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한국인들이 초면 혹은 조금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흔히 질문을 주고받는 주제들을 선정해본다. '어디에 사는가,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결혼 계획, 결혼 여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결혼하지 않은 이유, 자녀 여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자녀가 없는 이유, 애인 사이 여부, 종교 여부, 나이, 수입, 혼자 사는지 여부'를 중부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 원어민 대상 교사 연수과정에 참여한 영어 원어민 중 북미권 출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이 표1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및 국가 분포이다. 이 설문은 첫 번째로 이 주제들을 초면,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이고 두 번째 조사는 이 질문들을 받았을 때 받는 느낌에 대해서 '불쾌하다', '매우 불편하다', '약간 불편하다', '괜찮다'로 나누어 설문을 받아 분석한다. 위 표는 응답률의 합이 55%를 넘은 질문들이다. 대부분의 질문을 보면 초면인 경우에는 그 수치가 낮은 편에 속하고 조금 아는 경우에서 50%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아 이 설문을 통해 영어권 나라들과 우리나라 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표는 응답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 중 수입에 대해서,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이를 보아 우리나라와 친한 사이에서도 하는 질문이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정적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된 주제 역시도 1위가 자녀가 없는 이유, 2위가 수입에 관한 질문에서 불쾌감을 많이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또, 초면인 경우, 아는 경우에서 질문할 수 있다고 대답한 질문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아 영어권인 나라의 북미권 나라들과 한국간의 사생활의 문화적 차이를 알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어 수업에서는 문법, 단어만을 외우지 않고 담화상황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영어 수업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어 원어민에게 사생활 관련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한국과 영어권 나라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느 부분까지 어느 사이에서 질문할 수 있고,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에 대해서 같은 사생활적인 부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소통적인 부분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문화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영어 교육부분에서도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표 1>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성별 및 국가별 분포

	미국	캐나다	total
남	7	15	22
녀	16	11	27
합계	23	26	49

<표 2> 초면이나 조금 아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주제에 대한 응답결과

사생활 관련 주제	남성에게			여성에게		
	조금 아는 경우 n(%)	초면인 경우 n(%)	합계 n(%)	조금 아는 경우 n(%)	초면인 경우 n(%)	합계 n(%)
어디에 사는가	19 (38.8)	21 (42.9)	40 (81.7)	18 (36.7)	20 (40.8)	38 (77.5)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23 (46.9)	20 (40.8)	43 (87.7)	22 (44.9)	20 (40.8)	42 (85.7)
결혼했는지 여부	25 (51)	13 (26.5)	38 (77.5)	26 (53.2)	1 (22.4)	37 (75)
(결혼했다면) 자녀가 몇인가	25 (51)	10 (20.4)	35 (71.4)	25 (51)	10 (20.4)	35 (71.4)
데이트상대가 있는가	21 (42.9)	10 (20.4)	18 (63.3)	25 (51)	8 (16.3)	33 (67.3)
종교가 무엇인가	20 (40.8)	11 (22.3)	31 (63.1)	20 (40.8)	11 (22.4)	31 (63.2)
혼자 사는지 여부	20 (40.8)	10 (20.4)	30 (61.2)	20 (40.8)	7 (14.3)	27 (55.1)
나이가 몇인가	18 (6.77)	9 (18.4)	27 (55.1)	16 (32.7)	7 (14.3)	23 (47)

<표 3> 초면이나 조금 아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겠다는 응답률이 낮은 주제에 대한 응답 결과

사생활 관련 주제	남성에게			여성에게		
	조금 아는 경우 n(%)	초면인 경우 n(%)	합계 n(%)	조금 아는 경우 n(%)	초면인 경우 n(%)	합계 n(%)
언제 결혼할 계획인가	7 (14.3)	4 (8.2)	11 (22.5)	8 (16.3)	4 (8.2)	12 (24.5)
외로움을 느끼는가	7 (14.3)	2 (4.1)	9 (18.4)	6 (12.2)	2 (4.1)	8 (16.3)
(결혼하지 않은 경우) 왜 결혼하지 않는가	3 (6.1)	2 (4.1)	5 (11.1)	3 (6.1)	2 (4)	5 (10.1)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왜 자녀가 없는가	3 (6.1)	2 (4.1)	5 (11.1)	2 (7.1)	1 (3.6)	3 (10.7)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1 (2)	1 (2)	2 (4)	1 (2)	0 (0)	1 (2)

2. 영어 속어, 관용어

이제 우리가 직역하면 안 되는 영어 속어, 관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 보고서에서 속어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미국드라마에서 'Seems from your tone, detective, you consider this kind of a no-brainer'라는 문장에서 'no-brainer'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뇌가 없는, 멍청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된다고 직역된다. 하지만 이 문장의 해석은 '너의 말투를 보니 이 일은 아주 쉬운 일로 보는 군요'로 'no-brainer'이라는 표현이 쉬운 일, 간단한 일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눈에 관련된 표현이다. 'eye-in-the-sky'라는 표현이 있다. 이를 직역하면 역시 하늘의 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뜻이 된다. 이 단어의 뜻은 감시용 카메라라는 뜻이 있는 표현이 된다. 이 외에도 'eye candy-매력적인 남자나 여자'같은 표현이 있다.

세 번째로 코에 관련된 표현이다. nose job이라는 표현은 처음 봤을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속뜻은 코의 성형 수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rub someone's nose in it'이라는 표현 역시 직역해보면 '누군가의 코를 문지르다'라고 해석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없다. 우리말로 하면 '좋지 않은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서 괴롭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드라마 Gossip Girl에서는 'Coming to rub my nose in it?'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표현을 '내 코를 문지르러 왔나?'라고 해석하면 내용이 이상하게 된다. 이 표현은 '날 괴롭히려고 왔나?'라고 해석해야한다. 이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III. 선행연구 II-의사소통과 교육

1. 영어교육이 이렇게 된 이유

한국식 암기형 영어교육은 왜 나타났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영어교육이 왜 시작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한다. 먼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진 문물에 우리나라는 선진 문물들을 수용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된다. 사절단들은 미국의 선진문화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후 최초의 근대식 관립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을 설립하게 된다. 미국에서 헐버트, 길모어, 번커 등의 교사들이 오며 학교가 운영되었다. 선교사였던 랜도어가 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양반인 장씨의 아들은 왕명으로 통역에 임명되었고, 19세의 이 젊은이는 F와P 발음을 구분해 발

음하였고, 영어의 해석과 회화에 완벽하였다"라는 구절을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말에는 현재도 어려운 발음 구별을 해내었고, 회화를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면서 육영공원이 폐교된 이후에도 있었던 학교들의 교사들이 원어민 교사에서 모두 일본인 교사로 바뀌게 된다. 이후 문법과 독해를 강조하는 일본식 교육으로 모두 바뀌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핀란드의 영어교육

핀란드는 성공적인 영어 교육의 모델이다. 별도의 사교육 없이 9년간의 공교육 기간 후 학생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게 되며, 핀란드 국민의 약 70% 이상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영어능력 평가 지수에서 116개국 최상위권(16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영어 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6개국 중 59위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1인당 사교육비 1위가 영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공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먼저 핀란드의 영어 교육과 학습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영어 교육 전공)과의 면담내용을 보면 교장선생님께서는 한국 영어교육과 핀란드 영어교육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 핀란드는 원어민 교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국어를 통해 영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모국어를 알고 있는 자국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더 이롭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점이다. 언어를 배우는데에는 문법도 중요하지만 듣고 말하기(의사소통)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영어교육, 즉 언어교육에서는 문법과 독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듣고 말하기가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초등학교3학년 교과서에서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핀란드에서 배우는 양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4년간 학습하는 단어의 양이 핀란드에서 한 학년에서 배우는 양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양이 듣기/말하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두 번째는 쓰기 활동이 우리나라보다 핀란드가 더 많다. 그리고 핀란드의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방법과 평가부분에서도 핀란드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학습할 언어 내용 소개, 기능적 유용성 강조, 실생활에서의 어휘 등을 제시하고 비디오를 시청,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한다. 이후 즉흥적인 짝 토론, 짧은 드라마/이야기 쓰기 등등의 활동을 하며, 구두표현 능력, 서로 다른 문화 이해에 강조를 둔다. 평가방식에서도 말하기 평가를 철저하게 하여 기본적인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한국교육이 핀란드 교육에서 유심히 봐야하는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영어 노출을 통해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원어민 교사가 아닌 내국인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것,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핀란드에서는 노래, 등을 교과서에 실으며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함께 배우도록 하며 유창성을 기르고, 문법 학습과 번역을 통해 정확성까지 겸비한다. 거기에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자료들을 제시해준다. 관용적인 표현 등이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핀란드의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다.

IV. 결론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보통 암기식 교육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함께 나타나 있기도 하다. 우리가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 여기서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용어들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나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배우지 않은 채 문법과 독해에만 치중한다면 정작 중요한 실제 상황에서는 딱딱한 단어들로만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영어의 문법과 독해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족하였던 듣기와 말하기 파트를 추가하서 글을 쓸 때와는 다른 대화를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익힐 수 있게 하고 대화 시,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담화상황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대에게 불편함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용표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문화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참고문헌

- 유범. (2004). 영어권과 한국의 의사소통 방식 차이. 언어학 연구, (8), 125-137.
- 김인옥, 박지희. (2017). 면담과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핀란드 영어교육의 시사점. 언어학 연구, (42), 289-310.
- 이상혁. (2016).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속어 및 관용표현에 관한 연구. 동서인문학, 51(), 189-210.
- 신봉수. (2004). 영어 관용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 EFL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와 이해책략에 관한 연구. 신영어영문학, 27(), 255-278.

미국을 통해 본 장애인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과학의미래

The Future of Sports Science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Sports Marketing for the Disabled through U. S.

경희 고등학교 2학년 3반 20번 이 규 환 (LEE, KYU HWAN) firstgh@naver.com

초 록

현재 국내 장애인체육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엘리트선수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장애인생활체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이다.

스포츠산업의 핵심적인 기업 활동 중 스폰서십과 스포츠마케팅이 장애인스포츠에 접근 가능한 분야로 장애인스포츠도 그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에 장애인스포츠 관련자 그리고 대중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치 지향적 관점에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활성화 방안,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의 전문인력 양성, 스타 마케팅을 통한 비즈니스로의 가치전환, 미디어를 통한 휴먼마케팅은 장애인스포츠 전반적인 분야의 발전요인이 될 것이며,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방안으로 논의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향후 선수, 지도자, 체육 담당자 등 관련자 사이에 마케팅 활성화 여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부서와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장애인스포츠 관련단체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할 때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Currently, sports for the disabled are supported by elite disabled athletes despite various laws and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nalize the sports for the disabled in Korea by comparing the laws related to sports related to the disabl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mong the core corporate activities of the sports industry, sponsorship and sports marketing are accessible to disabled sports, a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mote sports marketing through disabled sports from a value-oriented perspective that can be shared and participated by the disabled sports concerned and the public at a time when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re required. As specific measures, it is expected that measures to revitalize companies' social contributions, train the professionals of sports marketing for the disabled, shift the value to business through star marketing and human marketing through media will be factors of development in the overall field of disabled sports, and will be discussed as positive measures for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we expect that discussions and research on marketing activation conditions should take place among players, leaders and sports officials in the future, and that development will only be possible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eleva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well as the marketing department of companies and sports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that induce social contribution.

Ⅰ. 서 론

A. 연구의 배경

최근 스포츠 산업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놀랍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 공헌 활동이 요구되면서 스포츠분야를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여러 기업에서 개발·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프로 구단 및 프로 스포츠를 활용한 사회적 공헌 활동과 기업차원에서 비인기종목 및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등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 적 책임활동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흐름은 프로 스포츠뿐 만 아니라, 생활체육, 장애인스포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후 장애인스포츠의 행정 체계 구축과 가맹경기단체의 기반 구성, 장애인스포츠의 인식 개선 및 홍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엘리트 스포츠의 강화 등 장애인스포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 예로 지난 '2008 베이징 패럴림픽은 과거의 패럴림픽과는 달리 포털 사이트의 특별기획구성 및 공영방송의 특별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인터넷 경기 생중계, 각종 경기결과 및 대회 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는 장애인 스포츠의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혜적 측면만이 아니라, 스포츠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스포츠마케팅의 한 분야로 차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준 큰 발판이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의 산업화는 현대 스포츠의 흐름에 부합 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스포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모델 구축에 적절한 재원과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애 인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활동은 기업이 속한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의 경제주체가 국가에서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개인보다 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오늘날의 기업은 사회적 지위에 적합한 사회 적 책임활동의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즉, 기업의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는 기업이 단순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역할 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은 '기업과 사회의 상생'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의 이윤창출 측면과 사회공헌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분야이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으로 마케팅을 전문화 할 수 있다.
셋째, 스타마케팅을 통하여 장애인스포츠를 비즈니스 분야로 전환 할 수 있다.
넷째, 미디어를 활용한 휴먼마케팅을 스포츠 산업에 적용 할 수 있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스포츠산업화에 발맞추어 장애인스포츠도 산업화의 일부로 성장하고 있고,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이며, 스포츠균형 발전의 주체라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A. 스포츠마케팅의 개념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 제품을 매개로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창조적인 교환활동이며 교환과정을 통해 스포츠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

는데 목표를 둔 활동의 총합이다.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용어는 1978년 광고시대(advertising age) 라는 잡지에서 당시 스포츠를 하나의 촉진 수단으로 사용하던 소비자, 산업제품 그리고 서비스 마케터들의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
스포츠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스포츠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스포츠의 마케팅과 스포츠 활성화를 통하여 다른 소비재 또는 산업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으로 구분한다.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를 직접 제품화하여 판매 및 서비스하는 마케팅 활동을 의미하며,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은 기업이 스포츠를 이용하여 제품판매나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활동이다.
이번 연구에서의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으로서, 기업에서의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인 전통적인 4P방식에 공공성을 추가한 5P로 설명하고 있다.

1)스포츠마케팅의 5P's

1.제 품 (Product)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에서 제공하는 용품시설 등의 유형의 제품과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의 무형의 제품을 의미한다.
2.가 격 (Price)
제품이나 서비스에 화폐액으로 표시되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서 지불 하는 가치이다.
3.유 통 (Place)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 경로에 미치는 장소로서 스포츠 용품 등을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전달하는 장소와 경기장이나 스포츠 센터 등의 시설을 말하고 이와 관련한 입장권 판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다.
4.촉 진 (Promotion)
표적으로 삼고 있는 시장의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언론홍보, 광고, 대인판매 등의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품에 관한 이미지나 특성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의미한다.
5.홍 보 (Public Relations)
스포츠관련조직이 대중으로부터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비용 없이 홍보나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의미한다.

2) 스포츠마케팅의 필요성

미래의 스포츠마케팅은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스포츠기업들에게 성장과 번영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스포츠 마케팅이 스포츠 시장에서 보편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사고를 고객 지향적 또는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전제로 스포츠마케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산업의 급격한 증가는 스포츠와 여가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이 높아 지는데 주목해야 한다.
둘째, 스포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심화는 각 기업 간의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스포츠마케 팅의 전문화 필요성을 말해준다.
셋째, 스포츠 이벤트는 기업에게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림픽 및 월드 컵 등의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자사의 스폰서십을 발휘하여 수익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유로 기업은 이벤트, 행사 등에 스폰서십을 활용한 자사의 이미지 제고를 높이 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넷째, 스포츠를 즐기는 계층의 다양화, 복잡화 경향으로 획 일적인 프로그램 및 정형화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맞춤형, 특수성을 포함하는 서비스측면의 스포츠분야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차원에서 월드컵, 올림픽 등 세 계적인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고 자 할 때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국가의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관람객 유치, 인프라구축으로 인한 고용창출 등 무한의 경제적 가 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스포츠마케팅의 목적

기업들이 마케팅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판매시장 및 이를 통해 이윤을 증가하는 데 있다. 점점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여가생활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현 상은 스포츠 스폰서십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 준다. 기업이 스포츠 스폰서십에 참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매출증대에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유명 도를 상승시키거나 지속시키는 것은 스포츠 스폰서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이다. 이 목적은 무엇보다도 시청자와 미디어효과에 적합한 스포츠 종류와 스포츠 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세계일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후원에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스폰서십이 추구하는 또 다른 목적이다. 스포츠의 이미지가 기업의 이미지로 전달될 때 스포츠스폰서십은 성공한 것이며 이러한 이미지 변화는 장기적으로 스폰서십을 행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셋째, 특정한 국민집단에게 그 기업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구하며 사회 적인 책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접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스폰서십을 통해 임직원의 단결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또한 후원하는 스포츠 행사에 고객, 구매자 등을 선택적으로 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 스폰서십은 다양한 형태이며, 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은 스포츠 스폰서십에 참여할 때 기업이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스포츠 스폰서십은 기업의 여타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통합되어 실행될 때 스폰서십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4) 스포츠마케팅의 역할과 종류

기업이 스포츠마케팅에 참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업 PR수단 중 스포츠 이벤트나 스포츠 팀 운영을 통한 기업PR이 대중과 자연스럽게 밀착할 수 있고, 보다 강렬하게 널리 알리면서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그들의 스포츠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친근감과 함께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 기업의 스폰서는 그들이 후원하고 있는 스포츠이벤트에 근거 하여 그들 제품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관중을 대상으로 마케팅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스포츠 스폰서십이다. 스포츠 스폰서십이란, 기업이 현금이나 물품 또는 노하우나 조직적 서비스를 운동선수나 팀·협회·연맹· 스포츠 행사를 지원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기획·조직· 실행·통제하는 모든 활동이다.

기업의 다양한 목적들을 궁극적으로 범주화시켜 보면 물론 매출 증진을 비롯한 직원사기 고취 등의 단기적 목표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스폰서십을 통한 기업의 인지도 향상,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 브랜드 태도의 향상,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브랜드 자산 적인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된다.

B. 장애인 스포츠의 개념

장애인 스포츠란, 체육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의미하는 보편성을 띤 전문용어로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장애인과 체육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이다.

체육에 대한 정의는 학문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활동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하여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영역"이다. 이러한 정의는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과 목적에 따라 학교체육(physical education), 스포츠(sports), 게임(game), 놀이(play), 운동(exercise), 신체활동(physical exercise)등으로 분류하고 영문 표기를 다르게 하면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체육이라는 용어의 쓰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그 의미를 통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간의 움직임 목적과 양상에 따라 표기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스포츠, 운동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체활동을 포괄적으로 '체육'이라 이해하듯이 '장애인 스포츠'는 체육 의 한 범주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최소한의 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된 사람들이 하는 체육활동 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는 의미를 단순히 개념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장애인스포츠는 생리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개별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 체육활동을 적절히 변용하여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하는 일련의 활동이 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장애인의 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활 수단으로서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 차원과 신체 기능 퇴화 예방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Ⅲ. 국내와 미국의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과정 및 스포츠 기업의 사회공헌

A. 국내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및 병원, 재활원 등에서의 체육활동과 장 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재활·의료 패러다임의 수동적 개념으로 머물러온 장애인 스포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업무 이관과 더불어 대한장애인체육회 발족을 통한 새로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동법 시행령의 시행은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1)국내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과정

1.태동기 (1960～1974)

－장애인체육의 시작 • 군사원호청 창설(1961) • 국제척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1965～) •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최(1967)

2.전개기 (1975～1988)

－국내 장애인 체육 기반구축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건립(1975)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체육대회 개최(197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1981～)

3.발전기 (1989～1999)

－장애인체육 조직 창립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1989)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편(1999)

4.정착기 (2000～)

－장애인체육 법적 근거 마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최 시작(2000)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5.7) •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11) • 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신설(2005.12) ⇒장애인체육팀으로 개편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설립(2006.5)

B. 미국의 장애인 스포츠

미국의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스포츠위원회(COSD)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아마추어스포츠 법과 장애인교육법을 토대로 지원되고 있다.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게 재활체육과 생활체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재원도 주로 민간조직의 자금으로 운영된다.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 체육레크리에이션센터의 대부분은 비장애인과 일반 체육 시설에서 통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특히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라는 장애인 생활체육 캠페인을 벌여 장애인의 체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1) 미국 장애인 체육의 발전

미국 최초의 장애관련 연방 법안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후 부상당한 군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제정된 직업·재활 법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그리고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폭이 재활군인을 비롯하여 장애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까지 확대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이전의 법들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에 편중되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제정보조 등에 중점을 두었고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창기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안들은 장애인에게 체육이라는 활동을 보조하기보다는 재활을 위한 신체활동을 강조 하였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과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등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던 장애인에 대해 평등하고 통합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은 더 이상 재활체육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운동을 즐길 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강조를 두게 되었고, 체육활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

2)미국의 생활체육 캠페인

미국은 'I can Do it, You can Do it!'(이하 ICDI)이라는 장애인 생활체육 캠페인을 벌여 장애인의 체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ICDI는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안된 것으로, 학교, 대학 및 지역사회단체와 연계를 맺어 장애청소년 및 성인에게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ICDI 프로그램은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 개개인에 맞는 신체활동과 식생활 목표를 설정해줌으로써 정기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영양소가 갖춰진 음식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멘토에게는 ICDI 프로그램 매뉴얼과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전문성을 길러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프로그램을 잘 이수한 멘토와 멘티에게는 '대통령 활력상(Presidential Active Lifestyle Award)'을 수여하기도 한다. ICDI 프로그램은 미국 36개주의 100개 이상의 도시에 보급돼 약 40만 명 이상의 유소년 생활체육인을 배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장애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미국 장애인 재활 주요 특성

미국 장애인 재활에 있어 몇 가지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5개 특정 장애 유형만이 재활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재활 서비스 안에 교육, 의료, 심리재활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 장애 등급이 없어도 서비스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15개 장애 유형 이외의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한 직업재활 기관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비, 보조공학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은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이다.

C. 장애인 스포츠마케팅과 기업의 사회공헌

1) 장애인 스포츠의 동향

최근 장애인스포츠는 국내·외적으로 체계화를 갖추게 되었고, 보다 경쟁적이며, 점차 엘리트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8 베이징패럴림픽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선수들이 펼친 경쟁의 장은 기록경기뿐만 아니라 종목별 하나하나의 경기결과가 감동 그 자체를 선사하였다. 근래의 장애인스포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의 생산 및 실용화가 대두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의 스포츠과학화는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이 장애인체육 연구와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한국특수체육학회 설립 후 학술교류 및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폰서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6년 공식 후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각 영역별로 후원사와 협약을 맺어 후원금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 브랜드 화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의 현황 및 문제점

스포츠 부문의 사회공헌활동은 타 분야에 비해 매체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노출효과와 파급력 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를 비롯한 크고 작은 스포츠 이벤트, 후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소비자들 에게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의 마케팅 대상에서 장애인스포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을 보다 발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기업은 장애인스포츠를,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한 분야로 인식하며, 기부나 자선 사업의 일부로 구분하고, 스폰서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업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를 위해 특수체육학계 뿐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 전공 인들은 연구를 통한 필요성 을 제시해야하며,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정책 입안의 수용적 태도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스포츠 이벤트 및 행사는 일회성 또는 단발성의 성격을 지니고, 차기 또는 정기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 스포츠행사의 예산 수입 현황 중 90% 이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체육담당 부처에서 예산의 투자 후 언론, 시민, 정치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면, 차기 행사의 예산을 삭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 장애인스포츠 태동기부터 장애인스포츠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후원에 있어 미온 적이고,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 날 수 없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까지 정부기관의 정책 의 성향에 따라 장애인스포츠는 지원 대상과 분야가 달랐고, 스포츠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장애인스포츠는 국내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전과 퇴보의 걸음을 반복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장애인체육 을 장애인 단체에서 담당해 왔고, 장애인 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었으며, 정부기 관의 정책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방적으로 편향된 구조였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의 공식적 인 이관 업무를 통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본격적으로 체육으

로서 인정받으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능동적 취지의 마케팅 전략을 구상 할 재원, 인력, 기획, 사회적 여건 등 전반적인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상황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계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은 진취적 자세로 사회 공헌 활동과 사회 기여의 시각에서 투자 및 후원을 유도하여, 선진화된 장애인스포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을 논의 할 수 있다.

3)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가치

공익연계마케팅이란 “기업이 특정한 공익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를 접한 고객이 기업과 개인 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교환을 할 때 기업의 수입에는 미리 약정한 일정금액을 그 공익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진 마케팅 활동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즉, 공익연계마케팅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높임으로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인지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며, 판매를 촉진시킨다. 또한 언론매체의 관심을 유도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부정적 여론을 완화시키는 등 해당 기업의 입장에 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목표가 이윤창출에서 사회공헌, 책임, 기여로 변화하고 있고, 장애인스포츠에 도 사회공헌 활동 분야가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그 필요성과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다른 분야보다 장애인스포츠가 다양한 공헌, 책임활동 중 기업의 가치 와 목표를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마케팅화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일반인이 누리는 스포츠권리를 포기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지원과 후원으로 스포츠를 즐긴다면, 소외감과 상실감만을 지니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에서, 당당히 사회와 교류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삶으로 전환 시킨 공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사회공헌활동과 사회 기여의 기업 PR의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기업의 후원 활동이 대중들에게 광고와는 달리 스폰서 대상에 대한 사회적 기부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스폰서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마케팅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면 단체 이미지와 단체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전 할 것이고, 기업 제품의 직접적인 매출상승과도 연관성을 지니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측면의 마케팅의 적용 가능성은 많은 관계자들로 하여금 큰 의미를 갖게 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Ⅳ.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 방안

2008 베이징 패럴림픽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는 스포츠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연구들은 장애인스포츠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 로 연구 되어야 하는 장애인스포츠 산업화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높여,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의 산업적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화 흐름에 부응해야 할 구체적 연구 방안이 필요하며,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 진출을 통한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애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CRM)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주고, 인지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며, 판매를 촉진시킨다. 또한 언론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부정적 여론을 완화시키는 등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일을 가능케 한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결식 퇴치, 청소년 독서증진,

유방암 예방 및 치료, 학교정보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공익 연계마케팅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공익연계마케팅은 장애인스포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촉진해야 할 영역이며, 진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연계마케팅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공기업의 타이틀스폰서(title sponsor)역할 수행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스포츠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추구하는 사회 공헌의 역할로서 충분히 수행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독거노인 돌보미, 결식아동지원, 장애인보장구지원, 해외 난민 구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이미지상승 유발, 매출증대, 민 간 기업 참여유도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니면서, 기업 이익의 나눔과 실천을 통한 사회 환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공기업의 타이틀 스폰서가 공식화 될 경우, 일회성 혹은 단기적 지원으로 고착화된 장애인스포츠 현실에서 지속적인 투자로의 전환 기회가 제공되고, 여타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장애인스포츠 전체로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관련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예산지원으로 체육 시설의 확충과 스포츠 인프라구축으로 생활체육의 참여인구가 늘고, 참가자 위주의 활발한 스포츠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인프라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의 생활체 육 촉진을 통한 삶의 질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어, 공기업의 사회 환원 및 나눔, 실천의 미션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의지를 대외적으로 마케팅 하여 결과적으로 공기업과 장애인스포츠의 상생의 길이 마련 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의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의 스포츠마케팅 종사자 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스포츠마케팅학과와 공영단체가 설립한 스포츠마케팅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으며, 스포츠경영전문가, 경영 관리사를 양성하여 교육이수 후, 기업의 경영, 기획, 마케팅 분야로 진출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향상 및 이윤창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는 용어조차 생소할 정도로 전문화, 특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유일한 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마케팅위원회' 뿐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마케팅위원회가 마케팅 또는 스폰서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나,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스포츠 분야를 포괄하여 연구 및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실정 이다. 각 종목 및 단체의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반 스포츠의 기준과 방안을 장애인스포츠에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마케팅 발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스포츠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선도적으로 국내외 유능한 인력 확보, 전문 인재 양성 및 노하우 축적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교육기관에서 스포츠마케팅 관련학 과 중 장애인스포츠 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공인 화하여 이 분야에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많은 인재들 이 마케팅 산업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스포츠관련자와 기업의 마케팅부서, 정부 기관, 학계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별 또는 종목별 마케팅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스타마케팅을 통한 장애인스포츠의 비즈니스적 가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념이 승리 위주에서 수익사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스포츠의 최대의 특징인 상품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수익창출까지 겸비할 수 있는 것 중에 스포츠만한 광고 수단이 없다. 기업은 인도스먼트(endorsement) 마케팅을 활용하여 장애인스포츠 선수를 자사 광고에 출연시켜 사회공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부각된 이미지를 통한 매출 상승으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기업은 매출 증대가 발생함으로써 또 다른 장애인스포츠 선수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이 생성되고 이런 공식은 기업과 장애인스포츠분야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성 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분야에 스타마케팅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로의 가치 전환 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현 시대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어울림의 키워드 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타 기업의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넷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극적인 드라마를 심어주는 휴먼마케팅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미디어는 스포츠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 대중화는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는 스포츠라는 개념을 정착시켰으며 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스포츠로 영역을 확대시킨 것이다.

미디어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크게 향상 시켰고 생활 속에 서의 스포츠참여에 대한 인식변화로 스포츠 인구를 증가 시켰다. 스포츠는 미디어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 즉, 기사 또는 프로그램의 소재로써 정착되고 있으며, 기업의 새로운 광고매체 및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생활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스포츠를 새로운 광고매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스포츠 단체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미디어의 관심 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디어는 시청자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스포츠 편성비 율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써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행위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 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는 소비재적 특성을 갖는 것이다.

그 동안 경기력에만 관심을 쏟던 스포츠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 상품화된 엔터테인먼트'의 길로 들어섰다.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는 로컬 이벤트에서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미디어 마케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스포츠 단체의 재정적 필요를 연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미디어가 스포츠 경기를 중계함으로써 기업과 스포츠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스포츠분야에도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충분히 수립 할 수 있다. 좋은 성적이나 팀을 부각시켰던 마케팅콘텐츠가 소비자의 감동을 부를 수 있는 인간적 스토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중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는 장애인스포츠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즉, 참여할 수는 없고, 응원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마련된다면, 장애인스포츠는 스포츠로서의 역동성을 표출하면서, 장애를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용기 가 조합을 이뤄, 한편의 휴머니즘의 극적인 장르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제공됨으로서 대중은 노출된 공식스폰서, 타이틀스폰서 등 스폰서 주최자가 게시한 기업 홍보물을 의도와 관계없이 접하게 된다. 미디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접한 기업의 이미지는 그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 되며, 이미지 제고는 기업 상품의 직, 간접 구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각종 스포츠 대회의 심판은 인간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높은 프레임의 카메라가 대체될 확률이 높고, 수상인명구조원의 경우도 물에 빠진 위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상인명구조원의 안전도 고려한 무인항공기인 드론이 대체 될 수 있다.

B. 스포츠와 IoT

IoT는 사물의 인터넷으로 사람과 사물을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연결할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모든 경로와 네트워크 및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사물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세계의 모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직적적인 개입 없이도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의 각각의 구성요소들 간에 센싱, 네트워칭, 정보 교환 및 처리 등이 상호 협력적이고 지능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주대영, 김종기, 2014). 사물인터넷은 기술적으로 센싱·네트워크 인프라·서비스 인터페이스·보안으로 구성되어있다. 센서를 통해 측정된 신호들은 센서 네트워크로 불리는 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며, 전송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 위한 빅 데이터 기술·클라우드 인프라·보안기술 등이 필요하다. 스포츠 산업에서도 다양한 IoT 제품들이 출시되고, 이를 활용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 하고 있다. 각 종목에 특화된 제품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 생성과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다. IT 기업들은 과거 알 수 없었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세계최대 반도체 기업인 Intel에서는 동계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 동계 장비에 장착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였다. 스노 우

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은 선수의 속도, 높이, 거리, 체공 시간, 회 전, 착지 등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전송된다. Intel's Curie module은 여러 가지의 센서가 탑재되어있는데, 그 중 자이로스코프 센서, 가속도 센서, 고도 센서, 온도·습도 센서 등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된다. 센서들을 통해 각 개인별, 성별, 국가별 등의 각 특징에 따른 선수들의 기록들이 점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저장되어 이력관리가 가능 하고, 저장된 이력을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에 대한 훈련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Healthcare, 스포츠 산업, 스포츠 생산현장 등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스포츠 현장에 적용시킨다면, 스포츠 산업시장에서의 IoT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 스포츠와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이 존재함에도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주목받게 된 기술과 사회적 배경은 명확하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기술진보에 따른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능력의 확대와 더불어 데이터 저장 및 처리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둘째, SNS 등으로 대변되는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분석처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미래 예측 능력, 고급 분석은 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에 직결한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성, 처리, 유통, 표현, 소비까지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플랫폼 전체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빅데이터 수집은 조직 내·외부의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로 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처리 단순 데이터 확보를 넘어선 검색, 수집 및 변환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빅데이터 저장은 보다 의미 있는 정보 추출을 위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서 대용량, 비정형, 실시간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 방식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처리는 많은 양의 데이터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속도,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여 산업 등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서 통계학, 전자계산 학, 머신러닝과 데이터 수집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하여 수행한다.

빅데이터 표현은 기준에 따라 분석한 데이터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분석가 및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다양화하는 과정으로서 빅데이터는 기존의 단순 선형적 구조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국내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스포츠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스포츠 산업에서도 측정기술, 각종 센서, 통신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의 양산되는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지만 빅데이터의 활용과 이를 적용하는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기술 기반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더군다나 국내에서 빅데이터가 스포츠 경기력, 마케팅 또는 체력 건강증진 분야에서 중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빅데이터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인프라가 미숙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향후 스포츠 빅데이터 분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포츠 IT 융합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진보된 스마트 기반에서 엘리트 스 포츠분야 빅데이터 환경구축의 장애요인, 촉진요인과 기술환경 및 지지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설명하였다. 센서 기반의 경기 트래킹(track- ing)기술이 전술방향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 다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방법론을 지지해주는 이론적 모형의 개발과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론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엘리트 축구경기 전술분석과 빅 데이

터 적용 모형을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경기력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되었다. 영국프로축구의 레스터 시티에 빅데 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공개되었다. 레스터 시티는 경기장 내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각도에서 촬영된 경기 영상과 GPS가 포함된 웨어러블 장비로부터 수집 된 정보(뛴 거리, 순간 속도, 드리블 및 패스 패턴 등)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여 경기 전략을 수립하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도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였다. 즉, 레스터 시티의 2015-2016시즌 영국프로축구 우승은 스포츠과학,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스포츠 IT 융합 기술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경기 중 선수의 활동 이력 데이터는 속도와 일관성과 측정된 GPS 측정치와 게임 중의 이동 벡터(vector) 및 이동 패턴을 제공한다. 이는 선수의 심박 수와 이동거리 이력과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으며, 또한 선수의 주행 스피드와 심박 수는 선수가 필드에서 얼마나 활동적인지, 얼마나 쉽게 피로 해지는지를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로서 사용되어 진다. 경기를 통해 얻은 축구 선수의 정보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팀의 경기 전략과 선수의 역할 및 움직임 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팀 내의 선수들의 경기 중 성향을 보면서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 사이의 비슷한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수 교체 시 팀 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임에 대한 결과는 선수의 중요한 정보를 지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경기장 내에서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정량화가 된다. 또한 상대 팀의 선수에 대한 정보도 수집이 가능하다. 이처럼 스포츠에서의 빅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를 이루어 나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이다. 스포츠 종목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정보를 가공하는 일이 가능하면, 보다 나은 경기력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수학, 통계 및 IT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의 융합 교육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지만, 기존의 학과 단위의 교육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기업과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의 만남은 공존과 상생의 발전의 관계로 성장할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내재하고 있는 의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스포츠는 마케팅 측면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 및 사회 책임의 분야로 장애인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마케팅가치는 단순히 결과물이나 이윤증대로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계자 역할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셋째, 장애인과 정부, 기업 간의 갈등과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장으로 발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장애인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시혜적 측면의 수급 자였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기업, 일반 대중은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방법론 차이를 두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되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다른 분야 에도 소통하고 공감하는데 적용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마케팅, 특히 스포츠 스폰서십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체계와 선행,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스포츠 마케팅 발전 방안을 문헌 및 사례 연구만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각종 문헌 자료와 사례에 주목한 나머지 인터뷰, 또는 심층적 조사 방법이나 기업인, 장애인스포츠 관련자의 의견이 참고 되지 못함으로써 자칫 자의적 해석이라는 한계성 또한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차기 연구에서는 장애인스포츠의 스폰서십과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스포츠의 스포츠마케팅 결과가 장애인스포츠뿐만 아니라 투자 기업에 어떠한 부가가치 와 생산성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스포츠를 바라보는 마케팅 전문가의 설문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 관련자들의 인터뷰, 실험 자료 등의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분석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포츠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직업의 변화와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산업발전에 발맞추어 스포츠 과학 분야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관련분야에서 사라지는 직업과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개설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전공을 재창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스포츠과학이 도태되지 않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모든 장애인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여건 조성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이 장애인 체육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 김병우(2008), 장애인체육 정책과 제도 변화 고찰을 통한 발전방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인(2011), 기업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폰서십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만(2001), 프로야구의 관중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의 관계, 한국체육회지, 4(2), pp.347-360.
- 김용만·박세혁·전호문(2000), 스포츠마케팅, 학현사. 김용만·이승철(2004), 프로스포츠 팀의 공익연계마케팅 활용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3(2), pp.247-261.
- 김종(2002), 스포츠 이벤트와 TV중계방송과의 관계, 추계 국제광고학세미나 및 연차학술대회, 한국광고학회.
- 김종기(2009), 국내 기업의 성공적 스포츠 마케팅 사례 연구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조(1996), 스포츠마케팅, 태근문화사.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체육백서, 계문사.
- 신지숙(2009),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삼성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사적고찰, 경영사학, 24(2)
- 안병훈, 이승규, 이수열(2006),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 책임경영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조사보고 서, 한국과학기술원·대한상공회의소.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생존전략 모색-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inding a Strategy for Survival on the Korean Peninsula-

경희 고등학교 1학년 4반 9번 김영준 Youngjun Kim bomb5948@hanmail.net

초 록

국제 관계를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지만 자국의 수준을 자국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만큼은 모든 나라에 주어진 동등한 선물이다. 과거 우리가 매번 국제 정치의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역할에 급급했다면 이제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권력 정치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와 안보적, 경제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lthough it is difficult for a government alone to chang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an equal gift given to all countries to ensure considerable autonomy by making their own status as they please. In the past the Korean government had been busy merely playing a role of an acceptor who would only passively accept whichever change whenever of the situ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But, as far as the Korean Peninsula's problem is concerned we should now at least act as an active leader in making the situation as the way we want. For the sake of this, we need to accurately read and respond wisely to the ongoing version of international power politics.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accurately analyze the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security and economy, and Korea should implement the proper strategy.

I. 서론

최근 '불길한 아시아의 미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린 것은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 해군이 이 지역의 해상통로 안전을 담보하면서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정서 부활 등이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개하고 있는 일련의 '아메리카 퍼스트'식의 고립주의 정책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쇠퇴를 재촉하고 '팍스 시니카'라는 중국 중심의 질서 출현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력의 전환기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와 경제적, 안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분석을 통해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생존 전략의 실마리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한반도 정책의 기본틀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해 온 "미국 우선주의" 안보전략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트럼프가 선거기간부터 자원의 낭비, 국익추구의 비일관성을 비판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국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배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국익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NSS 2017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념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미국의 원칙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 전략이다. 물론 미국이 수호해야 할 사활적 국가이익의 범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NSS에서 미국,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전보장, 경제의 성장, 보편적 가치의 존중, 미국 리더십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질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이익을 지키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를 "힘의 축적"으로 본다면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전략적 이익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으나 단기적인 물질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국제적 사안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점이다. "힘의 축적"을 통한 "미국 우선주의"는 한반도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 같은 가치보다는 물리적 힘의 축적을 통해 대중국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NSS 2017은 중국과의 경제, 정치, 군사적인 경쟁관계 속에서,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공약하고 있으며, NDS 2018도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에 주목하고 있다. NSS 2017에서는 기존의 그것보다 북한에 대한 언급 횟수와 내용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식의 중점은 미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집중된다.

결국 한국과의 동맹이든 북한의 핵문제이든 한반도문제를 대중국관계의 하위요소로 판단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정책의 기조는 한반도에서도 유지된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틀은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관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특히, 2차 북중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미국의 대중국 경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만남 이후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 대한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결국 현재의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지구상 최고의 쇼"에 가려진 진짜 초대 손님은 중국인 것이다.

III. 한반도 정책 프로그램

1. "맞춤형 억제전략 (Tailored Deterrence)"

트럼프 행정부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NPR 2018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억제전략을 살펴보자. NPR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분명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ment)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심적인 관심은 정권의 생존에 있으므로, 이를 위협함으로써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맞춤형의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핵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였고, 아울러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 동맹국과의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 미사일에 대한 타격능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한 다면, 미국 본토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힘의 소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억제전략은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조건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 대한 보증공약을 살펴보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는 한국에 대한 보증공약과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NPR 2018에서 "맞춤형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태지역의 안보환경, 잠재적 적의 능력과 상이한 동맹구조,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동맹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전력의 유지, 지속적인 투자, 연합연습, 지속적인 협의 등의 보증조치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동맹이탈이나 자체 핵무장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한국의 비용 및 역할의 분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대 압박과 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트럼프는 북한이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파기한 것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기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미국 행정부가 너무 자제했던 것이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즉 김정은이 정권의 보전을 핵무기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점진적 접근이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권의 핵심을 겨냥한다. 맞춤형 억제전략이 군사적 수단, 핵사용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최대 압박정책은 비군사적 수단과 비핵화를 위한 것이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래도 계속 추구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북한에 부과함으로써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및 기타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교 및 금융조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력, 군사행동 및 태세의 변화, 사이버 영역에서의 행동 등이 포함된다. 북핵문제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이끌고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의 영향력 증진"이라는 사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핵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주도권과 우위를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최대 압박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보나 가치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간 관계를 규정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칭동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을 중국과 엮어서 생각하는 미국과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위협인식이 같을 수 없다. 2018년 갑자기 불어온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셈법이 같을 수 없다. 이른바 "연루와 방기", "자율성과 안보"의 딜레마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제재의 강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과 엮일 경우 한미 동맹은 재차 표류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7년 후반 미국의 예방공격 논란은 최대 압박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맹 간의 이견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3. "최고의 거래 (greatest deal for the world)"

협상가이자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간 관계 역시 "거래관계"로 인식하며, 투입된 비용만큼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행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북한체

제 보장과, 필요시 보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원하는 거래의 대상은 오로지 북한의 핵무기라는 점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불필요한 개입의 가능성을 낮추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 또는 봉인과 관계없이 한국의 비용과 역할 분담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역할의 확대보다는 비용분담이나 일본과의 협력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비용이나 경제적 반대급부만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곤란하게 된다. 사실 확장억제력을 제공받는 측에서는 동맹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유지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 우선주의와 충돌하게 된다. 동맹관계조차 "주고 받는" 거래의 관계 또는 협상에서 승패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동맹의 관계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방침에서도 볼 수 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2015년 처음 시작한 뒤 매년 12월 한·미 공군이 대규모로 치렀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예되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 지원'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미국의 속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외교가를 중심으로 나온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창인 국면에서 연합훈련을 미국이 연계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비용 문제를 들면서 연합훈련에 부정적"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소규모 연합훈련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Ⅳ. 정책 수단

미국은 전 세계에 걸친 경쟁 속에서 직면한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왔다. 크게 외교, 정보, 군사, 경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정책 프로그램별로 강조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맞춤형 억제 전략"은 군사적인 수단을 주로 채택하며, "최대 압박과 개입"과 "최고의 거래"는 외교와 경제를 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다루는 정책수단은 명시적으로는 북한을 향한 것이지만, 한반도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수단은 외교적 개입과 보상이다. 국제적 비확산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활동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제재의 강도를 증가시켜왔다. 미국은 강력한 독자제재를 채택할 뿐만 아니라 동맹 및 협력국들의 제재도 유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출구전략으로써 보상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며", "미국이 1995년 이후 북한에 13억 달러를 지원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 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는 정보수단이다. 정보수집, 내부로의 침투와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작전이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 활동 하는 불법 네트워크 또는 북한 정부와 관련된 밀수업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 공격적으로는 북한에 정보를 침투시키는 정보작전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 내 부에 정보와 역정보를 주입함으로써 정권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이반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유입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군사력이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 또는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국익을 수호하는데 익숙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군사옵션을 채택할 수 있음을 견지해왔다. 이를 통해 "전략적 예측 가능성과 전술적 불가 예측성 원칙을 북핵문제에 적용 및 전형적 강압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NPR 2018에 비교적 자세하게 군사적 수단을 명시했는데, 1)정권, 핵심 군사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강화된 지하시설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및 핵전력, 2)한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방어 능력 지속 강화, 3)조기경보시스템 및 타격능력을 이용하여 북한 미사일 전략을 발사 이전에 저하 하는 능력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한 경제수단이다. 미 의회와 재무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독자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미 하원은 2017년 4월,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북한 선박 운항금지 등 전방위 제재방안을 담고 있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을 의결했다. 이어 7월에도 북한 사이버공격을 지원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무부도 북한의 개인, 기관, 선박 등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무역 및 외환거래 중단, 주요 기업에 대한 제재,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의 북한은행 차단, 사

치품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된다. 유엔안보리 결의도 경제적 제재수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2397호는 정유 수입량의 90%를 삭감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산업 및 운송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장비 및 산업장비, 농산물 및 광물자원의 수출도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에 취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조치로 전례가 없는 것이다.

Ⅴ. 결론

2019년 6월 '트럼프, 군사 분계선 넘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북미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후 북미협상은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하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 또다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연말'이 두 달여 남은 상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까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번영과 통일을 달성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분석해보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 관계를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지만 자국의 수준을 자국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만큼은 모든 나라에 주어진 동등한 선물이다. 과거 우리가 매번 국제 정치의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역할에 급급했다면 이제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권력 정치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와 안보적, 경제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Ⅵ. 참고문헌

- 리처드 맥그레거,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 메디치(2019), 15쪽
- 윤영관, 외교의 시대, 미지북스(2015), 208쪽
- 손한별&이진기(2018),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한국군사, 20~29쪽
- 중앙일보, 한미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또 안한다. 이철재 기자, 2019. 11. 3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

韓國企業進入中國市場

경희 고등학교 2학년 1반 23번 정현도 Jung Hyun do kw091114@naver.com

초 록

중국 정부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주요 경제성장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소비확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소비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스마트 상품 소비 촉진, 야간 및 휴일소비 확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증가와 소비 업그레이드 현상에 따라 소비시장에는 다양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들의 해외 직구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품질과 가격, 브랜드의 균형을 맞춘 소위 가성비를 강조한 온라인 PB 마켓들이 새로운 소비채널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8억 명이 넘는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소비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이미 새로운 표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모바일 결제비중도 확대되며 소비의 모바일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우선 소비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 내 해외직구 플랫폼 등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채널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抄录)

中国政府把搞活消费市场作为主要经济增长课题,接连出台多种扩大消费的政策,为扩大消费全力以赴。 通过促进智能商品消费,扩大夜间及假日消费,促进跨境电子商务等具体政策,促进民间消费。

另一方面,随着中国消费者的收入增长和消费升级现象,消费市场出现了多种趋势。 中国人的海外直购正在成为新的消费潮流。 利用SNS的社交电子商务市场也在迅速扩大。 今年有望超过2万亿元。 同时,随着追求合理消费的消费者不断增加,强调品质,价格,品牌均衡的所谓"性价比"的在线PB市场正成为新的消费渠道,受到消费者的欢迎。

最后,超过8亿的消费者通过移动进行消费活动,显示移动消费已经成为中国消费者的新标准。 不仅如此,在实体店的移动支付比重也在扩大,消费的移动化正在进一步深化。 因此,为了进军中国消费市场,韩国企业首先要积极利用消费渠道。要把握中国国内海外直购平台,社交电子商务频道,网上PB市场等新兴起的消费渠道趋势,探索利用这些渠道的进军方案。

Ⅰ. 서론

최근 중국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의 불확실성 및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수출입 실적이 모두 부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3%로 하락했으며, 수출은 0.1% 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4.3%로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과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전체 흑자 규모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했고, 상반기 ASEAN이 미국을 제치고 EU와 함께 중국의 2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그 중에서도 對베트남 수출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나, 기타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커 하반기 전망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되고 있으며,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립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Ⅱ-1. 중국 경제 시장의 현재 상황

가. 통상 :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 확산 우려

- 12.1 합의안 도출로 일시 봉합은 됐지만 여전히 장기화 가능성
- 2018년은 '관세보복에 이은 작은 타협의 해', 2019년은 '갈등·분쟁 영역 확산 및 글로벌 공급사슬 주도권 마찰' 가능성

나. 경제 : 경기하방 압박 지속에도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 6% 이상 전망

- 주요 국제기구(기관)는 중국 경제는 6.2~6.4%선 성장 예상
  * IMF(6.2%), OECD(6.4%), World Bank(6.3%), Global Insight(6.3%)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하방 압박 지속 예상
  * 미·중 통상 분쟁 이전부터 실물경제 위축에 이어 분쟁 장기화 우려
  * 2018년 3분기 성장률 6.5%로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 수준

다. 시장 : 중국은 내수확대, 대외개방 패키지 정책으로 대응 노력

- 대내, 대외 정책 전방위 조합 움직임(Policy mix)
  * 통화/금융 : 디레버리징, 환율 등 분야
  * 재정 : SOC, PPP 프로젝트 확대, 증치세, 보조금 운용
  * 산업 : 산업별 보조금 제도 수정 가능성, 민영기업 지원
  * 소비 : 세제 개편, 서비스소비 진작
  * 부동산 : 지역별 차별화 수급 관리, 공급 확대
  * 무역 : 시장 다변화, 증치세 환급 확대 등
- 소비 및 서비스시장 확대, 신산업(AI,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등)·환경산업육성, 인프라 투자로 내수시장 육성정책 지속 예상
- 국제 통상환경의 불안정성,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큰 영향을 받으나 관세 인하, 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수입 확대 예상
  * 시진핑 주석, 상하이 수입박람회(2018.11월)에서 향후 15년간 상품 30조 달러, 서비스 10조 달러 수입 확대 천명

Ⅱ-2. 과거 대중국 무역

시기	주요연혁
1990년대	1992. 8 한중 수교(우호협력 관계 구축)
	1998. 11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00년대	2003. 7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08. 5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08. 12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2010년대	2015. 3 한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2015. 12 한중 FTA 발효

<한중 관계 주요 연혁>

가. 1973—1984년 한중무역협력의 맹아단계

중국은 1949년 10월 정권을 수립한 이후 모든 친미국가를 적대국가로 간주하는 외교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므로 한국과의 외교는 단절되었으며, 북한 위주로 한반도 정책을 결정했다.

1973년 한국은 공산권 문호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6·23선언을 발표하여 중국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74년 1월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 했다.

1978년 말 중국 제11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개혁실용주의 노선과 대외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자 중국의 대외정책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어 1979년 1월 덩샤오핑은 한국과의 우호관계조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그해 7월 구체적으로 한국과 체육 교류의 용의가 있음을 나타냈다.

1980년 4월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KOC)에 대해 언급했다. 1982년 8월에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위원회(WFP) 세미나에 한국이 참가했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초의 접촉은 1983년 5월 중국의 민항기가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하면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중국 당국 관계자를 파견하여 사태수습을 위한 교섭을 벌였다. 이는 국제민항기구 또는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해결방법을 무시한 것으로, 중국측은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0년까지의 접촉은 주로 체육, 관광, 친척방문 등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4년 2월 중국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를 위해 한국 선수가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다. 1984년 3월 자오쯔양 총리는 친척상호교류를 허용했다. 그 후 두 나라 이산가족들의 초청방문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4년 4월 중국 농구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같은 해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여자 농구선수권대회에 한국 선수단이 참가했다. 그 후 두 나라는 체육 교류를 통해 상호 접촉을 확대시켰다. 중국은 1986년 9월 20일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했으며, 1988년 9월 17일에는 서울 올림픽 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은 1990년 9월 22일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했다.

나. 1985—1991년 한중무역협력의 초급단계

경제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어 1985년 한국은행은 대중국 투자를 허가했으며, 1988년 10월 중국 광저우 교역회는 한국기업을 초청했다. 1989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그해 7월에는 베이징 국제박람회에 참가했다. 1988년 10월 한국은 중국 관광금지를 해제했으며, 1989년 6월 한중 해운 정기 직항로가 개통되었다. 같은 해 8월 중국은 한국의 상하이 취항을 허가했으며, 1990년 중국행 우편 직송이 개시되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

였다.

1990년 중국은 한국 기업의 베이징 사무소 설치를 허가했고, 1990년 10월 20일 한중 무역대표부 상호설치합의서에 조인했다. 1991년에 들어서 두 나라의 관계는 한층 발전했다. 그해 1월부터 중국은 한국 기자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었으며, 1월 30일 KOTRA는 베이징에 대표부를 개설했다. 그해 4월 2일 중국 류화추[劉華秋] 외교부 부부장이 이상옥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같은해 10월 최 초로 한중 외무 장관회담을 가졌으며, 11월 제2차 외무장관회담이 있었다.

다. 1992—1997년 한중무역협력의 개혁단계

1992년 2월 민간차원의 한중 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4월 제3차 외무장관회담이 있었다. 그동안 간접교역과 여러 방면에 걸친 교류의 확대는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 나 공식적/정치적인 관계 수립에 있어서는 제약이 많았으며, 중국과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주요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1992년 8월 24일 양국은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한다.

② UN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④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⑥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 서명해 발효시킨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은 반세기에 걸친 양국 간 반목의 역사를 끝맺는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았다. 실 제적으로 한중 수교는 양국 간 경제협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발전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해 교역/투자/산업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93년 6월 26일 해상운송협정이 체결되었고 그해 11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국가주석 간의 제2차 한중 정상회담이 시애틀서 이루어졌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공식 방중으로 제3차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외무장관회담이 열렸으며, 그해 6월 6일에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설치협정이 체결되었다. 11월 4일에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자카르타에서 열려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Ⅱ-3. 한중 FTA

한중 FTA는 한국이 맺은 여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 철폐 속도와 개방도를 낮춘 '저강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 중국은 자국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핵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 철폐 품목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잡았다. 한중 FTA 발효 이후 20년 안에 중국은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품목 수 90.7%(7428개)에 대해, 한국은 92.2%(1만1272개)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1417억 불(85%), 736억 불(91.2%)이 된다.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71%(5846개), 수입액 기준 66%(1105억 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품목 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77%(623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중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는 대상은 한국 수출품목 1649개(전체 품목 수 기준 20.1%)와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6108개(49.9%)이다. 현재도 관세가 없는 품목을 포함한 수치로, 한국 수출품의 경우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기존 무관세 품목 691개에 더해 고주파 의료기기(관세 4%), 변압기(5%),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항공 등유(9%) 등 958개 품목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 쌀을 비롯해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과실류(사과, 감귤, 배),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의 농수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무 등의 밭작물과 토마토나 인삼의 가공품, 김치 등은 양허 대상이다.

서비스, 투자 부문에서는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했다. 통신에서는 상대국의 통신망과 서비스에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비차별적인 상호접속을 제공하겠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49% 지분을 보유하는 게 허용됐다.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해 총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추후 북한 내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지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가. 한중 FTA 기대효과

정부는 한중 FTA로 매년 GDP가 7% 이상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 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 후 10년간 GDP는 0.9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26억 불 증가할 것이며 5만 3805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한중 FTA 영향평가'를 통해 무역수지는 20년간 평균 4억 3300만 달러가 개선되고 제조업 생산은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평균 1조 39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발효 후 10년간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연평균 47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후 5년 간에는 연평균 70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 후 15년에는 연평균 6000억 원 증가가 예상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생산 감소 업종은 섬유와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으로, 발효 후 10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 5개 업종에 철강과 화학, 일반기계도 추가된다. 또 농림업, 수산업에 대해서는 생산 연평균 77억 원과 104억 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 한중 FTA 관련 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 제출한 한중 FTA 결과 의견서에서 한중 FTA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했다.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으로 중국산 식품이 더 쉽게 들어오는데 중국 현

지 식품공장 전반에 대한 검역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한중 FTA 상 44개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WTO 협정상의 특별 세이프 권한을 포기했으며, 노동권 관련 협정문이 아예 없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한중 FTA 환경 편에는 선언적 규정만이 있다는 등이다. 또 중국이 한중 FTA 협상 타결 이후에 제조업과 전문 서비스 업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을 상당 부분 철폐/완화하고 화장품·의류 등 수입 생활소비재 관세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실익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 후인 2015년 3월 외국자본 도입을 크게 확대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공표해 양로기관 노인복지서비스 등 49개 분야 업종에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으로 새로 지정, 개방했다. 이러한 투자 개방 정책은 한국에도 적용되나 한중 FTA 성과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농업 및 수산업이 입게 되는 피해 예상을 두고도 정부와 농림업계의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이제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다고" 강조하면서 2016년부터 10년 동안 농업 경쟁력 향상에 1595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FTA와 관련 없이 이미 중국산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향후 20년 동안 10조원, 연평균 5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자금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Ⅱ-4. 사드문제

2016년 상반기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한 이후 계속되던 한중간 갈등이 2017년 10월 31일 사드 문제와 관련된 양국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에 이은 11월 12일 한중 정상간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봉합되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국 단체 관광 및 한류 콘텐츠 방영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현지 매장에 대한 행정조치 등 광범위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 왔고,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더불어 SNS를 통한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겪어야만 했다.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의 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8%에서 2017년 1~8월 중 2.9%로 축소되었다. 중국의 빠른 도시화와 중산층 증가로 소비재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으로 부터 수입은 2017년 1~8월 중 증가세를 보였으나, 한국산 소비재 수입은 -4.0%를 기록하면서 중국 소비재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시점에 우리 제품만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협력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중국 소비자의 반한 감정이 복원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기업들도 갈등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은 물론 어떤 국가라도 중국과의 정치적/외교적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제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드 갈등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과 2012년에 조어도(일본명 : 센카쿠 열도, 중국명 : 댜오위다오) 분쟁을 통해 우리보다 먼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경험한 바 있는 일본 기업들은 이후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으로 중국 투자를 줄이고 동남아로 생산지 이동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나갔다. 동시에 중국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품과 마케팅을 재정립하여 반일 감정을 극복해나가며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중국 소비자를 분석하여 맞춤 상품을 출시하고, 비교적 반일 감정에서 자유로운 소비층을 공략하거나 정치적 적대감이 덜한 지역에서 마케팅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성과 위생의 강점을 내세워 안전에 민감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유통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번 사드 갈등을 계기로 드러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충성도, 브랜드의 입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China's weaponization of trade에 대비하여 항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류의 프리미엄이 소멸된다는 가정 하에 마케팅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중국 시장에 대한 공포로 잠재 시장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중국 1, 2선 도시 외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3, 4선 도시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소비자들의 빠른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중국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현지 기업의 부상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드 갈등이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잔존하여 중국에서 준법 경영을 정착하여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드 갈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되돌아보고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Ⅱ-5. 향후 대중국 무역의 발전 방향

대중 수출 호조 속의 유망품목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무역 및 산업/시장 변화에 따른 유망 수출품목을 잘 관찰하고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대중 수출 및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유망분야에 적합한 수출 및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수출 및 진출 유망 업종마다 목표 고객이 다르고, 활용 수단과 자원도 다름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피가 적고 '한국산' 제

품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미용 및 생활밀착형 소비재가 유리하며,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일반무역을 혼용하는 전략 등 진출 방법을 혼용/융합하는 전략 등도 필요하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가 더욱 커지고, 비관세장벽 완화 기회 활용 등 FTA 활용 전략도 더욱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중 FTA 활용 시 관세감면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걱정거리가 되었던 중미 통상갈등에 따른 글로벌 및 대중 통상환경 불안정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불안정 상황이 우리의 전체 수출 및 대중수출(중국 경유 수출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드 등 돌발적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경제 주체 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전략과 '국가브랜드' 전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중국이 처음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싼 가격에 엄청난 물량을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였다. 서로 이웃한 한반도와 중국은 서로의 문명이 시작하면서부터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중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갈등의 요소 또한 많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반감 등이 있다.

한중간 무역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쪽은 중국이다. 규모의 차이가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사드경제보복이다. 중국의 불만은 정치외교적 압박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문화콘텐츠, 화장품, 면세점, 관광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6년 8월 말에는 소위 '한한령(限韓令)', 즉 한국 연예인 광고출연 및 공연 금지, 방송국은 물론 동영상 사이트에서까지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하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한류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산 식품, 화장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로 수입을 제한하고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2건 시작했으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지속했다. 양국 관계의 급격 악화는 중국 소비자의 반한(反韓)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우리 소비재의 중국 시장공략에 직접적 타격을 주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할 때 한국은 정말 크게 놀랐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실 사드보복은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위협할 때 최소한의 방어수단이 된다면 무엇이든 들여와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 편을 들면서 남한의 안전 보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사드경제보복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가장 호감을 가진 나라에서 가장 비우호적인 나라가 되었다. 아직도 중국은 사드경제보복을 풀지 않고 있으며, 한국도 더 이상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 대중국 투자는 대폭 줄었고, 이후 중국에서 탈출하여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속출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일시적인 외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중 FTA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한령은 한중 FTA의 기본 정신이 상호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저버렸고,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방기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 간에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비슷하다. 중국의 기업들은 자유롭게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한국의 인터넷 정보를 중국에서는 불통일 때가 많다. 그래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인들이 카카오톡보다는 중국의 위챗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불공정행위는 한중간의 문제이면서 약간은 풀리기는 했지만 대체로 고착되어 가며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초기단계이면서 확대되어 가고 있고, 향후에도 양측의 합의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득실은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견제구가 되는 것은 그나마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Ⅳ.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정식서명 보도자료 http://www.fta.go.kr/cn/paper/1/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한베 국내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7285&bbs_cd_n=8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중FTA 민변 의견서 http://minbyun.or.kr/?p=28325
- <연합뉴스> 한중 FTA 정식서명 연내 발효해 관세철폐시점 앞당길듯 2015.6.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1/0200000000AKR20150601158400003.HTML?input=1195m
- KOTRA. 2016. 『중국 엔젤산업 현황 및 유망분야』. KOTRA
- KOTRA. 2018. 『18-001 2017년 대중수출 평가와 2018년 전망』. KOTRA
- KOTRA. 2018.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Ⅱ』. KOTRA
- 중국 소비시장 현황과 시사점. 2019년 39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정부의 대처현황

경희 고등학교 1학년 8반 17번 이름 신유민 shin yu min 30372@daum.net

초 록

중국은 동북공정 등 수많은 공사를 통해 주변국의 역사를 자국에 편입시켜 소수민족의 독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국의 분열을 막고 아시아 패권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았다. 한국의 역사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도 그들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포함시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내에서 조선족의 독립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대응하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등에 대해 학술연구 차원에서 대응했다.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이 과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Abstract

中国想通过东北工程等众多工程,将周边国家的历史编入自己国家,事先防止少数民族独立,防止中国的分裂,并带来亚洲霸权。 该项目于2006年正式结束,但一直秘密进行,在此过程中得到了中国政府的巨额援助。 韩国的历史高句丽和渤海的历史也包括在他们自己的国家的历史中,扩大对韩国的影响力,同时在中国境内禁止朝鲜族独立。 对此,韩国政府通过外交部进行了应对,并从学术研究的角度对成立东北亚历史财团等进行了应对。 如果我们想正确应对,就有必要详细了解这一过程。

I. 서론

동북공정의 공식 명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으로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5년 기한으로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이는 2006년 공식적으로 종료했지만 지방차원에서의 연구자체는 계속 되고 있을뿐더러 지금도 비밀리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중국이 자신들 본토 내 또는 자신들의 땅에서 있던 사람들과 관련되어 일어난 모든 일, 특히 고구려와 발해라는 엄연한 한국사에 포함된 역사를 자신들에 역사로 편입 시키려고 지금까지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은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진행하고 있을뿐더러 중국에 내부적인 상황과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거대한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진타오 정권 시기와 시진핑 정권 시기에 동북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후진타오 정권

1-1. 동북공정의 시작

2001년 중국 후진타오 정권 당시 중국 정부는 6월에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18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고구려사만 아니라 한반도 고대사, 발해사, 중국과 러시아의 변경지역 역사, 기타 소수민족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동북공정이 영토 및 국경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東北邊疆 硏究』는 2002년 7월 열린 고구려학술토론회(第二屆 東北邊S K 史與現狀暨高句麗 學術硏討會丫에서 2003년 출간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동북공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고구려, 발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서술하고, 고려의 북방한계선을 한반도 내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반도 부에 존재하였던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시기의 한반도인도 사실 상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로 건너간 고 민족이라고 주장하는데 고구려, 백제를 자신들에게 편입시켜 연구하고 신라는 오늘날 조선의 전신이라고 해서 수당 송명청 이래로 우리에게 복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반도의 독자적인 역사는 신라지역으로 제한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1)]

1-2. 동북공정의 과정과 진행

동북공정의 선행 작업들 앞서 설명한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세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은 단순히 '동북공정' 하나가 아니었다. 필자는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여러 형태의 선행 작업들이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본다.

(1). '9.5계획 (1996-2000)' 준비와 시작 단계

9차 5개년 계획인 '9.5계획(1996-2000)'에서는 동북공정을 위한 밑그림인 '하상주단대공 정(夏商周斷代工程)'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하•상•주 3대의 존속 연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견해들 도출하였다. 동이족은 한국민족의 뿌리이고, 상나라는 동이족이 만든 것이고,한자도 동이족의 산물이기

1) 이남주 (2004).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와 대응방향. 황해문화, 45, 219-221

때문에 우리 민족의 것이라는 식의 억지를 펼친다. 「북경만보(北京晚報)」와 2003년 10월 2일자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하상주년표(夏商周年表)'가 하, 상, 주 존속 연대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다.

(2). '10.5계획(2001-2005)' 최종단계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하상주단대공정'(1996-2000)을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은 그 후속 작업으로 2000년부터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진행하고 있다. 중화문명의 근원을 탐구한다는 '중 화문명탐원공정'은, 신화와 전설의 시대로 알려진 '3황 5제'의 시대까지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하여 중국의 역사를 1만 년 전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중화 문명이 이집트 나 수메르 문명보다도 오래된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임을 밝히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중국사회과학원보' 2003년 6월 30일자(인터넷판)에 는 '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주요 과제를, 고문헌에 보이는 요(堯)•순(舜)•우(禹)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 성과 정리, 중국 천문학의 기원 연구, 예제(禮制)의 기원과 연구 성과 정리, 초기 야금기술 • 문자자료의 수집과 정리,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 정립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3황의 일부이고 중원 문화와 직결된다는 염제(炎帝)와 황제(黃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집대성한 10권 의 『염황자료집』을 완간하였다.

(3). '동북공정 (2002-) ' 본격적인 시작

2002년에 정식으로 시작된 '동북공정'은 '하상주단대공쟝중화문명탐원공정,으로 이어지는 '대 중화주의' 건설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 동북 만주지역을 '대 중화'의 영토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동북공정'은 '하상주단대공쟝중화문명탐원공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동북공정'은 '중화문명 탐원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대 중화주의'의 밑그림을 그려 가는데 방해가 되는, 동북 지역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인지도 모른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중국 국가 기획의 최종적인 목표와 의도는 '중화문명탐원공정'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 귀근원/중화삼조당 건립 -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 >동북공정'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일련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대 중화주의'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중국의 의도적인 국가 전략인 것이다.

'중화문명탐원공정'이 마무리 되면,기원전 300° -4OOO년까지 구체적인 역사시대로 자리 매김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제치고 중국이 1만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最 古)의 문명'으로 거듭나게 될지도 모른다.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하상주단대공정'을 건의했던 청화대학 송건(宋建) 교수의 꿈이 '중화문명탐원공정'울 통해 이루어질 지도 모른 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는 고대로부터 많은 인적. 물적•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국경선의 변화가 많았던 주변국들의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의 입장에서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화 문명권이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이라는 예단을 내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 가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들도 '동북공정'의 일면만을 보고 단지 '고구려 연구재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발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동북공정은 '대 중화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망라한 종합적인 공정이고, 동북공정은 이런 전체적인 '대 중화주의 공정'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2)]

1-3. 동북공정의 종료

2) 우실하 (2004), "동북공정의 선행 작업들과 중국의 국가 전략",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7-113pp.

2006년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종료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연구 자체는 계속 하겠다고 밝혀였고 그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 성과들이 발표되면서 한중 양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2004년 8월에 한중 두 나라의 외교부 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만 한정하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구두양해 각서를 주고받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동북공정은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동북공정 식 인식을 담은 연구와 논리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 문단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Ⅲ. 중국 동북공정의 목적

1. 대내적 목적

중국의 동북공정은 본래 대내적인 목적이 훨신 더 강한 편이다. 물론 대외적인 목적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지만 대내적으로 중국 대륙의 민족 분열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낸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 분석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중국의 인구는 92%가 한족으로 그 외 소수민족을 다 합쳐봐야 전 인구의 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 인구가 다 독립해 봐야 인구가 많은 중국에게는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인데 도대체 진실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중국 대륙에 분열을 막으려는 원인인지 알아보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일단 조선족은 민족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한국이 훗날 통일되어 "잃었던 옛 우리영토를 되찾자"는 민족주의 운동의 발현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는 하다. 게다가 현재에도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문제로(위구르, 티벳) 인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뚝을 박아야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더더욱 집착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대부분 역사가 북쪽 유목민에 의해 건설된 역사 북위(선비족), 수(북위), 당(북위), 요(거란족), 금(여진족), 원(몽골), 청(여진족)과 관련이 깊어서 한국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소련이 러시아와 기타 국가들로 분열한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패러다임을 대신해 국가동일성을 유지할 기제로 중화민족이라는 민족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내 모든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를 동북공정에 적용해보자면 만에 하나 한반도가 남북 통일됐을 경우, 중국 동북부 영토에 있는 안 그래도 지금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소속감을 가진 재중동포들이 한국 쪽으로 붙겠다고 나설 경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조선족 거주지인 간도를 자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고구려의 중심지는 요동과 압록강 유역, 평양 일대였지, 간도는 아니기에 제외한다. 사실상 한국이 통일이 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고구려와 발해의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자"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했다고 볼 수 있다.당장 백두산부터 분쟁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큰 마당에 이러한 옛 영토 수복운동은 중국에 있어서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부적 안정을 위해 그 근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중국 정부의 의도로 볼 수 있겠다.

경제적 문제에 경우에는 중국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방에 경우 희토류 등 지하자원이 묻혀있는 곳이 많다. 즉 이들이 나가면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중국의 지하자원은 그 매장량에 있어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광물자원만 놓고 볼 때, 세상에 알려진 광산물은 거의 모두 매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매장량이 밝혀진 광물만 150여 종이며, 석탄,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광물의 매장량은 모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희토류(稀土類) 등의 희귀 광물은 각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자원의 독점과 예속화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희토류 금속의 95%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장량도 세계의 60%를 차지한다. 그밖에 네오듐의 93%, 텅스텐의 90%, 안티몬의 80%, 인듐의 55%, 망간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는 모두 첨단기술산업과 군수품에 절대적인 필수 자원으로서, 최근 들어 중국은 이들 자원을 무기로 내세워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견제와 무역 규제에 맞서고 있다.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석유는 주로 서북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동북과 화북지역 그리고 동부 연해의 대륙붕에도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12년 연속 1억 6,000만 톤을 넘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830억 ㎥를 기록했으나, 막대한 수요와 함께 앞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댜오위다오 부근의 개발을 두고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자원들이 서쪽에 있는 자치구 지역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족이 떨어져나가면 다른 지역이 다 나갈려고 할테고 그러면 결국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니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2. 대외적 목적

다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크게 없다. 다만 주 목적이 아닐 뿐 대외적인 이유도 있으며 그건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아시아 쪽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다. 중국은 패권을 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국이 패권을 잡기위한 노력은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RCEP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이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디딤돌로 RCEP를 받아들였다. 이는 미국이 TPP(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이다)를 주도하여 아시아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늘려고 한 것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했다는 것이 크다.

이 밖에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AIIB와 같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등 중국이 패권국가로의 힘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다. 중국이 이 많은 프로젝트를 아시아 국가 위주로 진행하는데 이는 아시아에 패권을 먼저 잡겠다는 이유이다. 그러니 동북-동남 아시아에 역사에 기원을 자신들에게 묶어서 그 기반을 미리 놓아 미국에 아시아로의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Ⅳ. 한국 정부의 대응

사실 이에 대하여 한국에 대응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애초에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공식 종료이후 계속된 연구 진행과 고구려 유물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듯이 학술연구 차원에서 2005년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중국 동북지역 및 북한지역에 소재한 우리역사 관련 유적에 대한 현황조사, 중국 내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연구소 연구성과의 외국어판 발간 등을 통한 해외 우리역사 홍보 강화, 한·중 고대문화 비교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Ⅴ. 결론

동북공정은 대내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중국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마저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대응해 나야가야 할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당할 것이다. 100년 전처럼 그리고 400년 전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때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어떠한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중국 발 미세먼지와 한-중 관계

Fine dust from China and Korea-China relations
来自中国的雾霾和 韩中关系

경희 고등학교 1학년 2반 6번 김은형Kim Eun Hyung freesmi23@naver.com
경희 고등학교 1학년 1반 17번 윤찬규Yun Chan Gyu yck1258@naver.com
경희 고등학교 1학년 1반 24번 최원석Choi Won Seok cog1123@naver.com

초 록

중국은 1978년 이후의 개혁 개방 이후로 연평균 10% 가량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등 급격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세계 최빈국을 탈출할 수 있었으며, 현재 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게 환경 오염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래서 본 학술 보고서를 통해 환경 오염의 수많은 분야 중 대기오염, 특히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Abstract

中国在1978年以后的"改革开放"以后,以年均10%左右的速度实现了经济增长,在90年代后期,中国可以摆脱世界最贫穷的国家,现在以GDP为准,成为世界第二大经济大国。 但比起中国的质量,更重视数量的经济政策给包括中国在内的许多国家带来了环境污染。
因此,本学术报告试图以韩中关系为中心,了解环境污染的众多领域中的大气污染,特别是最近脍炙人口的浮尘问题,并寻求解决方案。

Ⅰ. 서론

2020년 예산안에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에 역대 최대치인 4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안건이 발표되었다. 이는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 미세먼지 오염 요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기 오염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불투명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1] 이는 실제로 중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은 대기오염 농도만 공개할 뿐 오염물질 배출량은 함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와 공장, 농작물 등 각 유형별로 어떤 요인이 공기 질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2] 따라서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통계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에는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2019년 2월 베이징 환경 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국의 비상 저감 조치 시행 현황 공유, 해당 조치의 공동시행,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 그것이다.[3] 그러나 중국이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강화할 경우, 이 같은 공동 대응 체계의 원활한 진행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의 질을 서서히 악화시킨다. 그런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후에야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한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와 공업화를 이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라면, 미세먼지가 인체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실감도 나지 않고, 그 자세한 실상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오염 문제가 먼저 대두했었던 유럽 국가들의 대처 선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책을 설계하며,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인간의 신체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의학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1. 한-중 미세먼지 원인과 실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오로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에 발표된 한중일 공동연구에서 한국 미세먼지 요인 국가는 국내 47.4% , 중국 40%, 북한 10%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발생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황산염, 질산염 등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미세먼지 많은 편이다.

또한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금속이 포함된 화학 물질들이 수증기와 경합해서 생성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도로와의 마찰로 인한 마모나 보일러, 시골에서의 불법 소각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해로운 미세먼지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중국의 과도한 개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굉장히 빠르고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되는 물질들을 과도하게 사용한 덕분이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중국이 갑작스럽게 개발되면서 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

1) 뉴스 프리존, 2019년11월22일자,"한중 공동대응 효용성 있을까.. 中외교부, 미세먼지 책임론에 "과학적 근거 있나?" 적반하장", 신문기사
2) 조선일보,2019년11월22일자,"[만물상] 중국 미세 먼지",신문기사
3) 전자 신문,2019년8월29일자,"[2020 예산]미세먼지에만 4조원, 내년 환경부 예산 9조 3561억원 편성", 신문기사

Ⅱ-2. 미세먼지에 따른 기관지 질병

2013년 8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실린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의 라쇼우-니엘센 박사팀의 연구논문에서 미세먼지는 폐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30만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했다. 또 일반 미세먼지가 10㎍/㎥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이종태(환경보건학) 교수는 "서울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폐기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경우 최대로 내뿜을 수 있는 호흡의 양을 1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통 300L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3.56L 줄고,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4.73L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속의 황산염과 질산염 같은 독성물질이 눈물 층과 화학반응을 해 염증을 일으킨다. 이것은 소량이라도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없던 안구건조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안구 건조증 환자가 2007년 143만 명에서 2011년 219만명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하였고, 미국 연구에서도 스모그가 발생할 때 안구건조증 발병률이 최고 4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치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뇌 인지 기능 퇴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기업 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는 치매, 심장에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위에 제시된 자료와 같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에는 폐렴, 안구 건조증, 동맥경화증이 있다. 첫 번째 질병은 폐렴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해 폐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폐렴이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성상으로 나올 수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두 번째 질병은 안구건조증이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안구가 먼지에 노출이 되면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눈이 자주 시리며, 이물감이나 건조감 같은 자극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여 잘 뜰 수가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질병은 동맥경화증이다. 초미세먼지가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에 있는 혈액이 굳게 되고 동맥 경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 동맥경화는 때때로 다리 쪽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를 말초혈관 폐색성 질환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다리 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조직이 괴사하기도 하며 운동 시 통증, 무감각, 마비 등으로 이어진다. 동맥경화증은 눈에도 생길 수 있다. 혈압과 당뇨병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당뇨성 망막증이나 고혈압성 망막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명의 주원인이 된다.[4)]

중국의 유명 다큐멘터리인 Under the dome에서 강연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양성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는 아기가 견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Ⅲ-1. 유럽 국가들의 대기오염 대처 선례

본 장에서는 중국보다 더 먼저 산업화를 이룩한 유럽 각국의 대기오염 대처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대기오염을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 혁명을 필두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산업화를 거치며, 경제적 물질적 풍

4) 대한 결핵 협회 (2018). 미세먼지로 인한 눈, 기관지 질병 설명 자료
대한 결핵 협회 주소/www.knta.or.kr/index.asp
5)Youtube(2015). under the dome part 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zVUv_pJUhPg

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대기오염이 환경 문제로서 대두하였다. 과거의 다량의 석탄 사용은 특히 영국에서 심각한 공해를 초래했다. 영국은 1930년 일주일에 만 톤에 달하는 석탄을 소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석탄 사용은 1952년 12월 5일에 스모그 사태를 야기했고, 무려 1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1960년대부터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석탄의 사용을 축소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6)]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었을까? 대표적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정책과 대기오염유발요인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규제 정책이 있다.

첫째로,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정책을 시행한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있다. 노르웨이는 1931년부터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덴마크는 1917부터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대기오염원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판매 세금이 있으며, 이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들은 혼잡세라는 과세 정책을 시행하여 차량이 각국의 주요 도시로 진입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둘째로 대기오염 유발 요인을 찾는 노력에는 여러 가지 규제정책이 있다. 환경오염을 막는 규제 정책에는 정기적인 차량 검사나 도로변 부정기 검사에 의한 배기가스량 규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우회시키는 새로운 도로 건설, 도로폭 감소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통과 교통을 규제하는 교통진정지구 지정과 같은 규제가 있다. 특정 차량의 접근을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억제하거나 일정한 공간을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차량 억제정책, 노상주차금지나 특정시간 주차금지 또는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고려한 환승 주차장 건설과 같은 주차정책, 고밀도 개발에 의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는 토지이용 정책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다.[7)]

이렇듯,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규제 강화와 경제 정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은 자국의 규제 강화와 경제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의 선례를 따라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Ⅲ-2. 한-중의 미세먼지 대처

중국은 2000년부터는 '한중일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 공동연구사업'(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LTP)을 시작하여 미세먼지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초미세먼지를 공동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후 중국 측은 세부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실질적 공동연구와 공동연구 결과 발표 부재로 인한 과학적 불확실성은 동북아 월경성 오염물질 환경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은 2013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중국 내 대기 환경 기준 및 배출기준은 2013년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 수립과 함께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다. 2015년 중국 내주요 74개 도시의 PM2.5 연평균 농도는 2013년에 비해 23.6%가량 감소하였고, 석탄소비량도 매년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대기오염 방지법을 개정하면서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 도입, 중대 대기오염 관측 시 차량 2부제 시행, 산업시설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중오염 긴급대응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베이징 환경 장관 회의가 열렸으나 중국 측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8)]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년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에서 한국은 32㎍/㎥으로 35개가입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1998년 이래 17번의 조사에서 한국은 12번이나 1위를 했다.

---

6) Youtube(2015),Under the Dome, https://www.youtube.com/watch?v=zVUv_pJUhPg
7) Christer Johansson(2002),국토연구원,"크리스터 요한손: 유럽의 대기오염 정책",252호,102-106pp.
8) 환경일보,2019년07월29일자,"해외 유입 미세먼지의 '허와 실' '중국 미세먼지 책임론' 과학적 근거 있나", 신문기사

한국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 발령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미세먼지 유입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조 원에 달하는 환경 관련 예산을 대량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2020년~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①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9)]

Ⅳ-1. 미세먼지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대내외적 영향

전 장에서 말했듯이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대처를 강화하여 중국의 미세먼지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OECD의 35개국 중 1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본 장에서는 중국의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심각해진 지금 상황이 한-중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일 먼저 대내적 영향이다. 대내적 영향으로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하였는데 이때부터 미세먼지에 관한 기사가 폭증하였는데 1990년부터 2005년 까지 미세먼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중국이 원인이라는 기사를 많이 내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좌절감과 중국 때문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다. 또 다른 대내적 영향은 국민 건강에 관련된 것이 있다 미세먼지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환경 문제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자극을 유발하고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 10) 농도가 공기 1 m3당 10 μg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률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10)]

그 다음으로는 대외적 영향이다. 대외적 영향으로는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효과가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8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였다. 한국경제에서 이처럼 국제무역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있는 가운데, 대중국 무 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해 왔다.[11)]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대외적인 무역 효과를 생각했을 때 한-중 관계에 있어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러한 무역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Ⅳ-2.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는 현재 중국과 많은 무역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국가이고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선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국내의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수송부분에서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를 두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화력 발전이나 발전 후에 방사능이라는 오염물질이 나오는

9) 광주드림,2019년11월3일자,"정부, 20조원 투입…2024년까지 미세먼지 잡는다", 신문기사
10) 장경수(2015), 환경정책,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분석",23권, 97-117pp.
11) 서영순(2018), 산업혁신연구, "한국경제의 대중국 무역구조와 한국의 고용효과: 국제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34권, 271-296pp, 272pp.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고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환경협력을 해야 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15.12) 확대 등 협력사업 공고화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예보, 경보 등을 혁신해야 한다.

V.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미세먼지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은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된 환경 문제로 그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로 인한 수 많은 기관지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선례를 통해 중국 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럽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이었던 규제 강화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었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자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주변국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노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이러한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비상경보 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체 건강에 무시할 수 없는 치명성 때문에 양국은 미세먼지를 대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비단 중국 탓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전부 중국 탓이라고만 하고, 중국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의 첫걸음은 객관적인 조사와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양국 간의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함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VI.참고문헌

- 뉴스 프리존, 2019년11월22일자,“한중 공동대응 효용성 있을까.. 中외교부, 미세먼지 책임론에 "과학적 근거있나?" 적반하장”, 신문기사
- 조선일보,2019년11월22일자,“[만물상] 중국 미세 먼지”,신문기사
- 전자 신문,2019년8월29일자,“[2020 예산]미세먼지에만 4조원, 내년 환경부 예산 9조 3561억원 편성”
- 대한 결핵 협회 (2018). 미세먼지로 인한 눈, 기관지 질병 설명 자료 www.knta.or.kr/index.asp
- Youtube(2015). under the dome part 1,https://www.youtube.com/watch?v=zVUv_pJUhPg
- Youtube(2015),Under the Dome, https://www.youtube.com/watch?v=zVUv_pJUhPg
- Christer Johansson(2002),국토연구원,“크리스터 요한손: 유럽의 대기오염 정책”,252호,102-106pp.
- 환경일보,2019년07월29일자,“해외 유입 미세먼지의 ‘허와 실’ ‘중국 미세먼지 책임론’ 과학적 근거 있나”
- 광주드림,2019년11월3일자,“정부, 20조원 투입…2024년까지 미세먼지 잡는다”
- 장경수(2015), 환경정책,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분석”,23권, 97-117pp.
- 서영순(2018), 산업혁신연구, "한국경제의 대중국 무역구조와 한국의 고용효과: 국제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34권, 271-296pp.

68년 프랑스 학생운동과 87년 한국 학생운동 간의 비교분석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위하여-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French Student Movement in 1968 and the Korean Student Movement in 1987
Une analyse comparative entre le mouvement étudiant français en 1968 et le mouvement étudiant coréen en 1987

경희고등학교 2학년 2반 21번 이름 조민준 Cho Minjun(a09043@naver.com)
경희고등학교 2학년 2반 13번 이름 어창열 Eo Changyeol(ohstay170213@naver.com)

초 록

프랑스의 68운동은 권위주의적인 드골 정부와 기성 사회의 질서에 맞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던 혁명이다. '68혁명'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운동은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천 만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된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다. 68운동은 냉전, 베트남전 등의 시대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젊은이들을 저항과 해방의 열망으로 들끓게 했다. 비슷한 시기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겪고 제 3공화국을 겪으며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던 시기였다. 이후 80년대에는 다시 등장한 군부독재에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민주화를 이뤄내는데에 성공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사회운동이자 문화혁명이었던 68혁명과 한국의 정치혁명 이었던 87년 민주항쟁을 당시 주축이 되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두 항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 두 항쟁이 각각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과연 이 시대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치, 사회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Abstrait

Lors des évènements de mai-juin 1968, contre le gouvernement autoritaire Charle de Gaulle et les règles de la société, les jeunes français ont rêvé d'un nouvel avenir. Cette révolution, également appelée 'le mai 68'. est un mouvement de nature à la fois sociale, politique et culturelle, enclenché par une révolte de la jeunesse étudiante à Paris, a gagné toute suite le monde ouvrier et la plupart des catégories de population. En outre, lié à la guerre du Vietnam et à la guerre froide froide, le mouvement à incité les jeunes de tout monde du désir de résistance et de libération. À cette époque, la République de Corée souffrait encore de la Guerre de Corée et la dictature militaire de la troisième République, malgré une croissance économique remarquable. Plus tard, dans les années 80, de nombreux étudiants e citoyens affluaient dans les rues, avec ds slogans tels que 'Abolir la défense de la Constitution' et 'À bas la dictature'. Enfin la Corée a retrouvé son printemps démocratique. Dans cet article, nous visons à compare le Mai 68, le mouvement social et culturel de France et la révolution démocratique dans les années 80 de Corée, tout en mettant l'accent sur le rôle des étudiants, le sujet principal de ces évènements. Par ailleurs, nous examinerons les similitudes et les différences entre les deux manifestations et leur signification afin de réfléchir aux attitudes que devrons avoir nous les étudiants de cet âge face à la politique à la société

I. 서론

프랑스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였던 루이 16세를 처단하고, 천부인권 사상의 기초가 되는 프랑스 인권 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 발표되었다. 프랑스의 국가인 La Marseillaise(라 마르세예즈)의 "Aux armes, citoyens, Formez vos bataillons(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모두 뭉쳐라!)"라는 구절이 이러한 프랑스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사회운동이 있다. 바로 '68운동'이다. 68운동은 프랑스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회운동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겪고난 후 60년대 후반 한창 경제 성장을 이루며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기에, 프랑스는 그보다 한 발 앞서 기성 질서와 규범의 파괴와 새로운 질서의 성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한국의 민주화를 향한 사회운동과 프랑스의 68운동은 닮은 점이 있다. 바로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운동, 항쟁, 혁명이라는 점이다. 단지 자신들이 열망하는 국가의 모습만 다를 뿐, 항쟁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새로운 국가를 꿈꾸고 있었다.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68운동과 한국에 민주주의를 안겨준 87년 민주항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궁금해졌고, 단순히 이 두 항쟁이 단순히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보기 위한 항쟁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68혁명과 한국에서 일어났던 80년대의 항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두 항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 두 항쟁이 각각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과연 이 시대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치, 사회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II. 본론 1 – 68운동과 80년대 민주화 운동

1. 68운동과 학생운동

68운동, 또는 68혁명은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학생,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을 말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1968년의 물결은 서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서양 너머의 미국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중남미의 멕시코,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까지도 휩쓴 세계적인 운동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 한정지어 68운동을 분석할 것이다.

68운동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경제적으로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마셜 플랜을 기반으로 30년 동안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어느 정도의 풍족한 경제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의 열매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이전에 비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중산층 계층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레 반자본주의적인 관점이 퍼지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회문화적으로 고도 성장기에 태어나 자란 전후세대(68세대)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기성세대의 것과 아주 달랐다. 전후 세대들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으뜸의 가치로 삼고 있었으며 권위주의적인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가장 큰 규범상의 단절을 보인 것은 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들은 여성들을 가사노동으로 부터 해방시키게 되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 때문에 성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전후세대는 자유연애를 추구하며 기숙사 규정 개정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67년 3월 21에는 낭테르 대학 남학생들이 남학생들의 여학생 기숙사 출입을 금지하는 기숙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여학생 기숙사를 점거하는 등, 68세대들은 강경한 방법도 불사하며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68세대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몰락하고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었지만 권위주의적인 기성세대와 프랑스 정치권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드골(Charles De Gaulle,1890~1970)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체계 하에 폐쇄적인 방향으로 프랑스 사회를 통치했고 젊은 세대의 요구에도 "우

리들의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 확고하다"며 그러한 통치방식을 유지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좌파 성향의 프랑스 대학생들은 1962년 알제리가 독립하여 프랑스 사회가 식민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제 3세계의 제국주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비판은 베트남을 침략한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되었다 길혀-홀타이에 따르면 .68년 1월 10일에 있었던 베트남민족해방군(베트콩)의 구정공세는 68세대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수 있고 급진적 소수가 '거대한 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이후에 있을 투쟁들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68운동의 시작점은 3월 20일 있었던 베트남전 반대 시위였다. 이 시위에서 참여자들은 파리 오페라 구역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의 창문을 깨뜨렸고, 체포된 참여자들 중에는 낭테르 대학생들이 포함되었다. 낭테르 대학의 학생들은 '3월 22일 운동 그룹'을 조직해 대학 본부를 점거하였고, 그 안에서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대학, 계급 지배와 억압, 그리고 권력의 본질 등에 대해 토론했다. 5월 2일 이 학생들은 반제국주의 시위를 전개하고자 낭테르 대학 강당을 점거하였고, 대학 측은 대학을 폐쇄하고 관련 학생들을 중징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다. 5월 3일 낭테르 대학과 소르본 대학의 학생 약 500여 명은 대학 폐쇄에 항의하며 소르본 대학광장에 모였다. 경찰들이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참여자들이 거부하자 공화국 보안 경찰대는 소르본 대학광장으로 들어와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행을 가했다. 5월 4일 소르본 대학도 학생들의 시위를 막고자 휴강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경찰의 폭력과 대학의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전국고등교육교원조합(SNESUP)과 프랑스학생연합(UNEF)은 5월 6일부터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5월 6일 정오를 기점으로 시위는 과격화되기 시작했고 수만 명의 시위대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찰의 진압에 맞섰다. 5월 7일 드골 대통령은 "Il n'est pas possible de tolérer les violences dans la rue, ce qui n'a jamais été la façon d'instaurer le dialogue.(대화가 불가능한 방법인 거리에서의 폭력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위는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5월 10일 시위대는 파리 시내에 60여개의 바리케이드를 치며 경찰의 진압을 방어했지만 그날 밤 프랑스 정부는 공화국 보안경찰대, 기동대, 경찰을 투입하고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사용해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렸으며 시위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체포했다. 이를 '바리케이드의 밤'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1천여 명의 시위대가 다치고 357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대다수의 파리 주민들은 이러한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에 분노하였다. 5월 11일에는 프랑스 양대 노총인 노동총연맹과 전국프랑스민주노동연맹이 경찰폭력에 항의하며 5월 13일에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5월 13일, 경찰은 소르본 대학에서 철수하였고 노동자들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백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드골의 사임을 촉구하며 파리 시내를 점령하였다. 수만 명의 학생들은 소르본 대학을 점거하고 학생총회를 열어 "소르본 대학교는 자율적인 인민의 것이며, 그리고 밤낮으로 개방되는 대학교"라고 선언했다. 총회는 매일매일 소르본을 관할하는 점거위원회를 직접 선출했으며 점거위원회의 권력은 단 하루로 제한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점거위원회는 식품, 언론, 숙박, 안전, 의료 등의 서비스를 다루는 20여개의 하위위원회(sub-committee)를 두었다. 이러한 하위위원회 중에는 제3세계 문제를 토론하는 공간, 성 억압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예술의 지위를 토론하는 공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자치적이고 평등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간들도 존재했다. 5월 18일 드골은 "La réforme, oui, la chienlit, no(개혁은 찬성하지만 난장판은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점거해제를 촉구하지만 소르본 대학 점거는 5주가량 지속되었다. 5월 24일 드골은 정치적 위기를 타계하고자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부결하겠다면 사임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68운동 세력들이 대학의 자율성과 탈집중화, 고위관료의 타도, 대학 자율 개방을 목표로 한 온건파와 바리케이드나 폭력 등의 혁명적 행동을 통해 드골 정권을 타도와 체제의 전복을 지향하는 급진파로 나뉘어 갈등하는 틈을 타 드골주의자를 비롯한 기득권층은 강하게 결집하였고, 6월 23일과 6월 30일에 치뤄진 총선에서 좌파들의 분열로 인해 드골이 압승하자 68운동은 원동력을 잃고 와해되기 시작했다. 1969년 4월 3일 국민투표에서 드골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이 부결되자 드골을 약속대로 사임하였으나 이후에 치뤄진 대통령선거에서도 드골정권의 2인자였던 퐁피두 총리가 당선되며 드골주의자들이 정권을 유지하였고, 1974년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비로소 정권이 교체되

었다.

2. 문화혁명으로서의 학생운동

몇몇 학자들은 68운동이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68운동을 '실패한 혁명'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는 문화혁명으로서의 68운동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평가이다. 현재 우리가 흔히 '서구적 가치'라고 말하는 것들 ―성적 자유,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등등―의 많은 부분이 68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8운동은" Il est interdit d'interdire(금지함을 금지하라)"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권위주의적 국가와 위압적인 대학 행정, 반공주의에 기초한 냉전 억압과 불관용의 정치 문화, 가부장적인 가족 내 위계질서, 억압된 성과 연애, 물신주의적 가치와 물질주의적 등의 기존의 수구적인 가치를 파괴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꽤나 성공적이었다.

68운동이 창조해낸 반문화, 나아가 대안문화는 기성의 가치관을 바꾸고 기존의 인간관계, 즉 남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등을 변화시켰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냈으며 궁극적으로 근대적 사회를 현대적 사회로 전환시켰다. "5월 이후 프랑스인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옷을 입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부부가 살고, 그들의 여가를 보냈다.(Laurent Joffrin)","68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후로는 그 어떤 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René Rémond)"는 증언들은 프랑스 사회가 68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또한, 68운동은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운동이었지만 기성 좌파정당이나 공산당 등의 세력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서른 살이 넘은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말라"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 권위주의에 대한 극도적인 혐오는 기성 좌파정당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공산당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체계는 68세력들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공산당 또한 68운동을 맹비난하였다. 이러한 68세력은 이전의 좌파들, 즉 구좌파와 구별되는 신좌파 사상을 낳았으며 과거 노동자 중심, 경제투쟁 중심경향에서 탈피하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 나아가 환경에 대한 보호까지 투쟁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였다. 현재는 많은 좌파정당들이 신좌파 사상을 흡수하였으며, 녹색당 등의 신좌파 사상을 전면에 내건 정당들이 유럽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3. 87년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

한국에서는 1980년 최규하 정권 이후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시민들은 독재 체제를 두 번이나 겪었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이미 이승만 정권에는 부정선거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4.19혁명을 이루어냈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군정연장 반대시위와 6.8부정선거 규탄투쟁, 3선 개헌 반대투쟁이 이루어졌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었고, 최규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시작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80년대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고, 1987년에는 6월 민주 항쟁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6월 민주 항쟁은 군부독재에 맞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으로 독재정권의 항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해가 지날수록 점차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계몽과 전두환 정권 당시에 시행했던 경제 정책, 전 정권에 비해 현저히 느린 경제성장 속도 등의 여러 문제 또한 시민들의 의식 향상에 한 몫 했다. 또한 학생들은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주체'를 자신들의 나이대인 10~20대라고 생각했고,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운 젊은이들이 타 연령층의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민주의식을 일깨워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방 이후 4.19 혁명을 거치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학생운동을 주최하며 투쟁과 혁명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이후 독재정권이 등장하면서 학생운동은 정치적인 주체들과 연계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1986년 5월 3일, 인천직할시(現 인천광역시)에서 다음 해 6월 민주 항쟁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자민투, 민민투를 비롯한 수도권 수십 개 대학의 학생운동 단체와 사회의 다양한 운동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파쇼 타도와 삼민 헌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그 중에는 무고한 시민들까지 연행된 사람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6월 4일 부천 경찰서에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했고, 뒤이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4.13 호헌조치가 이루어지며 6월 항쟁의 발단이 된다.

1986년 10월 28일, 전국 26개 대학의 2,000여 명의 학생들이 건국대학교에 모여 일명 "애학투련"이라고 불리는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의 결성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약 4일 동안 대치한 후 단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10.28 건국대 항쟁이라고 부른다.

1987년 6월 9일, 전국 각 대학 교정에서는 6.10 민주 항쟁의 사전 집회가 있었다. 그 속에는 연세대학교 학생이던 故이한열 열사가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전두환-노태우 화형식'을 진행한 후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과정 중이었다. 하지만 교외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그 중 한 발이 연대 학생 이한열의 후두부에 직격해 그를 사망하게 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은 6.10 민주 항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6월 10일은 6월 민주항쟁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말 이후부터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전에 5.18을 겪은 광주 지역의 전남대, 조선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쟁이 계속되었다.

1987년은 학생운동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선정되었고, 1989년에는 한 주간지에서 학생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3위라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학생운동의 가치는 '공개성, 대중성, 합법성'이었다.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대중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항쟁을 이끌어냈다.

인천 5.3운동과 10.28 건대항쟁의 실패 이후 5공화국 정권의 엄격한 민주화세력 탄압으로 민주화운동 세력은 잔뜩 움츠러져 있었다. 하지만 1987년 초 일명 '탁억사건'으로 불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등으로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당겨졌다. 더불어 1987년 4월에 전두환은 "대통령 간접 선거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쌓이고 쌓였던 민중들의 불만과 울분이 폭발했다.

점차 가열된 학생대중의 열기는 6월 9일 각 대학별 총궐기 결의대회로 집결되어 6.10 항쟁때 국민대투쟁의 주력을 형성하였다. 학생운동은 수업거부, 시험거부 등으로 돌입하면서 대중적 차원에서도 한껏 고양되어 높은 투쟁의지를 과시했다. '대중추수주의', '우경화'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대중과의 굳은 결합을 시도한 힘에 기반하여 학생운동의 정치투쟁으로의 진입이 폭발적인 향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은 전두환 정권의 군사파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나, 최종적인 민주주의 획득을 불러오진 못 했다. 하지만 이 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타협'이라는 독재정권의 항복을 이끌어내고 6.29 선언 등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은 계속되었다.

대한민국 근·현대 100년 역사에서 가장 활기차고 동태적이고 자신들의 사회를 새롭게 변모해 보려는 시도와 이전 사회의 묵은 때를 없애보려 한 노력은 사회 전체를 바꿔보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80년대 학생운동의 의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쇄신하려는 큰 활력소를 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III. 본론 2 - 68운동-87년 학생운동의 비교

1. 68운동과 87년 학생운동의 공통점

68년 프랑스의 학생운동과 87년 한국의 학생운동 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학생들이 낡은 사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를 바라며 일으킨 항쟁이자 혁명이라는 점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은 젊은 세대들이 기존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한국의 학생들은 계속되는 군부독재를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열망했고, 프랑스의 학생들은 사회의 부조리함과 샤를 드 골 정권, 근대적 전통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었던 모순들을 비판하며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혁명을 일으켰다. 또한 이전의 노동자 등의 특정 계층이 참여 및 주도했던 사회운동들과는 달리 이 두 운동은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운동이었다. 이전 기성세대들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다른 나이대의 시민들을 이끌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어 운동을 주도한 것이 이 두 운동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운동이라는 점이다. 68운동이 파괴하고자 했던 기존의 질서에는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가 있었고, 그것은 베트남전 반대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많은 프랑스 학생들은 베트남을 비롯한 제 3세계 국가를 침략하고 수탈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분노했으며, 체 게바라와 호치민, 마오쩌둥 등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프랑스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실제로 68운동에서 학생들은 "체,체,게바라! 호,호,호치민!"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 68운동이 시작되게 된 계기 또한 68년 3월 20일에 있었던 베트남전 반대 시위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국이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있었던 학살을 묵인하고 전두환 정권을 간접적으로 승인한 이후 학생들 사이에 반미정서가 퍼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광주의 진실을 숨기려는 전두환 정권과 미국 정부에 크게 분노했고,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한국에서 '미국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1985년 5월에 일어난 미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이러한 논쟁들은 증폭되었으며 '반미투쟁'은 학생운동 조직의 주요한 정치적 목표와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때, 한국에서의 '반미'는 단순히 미국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독재체제와 민간인 학살을 묵인하는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처럼 68운동과 87년 민주항쟁이 요구하는 것은 각각 '기성질서의 파괴'와 '민주화'였지만 그러한 요구가 촉발되는 계기에는 두 운동 모두 반제국주의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두고 있었다. 특히, 광주-베트남으로 대표되는 학살의 기억—80년 광주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베트남전에서의 미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두 국가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기억의 정서는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프랑스에서는 68운동 이후, 한국에서는 6월 민주 항쟁 이후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많은 사회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여파로 같은 해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설립되며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1980년대까지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절정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민주화 정신을 잊지 않았고, 민주화 정신은 촛불집회라는 형식으로 계승되어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등 사회와 정권에 문제가 생길때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났다. 최근 프랑스에서도 반정부적 성격을 띠며 마크롱 정부의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운동(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이 일어났고, 그들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68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Nous avons coupé des têtes pour moins que ça.(우리는 이것보다 하찮은 문제로도 목을 베어 봤다)"

2. 68운동과 87년 학생운동의 차이점

68년 프랑스 학생운동과 87년 한국 학생운동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첫째, 정치혁명과 문화혁명간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한국의 87년 학생운동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군부독재를 막으려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박정희 정권의 군부독재, 그리고 뒤이어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점점 독재는 심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수준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때문에 시민들은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집중했고, 사회의 모순이나 경제 개혁, 인권 보장 등의 담론들은 상대적으로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68운동은 이러한 정치적

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를 모두 원했다. 68운동 세력들은 기존 정권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모든 질서와 가치관에 저항하였고, 총회, 점거위원회, 하위위원회 등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대안적 모습을 제안하였다. 보수적인 성관념, 권위주의적인 정치인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료주의, 허울뿐인 복지제도 등은 모두 비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엄격한 비판을 통해 창조된 새로운 가치들이 기성 사회의 가치들을 대체하게 되었다. 결국 87년 민주항쟁은 정치제도의 혁명을 이룬 정치혁명이었고, 68운동은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파괴하고 재건한 문화혁명이라는 점에서 둘의 성격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학생운동 조직의 구성에 큰 차이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화운동 조직은 관료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여타 기업, 노동조합 등과 같이 위원장 등의 대표들이 집회를 구성하고, 계획하여 그 아래의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조직의 경우 우두머리의 정치적, 사회적 사상에 따라 그 조직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의 혁명 조직은 이와 완전히 달랐다. 68운동의 경우 '행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행동했는데, 이 조직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성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표출되는 대중의 생각 하나하나를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이러한 행동위원회는 조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조직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앙위원회의 경우, 파리의 각 구를 중심으로 건설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해 20개의 구에 파리에서만 45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었다. 각 구별 행동위원회의 위에는 중앙 행동위원회가 있었지만, 중앙 행동위원회는 단지 중개와 중재하는 역할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행동위원회는 한국과 달리 조직이 관료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에 "논쟁이나 문제 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행동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행동위원회는 대중들에게 혁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퍼뜨리는 데 주력했다. 혁명의 전위가 아니라 혁명의 조력자가 되고자 하였던 것이다. 자발성과 자율성,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프랑스의 행동위원회는 전위가 없어도, 대표가 없어도 혁명은 가능하다고 상상했으며 그것을 직접 실천해나갔다. 가부장적인 젠더의식, 선후배 사이의 권위적 위계 등을 기반으로 했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목표했지만 조직 내부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IV. 결론

김종법(2007)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란 서구적 민주주의적 절차나 과정 및 내용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이는 특히 내용보다는 절차나 제도에만 관심을 두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에도 대의제도의 핵심인 의회의 행정부 예속 경향, 민주적이고 정책 중심의 정당 부재, 권위주의적 정부의 존재, 개발과 성장의 혜택을 받고 기업들과의 유착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관료들과 관료주의,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의 정치화, 소유권의 자유만을 외치는 비민주적이고 권력추종적인 언론, 민주주의의 교육과 실천에 노력해야 할 학자와 지식인들의 상품화와 어용화, 올바른 역사청산 위에 자라야 할 청소년과 청년들의 비민주적이고 탈사회적인 문제 인식 등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한국 사회 도처에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완결되지 못한' 민주주의 속에서 과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민주주의 너머에 대한 상상력이 존재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기반 없이는, 그 어떠한 발전과 진보도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의 68운동에 대해 탐구하던 중,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 한국사회는 87년을 기점으로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87년 정신'은 문화의 민주화나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87년 정신이다. 87년 정신이 포함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 뿐이며,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포스트-87년정신(post-1987)이 필요하다. 포스트-87년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을지,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프랑스의 68정신을 통해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는 있을것 같다. 권위주의나 상명하복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가치에 대한 저항, 국가주의를 넘어선 개인에 대한 존중, 수구적인 유교 도덕규범의 파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등의 모습은 포스트-87년 정신의 일부일, 또 일부여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세력이나 조직이 주도해서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중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자치적인 통제를 통해 찾아올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막는 기성 가치와 규범에 대해 예리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Soyez réalistes, demandez l'impossible, Le changement est nôtre! (사실적이어라, 불가능을 요구해라, 변화는 우리의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강내희. (2011). 근대 세계체계에 대한 68혁명의 도전과 그 현재적 의미. 문화과학, 67(), 57-89.
- 손호종. (2008). 68혁명과 학생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 5(2), 8-31.
- 임기대, 김광수. (2018). 프랑스의 68혁명과 알제리의 탈중심주의 -베르베르(Berber)인의 소수자 권리-. , (138), 155-191.
- 오제연. (2018). 1970년 전후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양상과 68운동의 ‘스튜던트 파워’. 역사비평, (), 102-139.
- 마정윤. (2006). 1968년 프랑스 5월 학생운동과 행동위원회.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14(), 105-142.
- 임문영 (2002). 프랑스의 1968년 5월 혁명의 문화적 성격. 국제학논총, 6, 137-159
- 민유기 (2013). 68년 5월 운동과 프랑스의 대학개혁. 프랑스사 연구(29), 189-216
- 민유기 (2018). 프랑스 68운동과 한국 촛불항쟁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비평, 8-34
- 이재원 (2018). [1968 학생운동 발발 50주년] 68문화혁명과 50주년 기념. 지식의 지평(25), 110-119
- 김종법. (2007). 68운동과 87년 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변혁 주체로서 학생 및 학생조직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0), 252-285.
- 이기라 (2018). 68운동을 통해 바라본 2016/2017년 촛불운동의 성격과 의미. 역사와 세계, 54, 527-554
- 장혁준 (2019). 68운동 이후 대안적 시민성의 철학적 성립기반으로서 보편적 권리화.
- HOMO MIGRANS, 20, 64-113
- 도승연 (2018). 푸코와 68혁명 : 사건이 아닌 경험, 신화가 아닌 비판으로서의 혁명. 사회와 철학(36), 31-62
- 김은경 (2019).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이슈&진단, 1-25
- 황병주 (2018). 1960년대 지식인의 68운동 담론. 역사비평, 35-71
- 서동진 (2018). 68혁명과 제3세계 그리고 세계사. 마르크스주의 연구, 15(3), 12-38
- 잉그리트 길혀-홀타이.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창비(2009)
- 알랭 바디우. 『반역은 옳다』. 문예출판사(2019)

페미니즘, 한국과 프랑스의 이야기

프랑스의 페미니즘으로 보는 한국의 페미니즘의 발전

Le féminisme, l'histoire de Corée et de France.

Le développement du féminisme en Corée par le féminisme en France.

경희 고등학교 1학년 3반 2번 이름 고석현 seokhyunseven@naver.com

경희 고등학교 1학년 5반 15번 이름 이제학 zeminanda@naver.com

Ko Seok Hyun & Lee Jae Hak

초 록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페미니즘과 여성인권에 대해 다룬다.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와 변화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다음, 올랭프 드 구즈와 시몬 베이유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페미니즘의 역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여성 운동의 시작과 임신중절 합법화라는 두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세 번째로, 현재 프랑스에서 여권 신장 운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본다. 이와 연계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여성들이 어떤 사건에 분노하였고 이를 위해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이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본다.

Abstract

Actuellement en Corée, il s'agit du féminisme et des droits de la femme qui sont un des plus grands problèmes. Dans cet article, on se pose des questions sur la définition de ‘féminisme’ et son développement. Ensuite, on présentera les deux plus grands mouvements féministes au cours de l'histoire du féminisme en France, autour d’Olympe de Gouge et Simone Veil. Troisièmement, on va examiner les résultats et les problèmes actuels des mouvements de droits de la femme en France. Et en coordination avec la situation en Corée du Sud, on va examiner la discrimination sexuelle dans notre pays et les raisons pour lesquelles les femmes coréennes sont en colère et les mouvements qui se déroulent actuellement. En conclusion, on va réfléchir au futur de féminisme en Corée.

Ⅰ. 서론

여성의 삶을 다룬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젠더이슈에 대해 논한다. 사실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대중에게 화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 영화가 개봉된 것 때문은 아니다. 더욱이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여성을 향한 묻지마 살해사건인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 오피스텔 성범죄 미수, 광고 등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성상품화, 더 올라가 2000년대 중후반 혐오표현 된장녀, 김치녀등의 여성을 향한 혐오발언 등 인권과 평등의 개념이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향해 무차별적인 무시와 차별, 목숨의 위험까지 겪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함께 “여성인권”/“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30대 남성에게 페미니즘 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벌써부터 페미(비하적 의미), 페미니스트들은 모두 뚱뚱하고 ‘그들의 눈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쿵쾅쿵쾅’ 등의 비하단어를 스스럼없이 말한다. 그들은 한국의 페미니즘은 틀렸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든다. 특정 계층이 말하는 페미니즘과 대중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무슨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를 타개해야 하는지 찾기 위해 현재 여성인권이 비교적 잘 정착된 나라인 프랑스의 상황을 보고 찾기로 했다.

Ⅱ. 페미니즘

우리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 과연 페미니즘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겠다. 페미니즘은 다양한 해석과 갈래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의 원인을 규명,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이념”으로 보겠다.

1. 페미니즘의 정의와 종류

페미니즘은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만 변하지 않는 틀은 성평등의 개념이다.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오면서 의미도 달라져왔는데, 페미니즘의 어원은 여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Femina** 에서 온 것으로 과거에는 여성성을 특정하는 의미였으나 현재는 성평등의 도구로 쓰인다.

이에 활동한 여성운동가 들은 각각 시대와 운동의 방향에 따라 1세대/2세대/3세대로 나뉘는데 제1세대 여성주의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등장하였으며 여성의 법적 불평등과 특히 여성의 참정권 확보에 중점을 둔다. 이후 여성의 참정권이 확보되자 1세대 여성운동은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넬리 루셀(Nelly Roussel)과 마들렌 펠티에(Madeleine Pelletier) 등은 출산의 자유를 추구하는 등 참정권에 국한된 1세대 여성주의 시기를 넘어 2세대 여성주의의 등장이 일정 부분 예시되어 있었다. 제2세대 여성주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지며 이 시기에는 문화적 불평등, 성적 규범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로 확대된 논의를 진행했다. 제3세대 여성주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갈래로 분화된 여성주의 활동으로 대변된다. 이 사이에 2세대의 활동을 실패로 간주하는 부류가 등장한 반면 흐름을 이어가는 부류도 있다.

Ⅲ. 프랑스의 페미니즘

1. 여성운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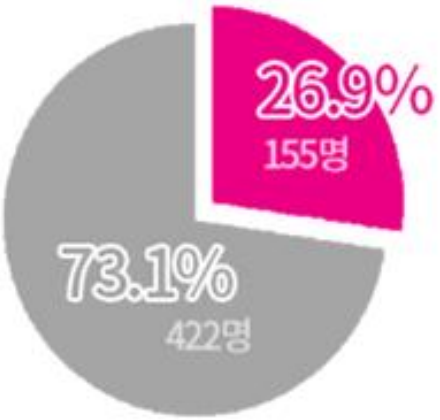
프랑스의 여성인권은 18세기의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라는 여성이 “여권 선언”(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s citoyennes)에서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이 시초이다. 구즈는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이 국민적 행사에 참여하는 공식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했으며 여성들 자신의 고유한 혁명을 수행하도록 여성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녀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상거래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요구사항과 불만들을 국왕에게 제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남성이 여성을 대리할 수 없듯이 여성들은 여성에 의해서만 대변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성 대표자들을 삼부회(현 국회의 업무와 비슷한 기능)에 참가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여성들도 지적인 모든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들과 동일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근본적 사고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즈는 남녀의 성별 차이를 강조하지 않고 대신에 남녀가 공통적으로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

과로써 여성의 권리들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대들(남성)과 우리들(여성) 사이에 공통의 것이 존재하는가? 남성들이 힘과 폭력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제거하고 강탈해 갔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라고 여성의 인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프랑스의 여권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 다시 크게 등장하는데, 바로 여성 자신의 몸과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막 도입된 임신 중절법은 이미 1968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시몬 베이유(Simone Veil)가 그 시작이다. 그녀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16세에 나치에 끌려가 78651번 수감번호를 얻고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여성이다, 그녀는 당시 프랑스 보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자발적 임신중절 법안을 마련하고 의회 논의 과정에서 보수주의자들을 설득하며 해당 법 제정을 정치적으로 주도했다. 임신중절은 프랑스 혁명기에 최초로 마련된 근대적 형법인 1791년 형법에서부터 위법으로 규정되었지만 그녀는 1968년부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최종적으로 1979년 12월 31일에 임신중절의 합법화가 공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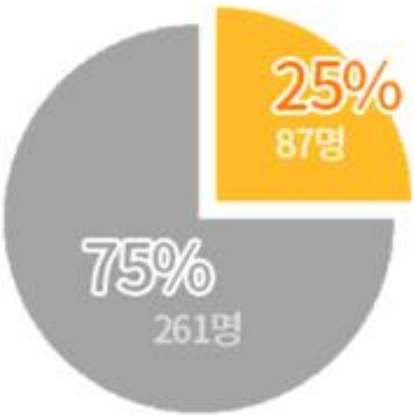
1. 현재 프랑스의 실황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초대 내각 구성은 남성 11명, 여성 11명이다. 또한 프랑스는 선거에서도 남녀 후보의 비율을 같게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바로 ‘남녀 동수 법안(파리테 법)’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여성인권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이 제정되어도 여전히 국회의원의 수는 여성이 1/4를 겨우 맞춘다. 즉, 아직도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힘이 약한 축이라는 뜻이다. 아래 그림은 각각 프랑스 하원, 상원의원 수중 여성의 수와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다.



여성

하원의원 비율



여성

상원의원 비율

또 프랑스는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를 가졌고,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온 이민자가 특히 많은데, 현재 프랑스에 사는 알제리 계만도 17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슬람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하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프랑스의 이슬람 인구는 572만 명이다. 이렇게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현상이나 활동들이 자주 목격된다. 이 문화가 프랑스에도 넘어와 소위 여성의 혼전순결을 지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음부를 꿰매는 여성할례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여성 인권단체 중 하나인 GAMS(Groupe pour l’abolition des mutilations sexuelles féminines)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할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단체를 찾아오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망명 가능성을 문의하기도 한다. 또한 체류허가를 받거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신 국가에 있는 할례를 하고자 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반대하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Ⅳ. 한국의 페미니즘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여성인권은 프랑스와는 달리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뒤늦게 일어났다. IMF 이후 불안해진 경제와 비정규직의 확산 등 불안한 청년실업과 당시에도 만연한 가부장제, 남성우월주의 유교적 사상과 그로 인한 여아 낙태 현상이 맞물려 시작된 남녀 임금 차별과 2000년대 중반쯤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며 명품가방을 들고다니는 –구매의 주체가 여성 자신이여도 남자에게 빌붙었다고 간주하는– 여성을 된장녀/김치녀라고 부르며 혐오발언이 난무했고, 이것이 방송에서 웃음거리의 소재로 사용되

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은 프랑스와는 확실히 아래에 위치한다.

1. 우리사회가 가진 문제점들

현재(2019.11.08.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일고용 동일임금 청원'이 12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을 위해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여성의 고용과 임금의 차별이 나아지지 않자,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올린 청원이다. 이 글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한 말을 인용, 풍자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남성에게만"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비판중이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35%덜 적은 임금을 받고 이는 8월 중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수준이기에 명백한 차별이고, 고의적으로 여성을 탈락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과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남성과 같이 인정하고, 여성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라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있다. 하나의 예시로 서울메트로는 2016년 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여성할당제는 이미 국회에서 "사업장에서 여성의무 할당을 위한 법안"-의안번호 2018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와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은 아직까지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또한 큰 문제이다. 하지만, 고위직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게 살해 협박을 받는 것은 능사였다. 과거 장자연 리스트 사건처럼 여성은 남성에게 성적 대상화 당했었고, 자신의 잘못도 아닌걸 자신의 잘못인것처럼 감추고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왔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ME TOO' 운동이다. 미투운동의 처음은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29일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에게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판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법조계를 시작으로 미투운동은 연극계, 영화계등으로 퍼지며 다양한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용기내어 말했다. 그러나 가해자 옹호 중심으로 펼쳐지는 언론과, 법원등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나'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말들은 2차 가해로 이어졌고 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로 이어졌다. 그리고 혹시 한창 이슈였던 리얼돌을 기억하는가? 이에 대해 찬반양립이 극명히 갈렸는데, 일부는 남성의 성적욕구 해소라는 이유로 찬성했고 반대하는 이들은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유명인에 대한 유사성범죄의 위험이 있으며 성범죄에 무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리얼돌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었고, 그것도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이기에 이미 여성에 대한 인식이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커스텀, 즉 주문제작이기에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머리부터 발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어져 점점 이 인형은 신장이 140cm, 150cm 등 어린아이의 형상으로, 더욱 소형화되고, 점차 페도필리아적 상품으로 판매가 되어 여성은 이제 남성에게 오직 성(性) 상품화의 대상으로 느껴지게 한다

Ⅴ. 결론

최근에(2019.11. 7.)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열었는데, "첫째로 엄마의 시민권을 자식들에게 허락하고, 둘째 조혼을 금지하고 셋째, 여성 대상 범죄를 멈춰라" 이 3개가 가장 큰 시위의 내용이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중동만의 특이한 문화니까. 우리나라는 저렇지 않잖아. 아직도 저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있다고?"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다를 것 없다. 현재 여성들은, 넓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의 모든 여성은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불공정한 일을 알게 모르게 겪으며 살고 있다. 남녀평등은 정말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제약 없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 공평과 평등의 시대이다. 페미니즘은 더 이상 단순한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여성 군림 시대 또한 더더욱 아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상위 주의가 아니다.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남성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며, 이미 상당 부분 높은 곳에 있는 남성과 이에 반해 엄청난 시간을 가지며 벌어진 여성지위의 격차를 메꾸기 위해 지지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만약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가지는 시대가 오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와 이론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자. 여전히 페미니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당히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답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 다니는 초등학교라는 교육기관조차도

여자 학생들은 차별을 당했다. 인권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여자 학생들의 번호가 51번부터 시작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 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고, 겪어온 것들 하나하나 우리에게는 차별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겐 지금 당장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도 하다. 다시 처음에 언급한 <82년생 김지영〉으로 돌아가 보자. 일부는 이렇게 말한다. 김지영이 바로 ‘대졸 중산층 여성’의 삶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이 또한 여성 내부의 차별이 아닌가 라고. 사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엄마들이라고 모두가 대학을 나온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 와중에도 더 힘들고 더 소외된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예 부각조차 되지 않는 여성들의 삶이 있다. 하지만 하니의 예를 더 들어보자.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을 때, 장그래가 계약직 신분으로 겪는 온갖 미묘한 차별이나 서러운 에피소드를 두고 모든 비정규직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며, “그래 봤자 저건 공부 좀 한 사무직들의 이야기잖아! 지금 이 시각에도 안전한 노동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대학도 못 나온 소외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미생〉을 보면서도 소외감을 느낀다고!”라고 수군거리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장그래가 모든 남성의 삶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불쌍한 청춘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인생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세팅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정규직 성인 남성 장그래의 이야기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차원에서 인물 한 명 한 명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 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82년생 김지영>의 경우 왜 여성 ‘보편의’ 서사를 다루지 않느냐, 왜 소외되는 모든 집단을 다루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이라는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 또한 그 소재가 공감을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되었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성, 그 오래된 차별에 대해 우리는 결국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 이 말 또한 남성이 여성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의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여성을 ‘바라보고, 도움을 주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 스스로 충분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펴지 못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남성은 여성의 상황에 최대한 공감을 시도해야 한다. 여성들이 겪는,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과 세계는 남성이 보는 세계와 다르다. 우리는 이를 알아야 하고 공감해야 한다. 이해와 공감. 이 뻔하고 흔한 단어가 우리 사회의 젠더 이슈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해답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공미혜.(2019)“페미니즘의 기원과 역사” p1
- 이세희. (2008). “올랭프 드 구즈의 생애와 「여권 선언」 ” p.10~p.13, p.16
- 민유기.(2018.8).“68년 이후 프랑스 여성운동과 낙태 합법화” p.3, p.5, p.24
- 경향신문(2019.9.30.) “여성 지원자 점수 조정해 전원 탈락시킨 서울메트로” 최미랑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77
- “왜 ‘82년생 김지영’에게만 보편의 서사를 요구하는가” 한승혜
- 국가 인권 위원회: “[사건행위(차별)] 출석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성차별]” p.1 주문, p.3 판단